국어국문학회

제66회 국어국문학회 전국학술대회

대학 교육의 위기와 국어국문학의 변화 방향

- 일시: 2022년 5월 21일(토) 09:30~17:30
- 장소: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14동
- 주최: 국어국문학회
- 후원: 상상국어평가연구소·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국어국문학회

2022. 5. 21.

제66회 국어국문학회 전국학술대회

‘대학 교육의 위기와 국어국문학의 변화 방향’

- 일시: 2022년 5월 21일(토) 09:30-17:30
- 장소: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14동 B101호, 102호, 103호, 104호, 202호
- 학술대회 일정표

일정	발 표 및 내 용	비 고
09:30 ~ 10:00	등록 및 접수	
제1부 분과별 기획 주제 발표		
제1분과 대학 교육의 위기와 국어학의 변화 방향		
10:00 ~ 10:20	한국어 지시화행의 불손 연구 발표: 김강희(부산외대)	사회: 김민국(경상대) 장소: 14동 102호
10:20 ~ 10:40	음운 감쇄 현상을 통해 본 음운론 연구 발표: 하영우(전주대)	
10:40 ~ 11:00	인문학 위기 속의 국어정보학의 현황과 전망 발표: 최정도(계명대)	
11:00 ~ 11:20	언어 변화와 언어 공동체와 역사 코퍼스 발표: 김현주(공주교대)	
11:20 ~ 11:30	휴식	
11:30 ~ 12:10	종합토론 이수연(국민대), 김한별(서강대), 오규환(동덕여대), 허인영(고려대)	좌장: 최윤지(인하대)
제2분과 대학 교육의 위기와 고전문학의 변화 방향		
10:00~10:20	고전시가 위기의 진단과 문제 해결의 좌표 - 관계성의 복원과 이해의 지평을 중심으로 발표: 최홍원(상명대)	사회: 유춘동(강원대) 장소: 14동 103호
10:20 ~ 10:40	대학 고전서사 교육의 목적과 방법 재고 발표: 엄태웅(고려대)	

10:40 ~ 11:00	대학 교양 한문의 당면 문제와 개선 방안에 관하여 발표: 이승용(단국대)	
11:00 ~ 11:20	강의실 밖으로 나온 구비문학 강의 설계와 실천 방안 발표: 김경희(가천대)	
11:20 ~ 11:30	휴식	
11:30 ~ 12:10	종합토론 김승우(이화여대), 정제호(한국교통대), 김종민(성균관대), 서유석(경상대)	좌장: 백승호(국민대)
제3분과 대학 교육의 위기와 현대문학의 변화 방향		
10:00 ~ 10:20	디지털 네이티브와 새로운 시적 감각 - 문학의 변화에 대응하는 문학 교육 발표: 김지윤(숙명여대)	사회: 안지영(국민대) 장소: 14동 104호
10:20 ~ 10:40	신자유주의시대의 웹툰과 소녀들의 서바이벌: <피라미드 게임>, <도플갱어의 게임>을 중심으로 발표: 전지니(한경대)	
10:40 ~ 11:00	1960년대 '문학과 현실' 담론의 전개와 비평 장의 변동 발표: 안서현(서울대)	
11:00 ~ 11:20	디지털인문학의 과제와 교육 모델로의 활용 가능성 탐색 발표: 박미란(성공회대)	
11:20 ~ 11:30	휴식	
11:30 ~ 12:10	종합토론 윤호경(이화여대), 문선영(한국공학대), 허선애(KAIST), 유연주(서울대)	좌장: 유승환 (서울시립대)
제4분과 대학 교육의 위기와 어문교육의 변화 방향		
10:00 ~ 10:25	대학교육의 위기와 국어교육의 역할 발표: 남가영(서울대)	사회: 민재원(전북대) 장소: 14동 202호
10:25 ~ 10:50	교양글쓰기 수업 내 어문규범 교육의 위상 발표: 김남미(홍익대)	

10:50 ~ 11:15	유학생의 대학 생활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발표: 이수미(성균관대)	
11:15 ~ 11:25	휴식	
11:25 ~ 12:10	종합토론 주세형(서강대), 최소영(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강남욱(경인교대)	좌장: 오현아(강원대)
휴 식		
12:10 ~ 13:30	점심식사 및 휴식	
제2부 대학 교육의 위기와 국어국문학의 변화 방향		
13:30 ~ 14:00	학회장 인사 및 분과별 논의 정리	
14:00 ~ 14:30	국어학 연구 성과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소고 발표: 주지연(영남대)	사회: 신현웅 (한국기술교육대) 장소: 14동 B101호
14:30 ~ 15:00	고전문학 교육의 현황과 변화 방향 발표: 이정원(서강대)	
15:00 ~ 15:30	위기 속의 전환: 포스트휴먼 (인)문학과 SF의 사변적 상상력 발표: 노대원(제주대)	
15:30 ~ 16:00	교원양성기관 국문학 교육의 성찰과 새로운 구도 모색 발표: 류수열(한양대)	
16:00 ~ 16:30	휴식 및 대토론회 준비	
16:30 ~ 17:30	대토론회	좌장: 민병곤(서울대)
17:30	폐회	

국어국문학회

제66회 국어국문학회 전국학술대회

【차 례】

【 1 부 】: 분과별 기획 주제 발표

▌제 1 분과: 대학 교육의 위기와 국어학의 변화 방향

[1] 한국어 지시화행의 불손 연구
발표: 김강희(부산외대) ····· 9
토론: 이수연(국민대) ····· 14
[2] 음운 감쇄 현상을 통해 본 음운론 연구
발표: 하영우(전주대) ····· 15
토론: 김한별(서강대) ····· 20
[3] 인문학 위기 속의 국어정보학의 현황과 전망
발표: 최정도(계명대) ····· 23
토론: 오규환(동덕여대) ····· 28
[4] 언어 변화와 언어 공동체와 역사 코퍼스
발표: 김현주(공주교대) ····· 29
토론: 허인영(고려대) ····· 33

▌제 2 분과: 대학 교육의 위기와 고전문학의 변화 방향

[1] 고전시가 위기의 진단과 문제 해결의 좌표 - 관계성의 복원과 이해의 지평을 중심으로
발표: 최홍원(상명대) ····· 41
토론: 김승우(이화여대) ····· 50
[2] 대학 고전서사 교육의 목적과 방법 재고
발표: 엄태웅(고려대) ····· 53
토론: 정제호(한국교통대) ····· 57
[3] 대학 교양 한문의 당면 문제와 개선 방안에 관하여
발표: 이승용(단국대) ····· 59
토론: 김종민(성균관대) ····· 63
[4] 강의실 밖으로 나온 구비문학 강의 설계와 실천 방안
발표: 김경희(가천대) ····· 65
토론: 서유석(경상대) ····· 69

▌제 3 분과: 대학 교육의 위기와 현대문학의 변화 방향

[1] 디지털 네이티브와 새로운 시적 감각 - 문학의 변화에 대응하는 문학 교육

발표: 김지윤(숙명여대) ····· 73

토론: 윤호경(이화여대) ····· 80

[2] 신자유주의시대의 웹툰과 소녀들의 서바이벌:
<피라미드 게임>, <도플갱어의 게임>을 중심으로

발표: 전지니(한경대) ····· 83

토론: 문선영(한국공학대) ····· 88

[3] 1960 년대 '문학과 현실' 담론의 전개와 비평 장의 변동

발표: 안서현(서울대) ····· 91

토론: 허선애(KAIST) ····· 95

[4] 디지털인문학의 과제와 교육 모델로의 활용 가능성 탐색

발표: 박미란(성공회대) ····· 97

토론: 유연주(서울대) ····· 102

▌제 4 분과: 대학 교육의 위기와 어문교육의 변화 방향

[1] 대학교육의 위기와 국어교육의 역할

발표: 남가영(서울대) ····· 103

토론: 주세형(서강대) ····· 109

[2] 교양글쓰기 수업 내 어문규범 교육의 위상

발표: 김남미(홍익대) ····· 111

토론: 최소영(한국교육과정평가원) ····· 115

[3] 유학생의 대학 생활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발표: 이수미(성균관대) ····· 117

토론: 강남욱(경인교대) ····· 120

【 2 부 】: 대학 교육의 위기와 국어국문학의 변화 방향

[1] 국어학 연구 성과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소고

발표: 주지연(영남대) ····· 125

[2] 고전문학 교육의 현황과 변화 방향

발표: 이정원(서강대) ····· 131

[3] 위기 속의 전환: 포스트휴먼 (인)문학과 SF 의 사변적 상상력

발표: 노대원(제주대) ····· 143

[4] 교원양성기관 국문학 교육의 성찰과 새로운 구도 모색

발표: 류수열(한양대) ····· 147

제1분과

대학 교육의 위기와 국어학의 변화 방향

한국어 지시화행의 불손 연구

김강희(부산외국어대학교)

1. 들어가며

언어행위 이전에 사고(思考)하는 행위가 있다. 그러나 사고의 과정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발화된 언어를 통해 발화자의 사고(思考) 및 의도(意圖)를 짐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발화된 언어는 개념적으로 구성된 문장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용된 실재'이기 때문에, 문장 이상의 단위인 담화 차원에서 고찰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시'라는 언어행위는 실제 사용되는 의사소통 담화 안에서 명령형 종결어미를 중심으로 개념화되는 '명령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다양한 사용 양상을 드러낸다.

뿐만 아니라 지시화행은 청자에게 어떠한 행위를 실행하게 하는 작위의 강제성을 지니기 때문에 청자의 체면(face)[1]을 손상시킬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화행이다. 따라서 협력적 의도를 지니는 화자는 청자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지시화행을 실현하고자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유표적인 명령형보다는 의문형 등 완곡한 용법의 형태들을 선택(choice of grammar)하는 경향성을 보이기도 한다.[2] Brown & Levinson(1987)에서는 이렇게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언어를 통해 '사회적 관계성을 드러내는 장치'를 '공손(politeness)'으로 정의한 바 있는데, '청자로 하여금 미래행위를 수행할 것'을 명제 내용으로 삼는 지시화행에서는 '공손'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사용'의 담화적 기제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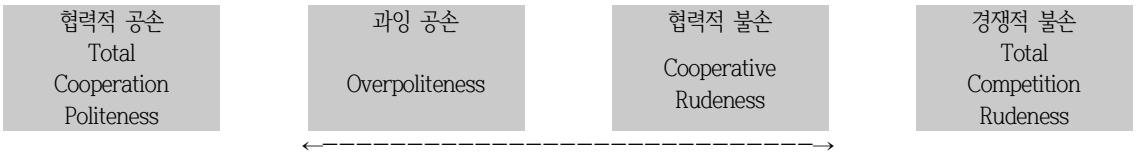
한편, Culpeper(1996), Kienpointner(1997), Eelen(2001), Bousfield(2008) 등에서는 기존의 논의들이 '공손'을 기술하는 데에 치우쳤을 뿐만 아니라 공손과 불손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한 나머지 '불손'의 개념과 사용 양상에 있어서는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러한 경향성은 지시화행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지시화행의 담화적 장면을 중심으로 지시화행과 불손의 상관성을 검증할 수 있는 인식 조사를 설계하고 이러한 접근의 연구가 대학 교육의 위기와 국어국문학의 변화 방향에 있어 시사하는 바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2. 불손이론과 지시화행

언어학적 관점에서 공손(politeness)을 '담화(텍스트) 내에서 대립을 최소화하는 도구(Lakoff 1979)'이자 '사회적 관계성을 드러내는 장치(Brown & Levinson 1987)'라고 정의할 때, 불손(impoliteness)은 상대적으로 공손(politeness)에 대한 반의적 개념 혹은 하위적 개념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Kienpointner(1997) 등에서는 '불손'이 '공손'과의 연속선상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며 아래 <그림 1>과 같이 공손과 불손의 연속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3]

---

1) 체면(face)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주장하고 싶어 하는 공개적인 자기 이미지(Brown and Levinson 1987:61)'을 의미함.
2) Leech(1983)에서도 공손이란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기능이며 이는 화행의 간접성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3) 연속체 그림은 필자가 변형하여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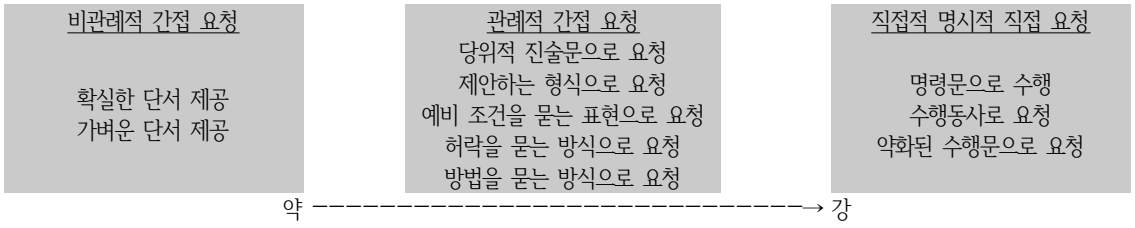
<그림 1> 공손과 불손의 연속체(Kienpointner 1997:258)

이때 ‘협력적 공손’은 화자가 청자와 완전히 협력적으로 대화에 임하는 관계를 뜻하고, ‘과잉 공손’은 화자가 이익이나 목적을 염두에 두고 맥락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의 공손을 보이는 경우이며, ‘협력적 불손’은 화자가 사무적으로 꼭 해야 하는 말만을 하여 불손하지는 않으나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게 하는 것을 가리키고, ‘경쟁적 불손’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청자에게 화자가 불손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김태나(2012)에서는 한국어에서 불손을 발생하게 하는 기제를 ‘부정적 상황 고수’, ‘기대 불일치’, ‘역할 미수행’, ‘감정의 한계 침해’, ‘의도적 무례’ 등으로 제시하였으며, ‘무례(impoliteness)’와 ‘불손(rudeness)’를 아래 <그림 2>와 같이 구분하고자 하였다. ‘무례’가 관계와 상관없이 사용될 수 있는 ‘공손성 없음’이라면, ‘불손’은 한국사회에서 지위 ‘화<청’의 관계인 경우와 지위 ‘화=청’인 경우에만 나타날 수 있는 ‘의도적 무례’로 정의하였다.

<그림 2> 한국어 공손과 불손의 연속체(김태나 2012)

한국어에서 지시화행에 대한 연구는 주로 지시화행의 공손 전략의 관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정민주(2003), 장경희(2005), 김지혜(2013) 등에서는 대표적으로 정민주(2003)에서는 Blum-Kulka(1984)의 요청 전략을 한국어에 적용하여 아래 <그림 3>과 같은 전략을 유형화하고, 요청의 강도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요청의 직접성과 공손성의 반비례 관계를 기술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지시화행의 사용에 있어 화자가 고려하는 공손 및 불손의 담화 기제에 대해서는 구체화된 바가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화행이 화자의 의도를 중심으로 삼기에 청자가 인식하는 체면 위협의 정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3> 한국어 요청 전략(정민주 2003)

3. 지시화행의 불손에 대한 접근

본 연구에서는 지시화행의 불손에 대한 접근이 내용학과 방법론의 측면에서 어떻게 이루어

질 수 있는지를 다루고, 이러한 접근이 대학 교육에서 시사할 수 있는 바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3.1. 의사소통으로서의 문법

‘무엇이 한국어 명령문인가?’라는 질문은 화청자 사이에 고려되는 관계, 즉 ‘공손(politeness)’의 기제를 분석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으로서의 문법론에서는 ‘무엇이 지시화행인가? 그리고 화자는 어떠한 담화적 요인에 의하여 지시화행을 수반하는 형태를 선택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지시의 언어행위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공손과 불손을 고려한 논의를 풀어갈 수 있다.[4)]

특히 모어 화자와 달리 한국 언어문화에 대한 직관이 부족한 제2언어 학습자의 경우에는 지시의 뜻을 수반하는 문법 형태들을 사용함에 있어 공손을 고려한 사용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5)] 즉 문법적으로는 비문이 아니지만 화용적으로 부자연스럽거나 부적절한 발화를 산출하는 것을 화용적 실패(pragmatic failure)[6)]라고 하는데, 이를 고려하는 의사소통으로서의 문법 연구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발화 연속체, 즉 실제 발화된 언어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사용으로서의 문법을 탐구할 수 있는 내용학적 기반을 제시할 수 있다.

<표 1> 지시-거절화행의 연속체 구조

시작 무브		부정적 반응 무브		피드백 무브	
내가 이 병원에서 촬영하고 있더라도 모른 척 해달라고.	지시	잘 됐네. 이번 참에 니가 누군지 다 말하고 그만두게 해야지.	거절	엄마!	이의 제기

3.2. 설문조사와 통계 검정

지시화행의 불손 기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체면위협행위(FTA)의 인식 주체인 청자의 인식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강현화·홍혜란(2010:406)에서는 ‘모국어 화자의 직관력 조사’로서 제한된 설문 중심의 ‘담화 완성 설문(discourse completion test)’ 방식을 발전한 ‘담화 적절성 인식 조사’를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방식의 설문조사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청자의 인식을 개방적 문항을 두고 조사하기 때문에 공손 및 불손에 대한 인식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지시화행 불손 기제에 대한 담화 적절성 인식 조사의 항목은 아래 <표 2>와 같다.

---

4) Yule(1996)에 따르면 ‘발화자 의미(speaker meaning)는 문장 의미(sentence meaning)를 넘어서는 것으로, 맥락(context)을 고려할 때에만 비로소 해석될 수 있다.(Celce-Murica, M. & Olshtain, E. 2000:20 재인용, 번역은 필자.)

5) 이해영 외(2018:4)에서도 유사한 용례를 통해 문법 사용의 실패가 비단 형태·통사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담화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6) Thomas(1983:4)에서는 문법은 규범적 규칙에 따라서 판단되므로 잘못된 규칙의 사용이 발생할 때 문법적 오류라는 용어의 사용이 적절할 수 있으나, 화용 능력은 범주적 규칙성보다는 수용가능성이나 적절성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잘못된 사용에 있어 오류라는 표현보다 실패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보았다(이해영 2018:93 재인용).

<표 2> 지시화행의 불손 분석 도구

언어적 불손	ㄱ. 화계에 맞지 않는 문법 형태를 사용해서 불쾌감이 느껴진다.
	ㄴ. 말투, 또는 뉘앙스가 부적절해서 불쾌감이 느껴진다.
상황적 불손	ㄷ. 관계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서 불쾌감이 느껴진다.
	ㄹ. 갑을의 위력 관계가 명시적이어서 불쾌감이 느껴진다.
명제의 불손	ㅁ. 사적이거나 부당한 내용의 일을 시켜서 불쾌감이 느껴진다.
	ㅂ. 거절하기 어려운 종류의 일을 시켜서 불쾌감이 느껴진다.
불손 없음	ㅅ. 전혀 불쾌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러한 불손 기제 분석 도구를 활용하고 검증하는 방식에는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는 방법이 있다. 일원배치 분산 분석은 종속 변수가 수치형 자료이고, 독립 변수가 명목형 자료(한국어 모어 화자, 학습자 등)일 때 사용하는 검증법으로 인식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할 때 사용되기 좋은 방법론이다. 한편, 교차분석 방법은 변수가 모두 명목형 자료(문항별 선택지, 성별, 국적, 한국어 점수 등)일 때 사용하는 방법론으로, 각각의 불손 기제에 따라 제시된 상황을 왜 불손하게 느끼는지에 대한 것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이로 말미암아 유형화할 수 있는 지시화행의 공손과 불손에 따른 내용은 아래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 지시화행의 공손과 불손

공손		불손		
협력적 공손	업무적 공손	과잉공손/무늬만 공손	협력적 불손	경쟁적 불손
청자의 체면을 고려하여 협력적으로 지시화행을 사용	사용역을 고려한 지시화행을 사용	화계에 따른 종결어미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지 않음. 공손의 표지를 과장되게 사용하고 있으나 의도는 그렇지 않음.	유대감 및 화자의 의도가 약화되는 방식으로 지시화행을 사용	의도적으로 청자의 체면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지시화행을 사용
ㄱ.의문형 종결어미의 사용 ㄴ.청유형 종결어미의 사용 ㄷ. ‘-어 주-’ 등의 약화 표지 사용	ㄹ.격식체 명령형 종결어미의 사용	ㅁ.수행동사의 사용 ㅂ.허락 구하기 형식의 사용	ㅅ.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형태의 사용	ㅇ. 조건문을 활용한 지시화행의 사용 ㅈ. 인용형을 활용한 지시화행의 사용

4. 나가며

이처럼 지시화행의 불손 기제를 담화 적절성 인식 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이의 유의미성을 통계 검정으로써 입증하는 방식은 데이터 중심의 귀납적 연구 방법론이 지니는 한계를 보완하고 나아가 언어 사용자의 의도, 즉 사고의 일면을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된 언어’의 입체적인 면면을 기술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산학적 역량과 대학 교과가 연계되기를 요구받는 오늘날의 대학 교육 현장에서 언어 사용자를 중심에 놓는, 의사소통 중심의 문법, 즉 담화문법의 이론과 방법론의 제시는 문법과 의미화용을 전공하는 학습자들에게 실제적인 언어 처리에 대한 감각과 역량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진로적인 측면에서도 하나의 구체적인 비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강현화·홍혜란(2010), 한국어 종결표현의 화행 기능과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말뭉치 분석과 담화 적절성 인식 조사를 토대로, 『Foreign Languages Education』17(2), 한국외국어교육학회, 405-437쪽.

김강희(2019), 한국어 지시화행의 담화문법 연구-의미, 형태, 사용에 대한 맥락 분석적 접근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태나(2012), 「한국어에서 무례(無禮)와 불손(不遜)의 경계에 관한 연구 -무례와 불손의 구분 기제들을 중심으로-」. 『어문론총』 56, 9~40쪽.

이성범(2015), 『언어적 무례함에 대한 실험화용적 연구』. 서강대학교출판부.

장경희(2005), 국어 지시 화행의 유형과 방법 및 지시 강도, 『텍스트언어학』19, 한국텍스트언어학회, 185-208쪽.

장경희(2008), 지시 화행에 나타난 유아의 응대 방법, 『국어교육학연구』33, 국어교육학회, 597-628쪽.

정민주(2003), 한국어 요청 화행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Austin, J. L.(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Blum-Kulka, S., House, J., & Kasper, G.(1989), Cross-cultural and situation variant in requesting behavior, *Cross-cultural pragmatics: request and apology.* Norwood, NJ: Albex.

Blum-kulka, Shoshana; Olshtain, Elite.(1984), Requests and apologies: A cross-cultural study of speech act realization patterns: CCSARP, *Applied Linguistics*, 5(3), 196-213.

Bousfield, Derek.(2008), *Impoliteness in Interaction*, John Benjamins, Amsterdam.

Brown, P. & S. Levinseon.(1987),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Politeness phenomena, In E. Goody (ed.), *Questions and Politeness: Strategies in Social Interaction*, 56-28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ulpeper, Jonathan.(1996), Towards an anatomy if impoliteness, *Journal of Pragmatics,* 25, 349-367.

Culpepper, Jonathan, Bousfield, Derek, Wichmann, Anne.(2003), Impoliteness revisited: with special reference to dynamic and prosodic aspects, *Journal of Pragmatics,* 35, 1545-1579.

Eelen, G.(2001), *A Critique of Politeness Theories*, Manchester: St. Jerome.

Kienpointer, M.(1997), Varieties of rudeness: types and functions of impolite utterances, *Functions of Language,* 4(2), 251-287.

Lakoff, R.(1973), The logic of politeness, or minding your p's and q's, *Papers from the Nineth Regional Meeting of Chicago Linguistic Society*, 292-305.

Leech, G. N.(1983), *Principles of pragmatics,* London, England: Longman.

Searle, J.(1969), *Speech ac,*. London,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한국어 지시화행의 불손 연구'에 대한 토론문

이수연(국민대학교)

이 발표문은 기존의 지시화행 연구가 '공손성'과의 관계를 기술하는 데에 치우쳤다는 점과 공손과 불손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시화행의 담화적 장면을 중심으로 지시화행과 불손의 상관성을 검증할 수 있는 인식 조사를 설계하여 한국어 지시화행의 불손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발표문의 본문은 크게 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장에서는 불손이론과 지시화행에 대해, 3장에서는 지시화행의 불손에 대해 접근하였습니다. 우선, 2장에서는 불손이 공손과의 연속체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세 편의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Kienpointner(1997)에서는 협력적 공손과 과잉 공손, 협력적 불손과 경쟁적 불손이 연속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았는데, 김태나(2012)에서는 한국어의 불손을 '공손', '무례', '불손'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 발표문에서 정의하는 불손의 정의와 개념에 대한 설명이 추가된다면 '불손'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발표문에서는 담화적 장면을 중심으로 지시화행의 불손을 연구하고자 하였는데, 실제 담화적에서 공손과 무례, 불손이 어떻게 분석될 수 있을지 흥미로운 예문들이 기대됩니다.

3장에서는 지시화행의 불손에 대해 논의하며 내용학적 기반으로 발화 연속체를 제시하였습니다. 실제 발화된 언어 자료에서의 네 개의 발화를 대상으로 '무브'를 시작 무브, 부정적 반응 무브, 피드백 무브로 나누고, 지시, 거절, 이의 제기 순으로 화행의 연속체를 분석하였는데 전술하였던 '지시화행의 담화적 장면'이 화행의 연속체 분석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장의 주요 내용 중 또 다른 한 가지는 담화 적절성 인식 조사를 통해 지시화행의 공손과 불손에 대해 논의하는 것입니다. 실제 발표에서 제시되겠지만 담화 적절성 인식 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이 논의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불손을 '언어적 불손', '상황적 불손', '명제의 불손'이라는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이러한 구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갑을의 위력 관계의 명시'나 '말투 또는 뉘앙스가 부적절한 경우'를 통해 '관계가 훼손될 가능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사적이거나 부당한 내용의 일'과 '거절하기 어려운 종류의 일'은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요?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은행에 못 가겠는데, 대신 관리비 좀 내 줄래?"라는 상사의 지시는 사적이기도 하고, 거절하기 어려운 종류의 일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실제 사용된 예문의 분석에 있어서 연구자마다 직관이 다른 경우가 존재할 텐데 이러한 경우 불손 분속 도구가 어떠한 효용성을 가지게 되는지요?

마지막으로 이 발표문에서는 인식 조사를 통한 결과를 '협력적 공손, 업무적 공손, 과잉공손/무늬만 공손, 협력적 불손, 경쟁적 불손'으로 나누어 유형화하고 있습니다. Kienpointner(1997)의 논의에서 '업무적 공손'을 추가하고 '과잉공손'에 '무늬만 공손'이라는 용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업무적 공손이 추가된 이유와 '무늬만 공손'이 의미하는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 유형 분류에 대한 설명과 유형의 다양한 예가 추가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본 토론문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내용이 발표문의 행간에 놓여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발표와 토론이라는 담화를 통해 한국어 지시화행의 불손이라는 흥미로운 주제의 연구가 완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운 감쇄 현상을 통해 본 음운론 연구

하영우(전주대)

1. 서론

- 음운론은 말소리와 관련된 제반 체계와 현상을 탐구하는 분야이므로 말소리에 관한 충분한 설명력을 가져야 함. 한국어 말소리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위해 국어 음운론은 20세기 초기 이래 음운 체계의 설정과 주요 음운 현상의 목록, 음운 규칙 설정 등에 대한 수정과 재정립을 지속해 왔음(이진호 2009).
- 국어 음운론은 일부 견해차를 제외하면 음운 체계와 주요 음운 현상의 목록, 규칙 설정 등에 있어 상당히 공고한 교집합을 이룩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무주의 맹시(inattentional blindness)처럼 빈번하게 나타나는 말소리 현상임에도 표준형(standard form)이 아니거나 기존에 설정된 주요 음운 현상의 목록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현상적 현저상과 별개로 관찰하지 않거나 설명하지 않는 부분이 많음.
- 이는 기존의 음운론 연구가 대개 추상주의 모델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구어에서 나타나는 형식 변이의 다양성이나 현저성은 일시적이고 부정칙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Johnson 2004, Ernestus 2014). 덧붙여 이와 같은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구어 말뭉치가 제한된 연구자들에게만 공유되었던 것 역시 영향을 주었다고 봄.
- NIA의 AI HUB나 국립국어원의 모두의 말뭉치처럼 공개형 구어 자료가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음운론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그간 주목하지 않았던 현저성 높은 말소리 관련 현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본고는 구어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말소리 현상 중 그간 음운론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음운 감쇄'를 대상으로 개념과 유형, 기제, 연구 방법론, 의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이는 하영우(2018a)를 기본으로 제반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제시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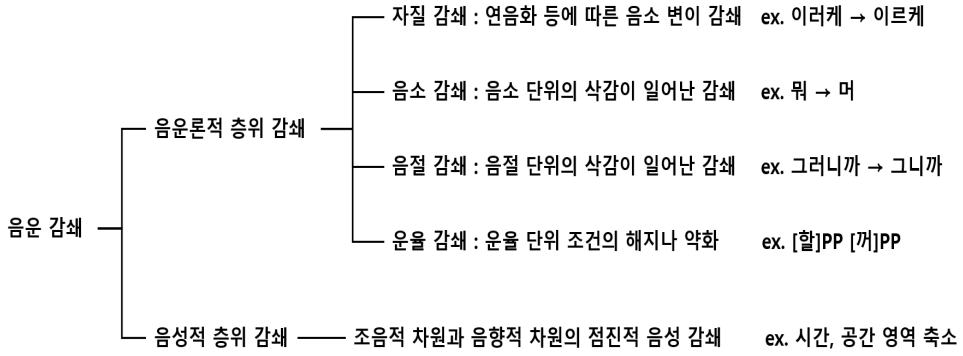
2. 음운 감쇄 현상과 음운론 연구

2.1. 음운 감쇄의 개념과 유형

- 음운 감쇄는 '형식의 점진적인 삭감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때 '형식'은 말소리의 두 모습에 따라 '음성적 차원'과 '음운론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하영우(2018a)는 감쇄의 유형을 '음운론적 층위 감쇄'와 '음향적 층위 감쇄'로 대분하였음. '음운론적 층위 감쇄'는 감쇄의 정도성에 따라 '자질 감쇄, 음소 감쇄, 음절 감쇄'로 구분함.
- 그런데 '음운론적 층위 감쇄'는 자질, 음소, 음절 단위 외에 통사 구조를 중심으로 한 운율 구조적 조건 해지 같은 운율 단위에서도 나타남. 예를 들어 관형사형어미 {-을} 뒤 경음화 현상은 음운구 이상의 운율 단위가 선후행 요소 사이에 놓이면 일어나지 않음(신지영 2014). 그러나 메신저 등에서 흔히 오표기되는 '할꺼'나 '먹을꺼'처럼 선후행 요소가 빈번히 결합하는 구성은 선후행 요소 사이에 '할 / 거[꺼]는 없지만'이나 '먹을 / 거[꺼]는 없지만'처럼 음운구 경계가 놓이더라도 관형사형어미 {-을} 뒤 경음화가 적용됨. 이는 운율 구조적 조건이 삭감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종의 음운론적 감쇄로 처리할 수 있음. 따라서 '음운론적 층위 감쇄'는 '자질, 음소, 음절' 외에 통사 구조적 조건과 관계된 '운율 구조 감쇄'를 추

가할 수 있음.

- 한편 ‘음향적 층위 감쇄’는 체계성이나 범위에 있어 용어가 부적정함. 말소리는 ‘음운’과 ‘음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향적 측면’은 음성이 가진 특성 중 일부이므로 ‘음성적 층위의 감쇄’로 정정해야 함. 또한 음성적 층위의 감쇄는 시간이나 공간 구조의 축소뿐만 아니라 조음 제스처의 점진적 약화도 포함하고 있어야 함. 조음 과정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음향 신호로 잡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 조음적 감쇄를 포착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연구자의 한계상 상론할 수 없음. 다만 3D/4D 초음파를 이용한 조음 음성학적 연구(Hwang et al. 2019, 황영 2021)를 통해 조음 제스처의 감쇄에 대한 접근도 가능하다고 봄.
- 음운 감쇄의 유형 분류 수정안(하영우 2018a 참조)



2.2. 음운 감쇄의 기제

- 음운 감쇄는 빈도나 예측 가능성, 담화 내 반복 여부, 사용역, 문법화, 이웃 밀도, 문법성, 운율 구조적 조건 등은 물론 성별이나 세대, 지역 등도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음.
- 한국어 음운 감쇄 연구의 몇 사례를 중심으로 음운 감쇄의 기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① 담화표지화 같은 문법화는 음운 감쇄를 동반하기도 함
- 접속부사의 음운 감쇄는 접속 기능의 변화와 관계되어 있으며, 접속 기능이 느슨해지는 정도에 따라 감쇄의 정도성도 비례하는 경향을 보임
- 부사 기원 담화 표지 역시 일반 부사에 비해 음운 감쇄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남.

② 기능어와 내용어, 동일 구조의 문법성 차이는 음운 감쇄의 기제가 되기도 함
- 보조사 {요}는 내용어의 ‘요’와 달리 음성적 감쇄 양상이 빈번히 관찰됨
- ‘X하고’ 구성에서 ‘하’의 /ㅎ/ 탈락은 ‘하고’가 ‘-하-’ 파생에 의한 활용형일 때보다 조사 {하고}일 때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 즉, 동일한 운율 구조적 조건과 음운론적 구조를 가질 경우 감쇄는 문법성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임.

③ 빈도는 요인이라기보다는 음운 감쇄의 결과일 수 있음
- 음성과 음운 간의 관계를 상정한 제반 이론에서는 빈도가 음운 감쇄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으나 빈도가 감쇄와 갖는 관계는 매우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함.
- ‘ㄱ’ 탈락은 고빈도 어휘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이들은 대개 문법화를 거치는 유형들이었음. 또한 일반 부사 역시 빈도가 높더라도 담화표지화 등의 기능 변화에 관계되어 있지 않으면 음운 감쇄가 낮게 나타남. 담화 표지는 구어의 특성상 빈번한 사용을 보일 수 있는데, 이것이 고빈도라는 현상으로 나타났을 수 있음.

④ 음운 감쇄는 운율 구조적 요건 내지 운율 단위 조건과 관계되어 있음
- 어미의 모음 상승은 음성적으로 약화되기 쉬운 발화 말 위치에서 더 빈번하게 일어남.

‣ 운율적 요인이 개입되지 않으면 내용어와 기능어의 음성적 실현 양상에 차이가 없을 수 있음. 음운구 내의 어두 강화 효과와 비어두 위치 약화 효과는 시간 구조와 공간 구조 상에서 나타남.

⑤ 발화 스타일에 따른 음성적 층위의 감쇄

‣ 보통 발화와 명료한 발화의 모음은 시간 영역과 공간 영역에서 차이를 보임.

2.3. 음운 감쇄 현상의 방법론

- 음운 감쇄 현상은 분절적이라기보다는 조음 제스처 같은 음성적 차원에서부터 음소나 음절 감쇄 같은 음운론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점진성을 가지므로 가급적 다양한 유형의 토큰을 확보/관찰해야 함. 또한 음운 감쇄는 '그러니까 → 까'처럼 현상적 현저성과 별개로 연구자의 예측 범위를 넘어서기도 함. 따라서 음운 감쇄 연구는 단편적 사례가 아닌 일정 규모 이상의 구어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함.
- 음운 감쇄 연구가 일정 규모 이상의 구어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은 계량화가 전제되어 있음을 의미.
- 음운 감쇄 연구를 위한 구어 자료는 가급적 온전한 구어이어야 함. 물론 음운 감쇄 연구는 '메신저 말뭉치'처럼 구어적 문어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봄. 그러나 구어성이 매우 강하더라도 문어 자료는 시각 채널을 통한 텍스트 전달을 전제하므로 청각 채널을 이용하는 구어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음. 실제로 '메신저 말뭉치'에 나타난 감쇄 현상은 구어와 일부 유사하나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구어와는 다른 감쇄 방향을 보이기도 함(이향원·하영우 2021).
- 음운 감쇄가 구어 자료 기반의 계량적 연구를 전제한다면, 감쇄의 정도성 역시 수치화될 필요가 있음. 하영우(2018a)는 감쇄 정도를 수치화하기 위해 '$100-\sqrt{(\frac{b}{a}\times 100)\times(\frac{d}{c}\times 100)}$ /(a=원형의 총 음절수, b=대상형의 음절수, c=원형의 총 음소수, d=대상형의 음소수)'를 제안함. 그러나 자질/음소 단위와 음절 단위 감쇄는 형식의 재구조화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만큼 가중치를 달리 부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자질/음소 단위의 감쇄 역시 분절음의 유형과 감쇄의 정도성에 따라 세부 가중치를 제시해야 함.

2.4. 음운 감쇄 현상의 의의

- 음운 감쇄 연구는 음운론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의의가 있음. 음운론은 국어에서 나타나는 현저성 높은 말소리 관련 현상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 또한 감쇄를 형식의 점진적 축소 과정으로 보았을 때, 축소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국어의 음운론적 과정과 제약을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되기도 함. 이는 일종의 음운론적 제약과 관계되기도 함.
- 음운 감쇄 현상은 언어 내적 요인 중 문법화 등을 포함한 기능의 변화와 유관하며, '이렇게 → 이케 → 케'처럼 감쇄 방향은 기능 구조의 변화 방향과 맞닿은 지점이 많음. 따라서 음운 감쇄 현상 연구는 문법론을 포함한 인접 영역의 연구에 기여하거나 활용될 수 있음.
- 음운 감쇄는 기존 음운 현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도 있음. 예를 들어 구어 자료에 나타난 분포 특성상 활용형의 모음조화 붕괴는 '양성모음 어미 → 음성모음 어미' 교체가 아닌 발화 말 위치에 있는 '-아X'형 어미가 운율 구조적 위치에 의해 음운론적 감쇄가 적용되어 '아 → 어'의 모음 상승이 적용된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음.

3. 결론(생략)

<참고문헌>

강연민(2009), “보조사 {요}의 음성 실현과 지각 양상,”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한별(2021), “19세기 대격 조사 ‘-을’은 왜 개음절 뒤에도 분포하였을까: 그리고 보조사 ‘-은’은 왜 그리하지 않았을까,” 국어학회 100, 203-242.

박보연(2005), “현대국어 음절축소형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인성(2015), “국어 담화표지의 기능과 운율,”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송인성(2017), “부사 기원 담화표지의 형태와 운율 특성,” 어문논집 79, 115-137.

송인성(2020), “현대국어 호출어 ‘이+보-’류의 발달과 사용 양상의 변화,” 민족문화연구 89, 539-561.

신우봉(2016), “20세기 전기 구어 자료에 나타난 모음상승 연구,” 어문논집 76, 233-261.

신지영(2014), “구어 연구와 운율: 소리를 담은 의미.통사론, 의미를 담은 음성학.음운론 연구를 위한 제언,” 한국어의미학 44, 119-139.

유희정(2015), “현대 국어 준말의 의미 분화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진호(2009), “국어 음운 교육 변천사,” 서울: 박이정.

이향원(2015), “현대 국어 어말 어미의 모음 상승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향원(2017), “발화 스타일에 따른 한국어 모음의 변이 연구,” 언어와 정보 사회 32, 185-207.

이향원(2021), “운율 단위 경계에 위치한 음운의 음성적 변이,”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향원·신지영(2018), “모음 상승 현상의 음성적 고찰: 어미 {-고}의 실현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81, 한국어학회, 267-297.

이향원·하영우(2021), “구어적 문어의 구어성에 관하여: 음운론적 측면을 중심으로,” 언어와 정보 사회 42, 121-148.

하영우(2015), “구어 자료에 나타난 접속부사의 기능·형태·운율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하영우(2016), “‘-더-’ 계열 어미의 감쇄 경향과 기제 - 형태소 분포 특징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57, 423-456.

하영우(2017), “수의적 /ㅎ/ 탈락의 경향성과 해석,” 겨레어문학 59, 197-226.

하영우(2018a), “한국어의 음운 감쇄 현상에 대한 연구,” 언어와 정보 사회 33, 315-344.

하영우(2018b), “수의적 /w/ 탈락의 양상과 해석,” 음성음운형태론연구 24, 69-91.

하영우(2020), “부사의 음운론적 감쇄 양상과 특징,” 민족문화연구 87, 365-385.

황영(2021), “한국인 미국영어 학습자들이 발화한 단어 말 영어 /ɹ/의 조음적 특징,” 음성음운형태론연구 27-2. 351-371.

현미희(2017), “현대 한국어의 수의적 /ㄱ/ 탈락 현상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Browman, C. P., & Goldstein, L.(1989), “Articulatory gestures as phonological units,” *Phonology 6*, 201-251.

Burdin, R. S., Turnbull, R., & Clopper, C. G.(2014), “Interactions among lexical and discourse characteristics in vowel production,” In Proceedings of Meetings on *Acoustics 168ASA (Vol. 22, No. 1, p. 060005). ASA.*

Bybee, Joan L.(2001), *Phonology and Language Use,*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Clopper, C. & Turnbull, R.(2018), “Exploring variation in phonetic reduction: Linguistic, social, and cognitive factors,” In Cangemi, F. and Clayards, M. et al. (eds),

Rethinking reductio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on Conditions, Mechanisms, and Domains for Phonetic Variation, Mouton De Gruyter.

Dalby, J.(1986), "Phonetic Structure of Fast Speech in American English,"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Ernestus, M.(2000), "Voice assimilation and segment reduction in casual Dutch, a corpus-based study of the phonology-phonetics interface", Utrecht: LOT.

Ernestus, M. & Baayen, R.H.(2011), "Corpora and Exemplars in Phonology," edited by John Goldsmith, Jason Riggle, and Alan Yu, *The Handbook of Phonological Theory(2nd)*, Oxford: Blackwell, 374-400.

Ernestus, M.(2014), "Acoustic reduction and the roles of abstraction and exemplars in speech processing," *Lingua* 142, 27-41.

Hanique, I & Ernestus, M.(2012), "The role of morphology in acoustic reduction," *Lingue e linguaggio* 11(2), 147-164.

Hwang, Young, Sherman Charles, and Steven M. Lulich(2019), "Articulatory characteristics and variation of Korean laterals," *Phonetics and Speech Sciences* 11-1, 19-27.

Johnson, K.(2004), "Massive reduction in conversational American English. In Spontaneous speech: Data and analysis," Proceedings of the 1st session of the 10th international symposium, 29-54.

Kohler, K,J.(1990), "Segmental reduction in connected speech in German: Phonological facts and phonetic explanations," In: Hardcastle, W,J,, Marchal, A, (Eds), *Speech production and speech modelling*, Kluwer Academic Publishers, Dordrecht, 21-33.

Torreira, F.(2011), "Speech reduction in spontaneous French and Spanish," PhD Thesis, Radboud University Nijmegen, Nijmegen.

「음운 감쇄 현상을 통해 본 음운론 연구」에 대한 토론문

김한별(서강대)

* 토론문의 형식은 발표문의 형식에 맞추어 간략히 작성하였음.
* 토론의 대상으로는 본고뿐만 아니라 ‘하영우(2018a)’도 삼았음.
* 밑줄은 모두 토론자가 추가한 것임.

1. ‘음운 감쇄’의 개념과 유형

1-1. ‘음운 감쇄’의 개념

① “형식의 점진적인 삭감 과정”이라는 정의에서 “삭감”의 개념은 무엇인가?

② 그동안 역사 음운론에서 널리 쓰인 ‘약화(lenition/weakening)’라는 개념과는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본고에서는 ‘운율 감쇄’를 “운율 단위 조건의 해지나 약화”라는 개념으로 규정함으로써 ‘약화’라는 용어도 사용함.)

【참고】 Bauer(2008: 611)는 ‘약화’에 대한 종래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그 개념을 “음성적으로 명시화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the failure to reach a phonetically specified target), 즉 조음상에서의 못 미침 혹은 미달성(articulatory undershoot or underachievement)”로 규정함.

→ 하영우(2018a: 323)에서 언급한 “조음 제스처의 축소 과정”과 유사해 보임.

1-1. ‘음운 감쇄’의 유형

① ‘자질 감쇄’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음소가 연음화되는 ‘자질 감쇄’는 고모음화나 전방음화, 동화처럼 자질 단위의 삭감을 통해 음소 a가 음소 a´으로 변용되는 유형이다”(하영우 2018a: 324)
- “Browman and Goldstein(1985, 1989)에서 제안한 용어에 따르면 자질 단위 감쇄는 조음 제스처의 감소로도 볼 수 있겠으나, ‘음소’, ‘음절’이라는 용어와 궤를 맞추기 위해 ‘자질 감쇄형’으로 명명한다.”(위 인용문에 대한 각주).

→ 여기서 “자질 단위의 삭감”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모음화나 전방음화, 동화” 등은 흔히 자질 변경 규칙으로 논의되는데, 그렇다면 특정 자질값의 변화(‘+’→‘-’ 또는 ‘-’→‘+’)를 뜻하는 것인가?

② ‘음운론적 층위 감쇄’와 ‘음성적 층위 감쇄’ 간의 구분은 타당한가? 음운론적 층위와 음성(학)적 층위의 구분이 ‘변별’ 혹은 ‘화자의 인식 여부’와 관련되는 것이라면, ‘음운론적 층위 감쇄’의 하위 범주인 ‘자질·음소·음절·운율 감쇄’가 ‘음성적 층위 감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함.

예 ‘이러케→이르케’(자질 감쇄)의 경우,

- /ㅓ/와 /ㅡ/가 변별되는 방언: 음운론적 층위 감쇄.
- /ㅓ/와 /ㅡ/가 변별되지 않는 방언: 음성적 층위 감쇄.

→ ‘음운론적 층위 감쇄’와 ‘음성적 층위 감쇄’ 간의 구분 대신 차라리 ‘조음적 감쇄’와 ‘음향적 감쇄’와 같이 대분(大分)해 보는 것은 어떠한가?

2. 음운 감쇄 현상 연구의 의의

음운론의 저변을 확대하고 문법화에 대해서도 시사해 주는 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함. 다만, 다음 두 가지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해 보임.

2-1. 음운론적 제약 관련

- "감쇄를 형식의 점진적 축소 과정으로 보았을 때, 축소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국어의 음운론적 과정과 제약을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되기도 함."(본고 2.4.)
- "즉, 모음의 감쇄는 '고저 위치'가 중심이 되며 감쇄의 방향은 주로 개구도 감소로 나타난다. 또한 모음 감쇄가 자음 감쇄보다는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상대적으로 제약이 강한 모음의 전후설성 감쇄나 원순성 감쇄보다는 음절 내 자음의 감쇄가 더 빈번하다. 이처럼 감쇄 현상은 한국어의 음운 약화 현상의 자연성과 음운론적 제약을 보여준다."(하영우 2018a: 320)

→ 규칙 기반 이론에서는 일반적으로 '음소 배열 제약, 음절 구조 제약, 음절 연결(=배열) 제약' 등을 상정하고, 제약 기반 이론에서는 매우 다양한 제약들을 상정하는데, 위 인용문 속 현상과 관련된 "음운론적 제약"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혹 특정 음운 현상의 일정한 '방향성' 정도를 의미하는 것인가?

2-2. 새로운 관점 관련

- "구어 자료에 나타난 분포 특성상 활용형의 모음조화 붕괴는 '양성모음 어미 → 음성모음 어미' 교체가 아닌 발화 말 위치에 있는 '-아X'형 어미가 운율 구조적 위치에 의해 음운론적 감쇄가 적용되어 '아 → 어'의 모음 상승이 적용된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음."

→ 모음 조화 붕괴의 원인을 어미에서만 찾는 것은 모음 조화의 통시적 변화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단순한 설명이 될 위험이 있음. 아래 표의 Ⅰ, Ⅱ, Ⅲ이 만일 'Ⅰ>Ⅱ>Ⅲ'과 같은 역사적 변천 과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모음 조화의 형성과 붕괴는 어간과 어미 모음 간의 일정한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李基文(1972: 203)에서 모음 조화의 붕괴를 촉진한 두 변화로 'ㆍ>ㅡ'와 'ㅗ>ㅜ' 변화를 꼽았다는 사실도 참고할 만함.[1)]

Ⅰ		Ⅱ		Ⅲ	
현대 국어 (동해안 방언)		중세 국어		현대 국어 (중부 방언)	
어간 모음	어미	어간 모음	어미	어간 모음	어미
전체	-아X	ㅗ, ㅏ, ㆍ	-아X	ㅗ	-아X
				ㅏ	-아X~-어X
		ㅜ, ㅓ, ㅡ	-어X	그 외	-어X

1) 李基文(1972), ≪國語史概說≫, 改訂版, 塔出版社.

인문학 위기 속의 국어정보학의 현황과 전망

최정도(계명대학교)

1. 들어가기

○ 학령 인구의 급속한 감소에 의한 대학 교육의 위기가 해마다 증가하는 현실
○ 이러한 대학 교육과 인문학의 위기 속에서 국어정보학 분야를 중심으로 현 상황을 진단하고 돌파구를 모색해 보고자 함.

2. 국어정보학의 오늘 - 문제점 중심 -

○ 양달
-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자연언어처리와 국어정보학 등의 분야가 활발해지는 듯 보임.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국립국어원 등지에서의 다양한 대규모 말뭉치 구축이 토대
- 이런 추세에 편승하여 대학원의 연구 역량과 그 성과는 해마다 향상되는 것으로 보임.

○ 응달
- 다만, 이러한 발전 현상이 국어국문학계(통칭)에도 이어지고 있는지는 의문
- 대학원의 연구 역량, 성과는 향상되고 있으나, 이것이 학부, 대학의 발전과 연계되는지
- 대학의 인재 양성과 연계되고 있는지

2.1. 수요자 관점

○ 익혀서 어디에 활용?(인문학 전체의 해묵은 문제)
→ 대상 분야: 국어국문학(한국어문학 등을 통칭), 언어학, 한국어교육학, 국어교육학
→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향[1)2)]
→ 한국어 연구를 위한 목적이라면 국어정보학이 기여하는 바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로 보임. 하지만 그 이외의 목적 달성은 다소 유보적임.
※ 학부 vs. 대학원: 학부생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

○ (인문학 분야에서) '연구자'를 양성할 것인가? vs. '기술자'를 양성할 것인가?
→ 연구자 양성 목적이라면 국어정보학은 그것이 독자적인 학문이든 방법론이든 가치가 있음.
→ 다만 기술자 양성이 목적이라면 인문학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생각됨.
⇒ 이견이 있겠으나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커리큘럼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인문학보다는 공학(전산학)에서 담당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그렇지 않다면 개인의 역량에 맡겨야 함.).
→ **국어정보학 연구자라고 하더라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가?**

---
1) 발표자의 개인 경험임을 밝힘.
2) 이것은 국어정보학의 기본적인 특성과 대학의 커리큘럼과도 관련이 있음.

1. NLP를 위한 머신러닝(296/67), 2. 의미분석(어휘, 문장, 텍스트)(279/70), 3. 대화분석(250/62), 4. 기계번역(245/68), 5. 정보추출(227/52), 6. NLP 응용시스템(213/48), 7. 자연어 생성(198/49), 8. 감성분석(161/33), 9. 질의응답(150/33), 10. 언어자원 및 평가(120/42), 11. 문서요약(115/30), 12. 소셜미디어 분석(108/23), 13. NLP 모델의 해석 및 분석(95/29), 14. 정보검색(86/20), 15. 음성 및 다매체 처리(62/16), 16. 인지모델 및 심리언어학(62/13), 17. 구문분석(60/16), 18. 담화분석(56/10), 19. 음운론·형태론·단어 분절(49/15), 20. NLP 윤리(44/13), 21. NLP 형식주의 이론(12/5)

<강병규·박민준(2022:198), “ACL 2020에 투고된 논문의 주제별 분포”>

○ 패러다임 개척자 vs. 자료 구축자

→ 자연언어처리 전문가들처럼 인공지능 연구에 뛰어들 수 있느냐의 문제. 그렇지 않으면 국어정보학(인문학) 전공자들이 공학(전산학)계의 용역원으로만 기여할 수밖에 없음.

→ 현재 대학(인문학)의 (인공지능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대한 토대 마련 여부 (커리큘럼, 전문가 등등)

2.2. 교육 과정의 상시 설치 여부

○ 국어정보학 관련 과정의 상시 설치 여부
(대상 분야: 국어국문학(한국어문학 등을 통칭), 언어학, 한국어교육학, 국어교육학)

→ 대학의 학부 과정에서 국어정보학(통칭) 전공 수업을 설치하는 경우라 드묾.[3)]

⇒ 연구가 목적인 대학원에서는 과정이 개설되나, 대학원 기피가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학부 전공 과목 개설은 요원한 것으로 보임.

⇒ 학부에서 전공으로 접하지 못한다면 교양이나 특강으로 접하거나(혹은 관련 컴퓨터공학과 등에서 수강 가능), 대학원에서 전공해야 함.

→ 전공 수업이 개설되더라도 인재 양성을 위한 과정은 아님.

⇒ 학부 전 과정에서도 강좌가 2개 이상을 넘어서는 경우는 드묾.

○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의 편차

→ 전국적으로 수업이 개설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국어정보학이 교양이나 전공 수업으로 운영되는 학교는 일부 학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4)]

→ 각 대학 자체의 (강의) 전문가 부족 현상과 국어정보학의 필요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2.3. 기타

○ 수학에 약한 인문학도

3) 발표자가 (공개가 된) 대학의 수강 편람을 찾아본 경험에 의한 것임. 수강 편람을 공개하는 학교가 많지 않아 객관적으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4) 최근 대학마다 융복합 과정이 설치되는 상황에서는 교양 과정으로 프로그래밍 수업 등이 개설되어 있음. 다만, 교양 과정이므로 ‘국어정보학’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

→ 인문학도들이 프로그래밍 수업 등 수학적 개념이 필요한 분야를 기피하는 현상
→ **인문학도들이 쉽게 다가가고 접할 수 있는 환경의 부족(대학원, 학부 포함)**

○ 경험의 토대 마련 여부
→ 관련 수업을 수강하는 것만으로는 국어정보학에 접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주로 프로젝트 중심으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발생

3. 국어정보학의 내일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문학이 인류와 사회와, 개인의 행복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면 현 상황을 타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다만, 과거의 방식과는 달리 '기술' 함양과 다양한 '자료'에 접맥하려는 시도가 필요함.

3.1. '기술'하는 인문학도의 양성

○ '사유'하는 인문학자 + **'기술'하는 인문학자**
→ 컴퓨터공학이나 전산학 전공자만큼의 기술자를 양성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됨.
→ 언어 자료(말뭉치)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익히면서, 자연히 컴퓨터 기술도 습득하게 됨.
→ '1인 크리에이터/1인 유튜버'에 착안한다면 기본적(기초적)인 '기술' 습득으로도 국어정보학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사회에 나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프로그래밍, 텍스트 에디터, 엑셀, 통계 도구 등
⇒ (2)의 관점에서 본다면 학부 과정 안에서 무리(부담)없이 '기술' 전수와 습득이 가능할 것

(1) 국어학의 영역1

음성학·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화용론	담화론	국어정보학

(2) 국어학의 영역2

음성학·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화용론	담화론
국어정보학				

→ 더욱 전문적인 '기술'은 대학원에서 담당

○ 인재 양성을 위한 강좌의 상시 개설
→ 국어정보학 인재 양성 목적이라면 관련 과정이 반드시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야 함.

○ 난이도
→ 속칭 '인문학(자) 위한'이라는 제목의 저서, 특강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문학도들이 쉽게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난이도의 강좌가 반드시 필요함.

3.2. 연구 대상의 시선 넓히기 - 언어 연구

○ 언어 연구 자료의 확대
→ 한림학술원; 2019년 학술 심포지엄 “근대 한국 문예지 코퍼스의 구축과 독해”
→ 국어정보학의 대상 자료를 현대 한국어에서 근대 자료 및 국어사 자료로 확대
→ 근대 신문, 잡지 자료 등에 대한 국어정보학적 접근(형태 분석, 어휘 관계, 저자 판별 등)

○ (인문학 중심에서) 국어정보학이 인공 지능 시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바
→ 의미(어휘, 문장, 화용) 중심의 언어 정보 구축, 제공
→ 정밀하고 정확한 학습 자료(정답 세트), 평가 체계, 평가 세트의 제공.[5)]

> “생성문법으로 대표되는 현대 언어학이 최근 딥러닝 기반의 언어처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는 단연코 그 **평가체계를 고도화**하는 일이다. 언어모형이 인간의 언어 구조와 사용을 모사하는 체계라고 한다면, 그 구조와 사용에 대한 전문가는 언어학자이기 때문이다.”, 송상헌(2022:170)

4. 나오기

○ 전공과 연계한 기술 습득으로 관련 분야의 인재 양성
○ 순수했던 이론 중심의 인문학에서 ‘기술’을 함양하고, 다양한 ‘자료’(영역별, 형태별)를 다룰 수 있는 디지털 인문학으로의 완전한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
○ (그렇다 하더라도) 인문학 전공 학생들의 취업과 관련하여서는 더욱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요구됨.

<참고문헌>

강병규·박민준(2022), ‘중국어 자연어처리 연구 현황과 발전 추세’, 『언어와 정보사회』 45,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p.193-231.
김한샘(2019), ‘말뭉치 기반 한국어 연구의 현황과 전망’, 『한국어학』 83, 한국어학회, p.1-33.
김한샘(2022), ‘주석 말뭉치의 현황과 전망: 감성 분석 말뭉치를 중심으로’, 『언어와 정보사회』 45,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p.233-262.
송상헌(2022), ‘딥러닝 언어모형의 평가와 언어학’, 『언어와 정보사회』 45,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p.169-191.
신서인(2019), ‘말뭉치를 이용한 한국어 문형 및 어휘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어학』 83, 한국어학회, p.35-68.
홍정하(2022), ‘언어 데이터의 창의적인 활용을 위한 언어 연구자의 조건’, 서강대학교 언어정

5) 송상헌(2022:170) 참조.

보연구소, 제99회 월례발표회(2022년 5월 12일, 예정)
황화상(2022), ‘인공지능 시대의 언어 연구: 주요 문제와 언어학의 역할’, 『언어와 정보사회』 45,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p.145-168.

「인문학 위기 속의 국어정보학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지정 토론문

오규환(동덕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최정도 선생님의 발표문 잘 읽어 보았습니다. 짧은 발표문이지만 발표자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국어정보학에 문외한인 저도 국어정보학이 국어국문학에서 어떠한 위상을 지니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어느 정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발표자께 감사드립니다. 아래에 몇 자 적은 것은 발표문을 읽으면서 든 생각들을 여쭙는 것이니, 답변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질문에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일전에 저는 모 프로젝트에서 형태 분석 말뭉치와 관련된 업무를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저는 공학(전산학) 분야의 인력과 국어학 분야의 인력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국어정보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어학 전공자들이 공학(전산학)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큼이나 공학(전산학) 분야 전공자들도 국어학 전공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발표자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2. 국어정보학 인재 양성을 위하여서 관련 과정이 반드시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발표자의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국어정보학 인재 양성을 위한 학부 강좌를 강의할 만한 교수자는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몸담고 있는 학과에서도 2년 전부터 ‘국어정보학입문’이라는 강좌를 개설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어정보학을 강의할 수 있는 교수자들이 협업하여 15주차 강의를 온라인으로 여는 것이 가능하다면 여러모로 좋을 듯한데, 이에 대한 발표자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 음성학에서 유용한 국어정보학적인 지식과 의미론에서 유용한 국어정보학적인 지식이 구별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음성학과 의미론에서 유용한 국어정보학적인 지식이 상이하다면 학부 수준에서의 국어학의 영역은 발표문의 (1)처럼 나눌 수도 있지만 대학원에서는 발표문의 (2)처럼 나누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음성학·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화용론	담화론
국어정보학				

이상입니다. 토론문을 준비하면서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에 발표자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언어 변화와 언어 공동체와 역사 코퍼스
- 국어사 연구와 그 주변의 동기화율을 높이기 -

김현주(공주교육대학교)

1. 문제의 진단

1.1. 전공 학부생의 입장에서 국어사 연구가 가지는 의미

▢ 대학 교육의 위기와 국어사 연구를 결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어학, 국어학을 공부하고 지평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는 일의 의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을 찾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겠지만, 일단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해서 전공을 듣는 학생들이, 실용적인 면모를 당장은 찾을 수 없더라도, 순수 학문 그 자체의 발전에 수긍한다고 전제해 보자.

▷ 그러하다면, 국어사를 포함해 국어학이 순수 학문의 테두리 안에서 그 존재 의의를 분명히 하는 길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1.2에서 '의미'에 대해 좀 더 보겠다.

▷ 혹시 그렇지 않다면, 당장의 관심이나 쓸모를 추구하는 주제와 국어사 연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주제의 교집합을 찾아 다루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한 방편일 수 있다. 이에 대해선 아래와 같이 보기를 보이는 정도만 다루고자 한다.

: 보기) '온라인 가나다'의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규범의 저변에 있는 국어사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가령 2인칭의 '니', 3인칭 대명사 '녀석' 등에서의 두음법칙; '부디' 등에서의 구개음화,

: 보기) 사람들은 의외로 어원에 관심이 많고 유연성이 멀어진 말의 역사적 관계 등에 흥미를 보인다. 가령 '아내', '고치다', '다치다'

1.2. 국어사 강좌를 수강하고 공부하는 일의 유의미함

▢ 언어의 본질에서 생각하는 것이 질문에 답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 인간 개개인 간의 상호 조율이 반복되고 이것이 세대를 거듭해 누적되어 인간 공동체가 창발하는데, 이 상호 조율의 한 수단이 언어이므로 '언어에 대해 이해한다'라는 것은 공동체와 공동체의 상호 조율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즉, 언어의 본질은 공동체 개개인 간의 상호 조율의 수단임에 있다.

▷ 이는, 언어학이 공동체의 상호 조율적 특성에 대한 고려를 공유하는 다른 학문 분야와 교류와 소통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언어에 대한 연구가 고립된 학문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 공시 언어학을 통시 언어학과 범주적으로 구분하고 언어학을 사회학이나 역사학이나 문학 등과 범주적으로 구분하려는 등등의 태도는 초심자들의 지루함이나 좌절을 낳는다.

: 필자의 경험 - 심리학과에서 개설한 교양 강좌를 수강하던 중 인간 언어에 대해 논하는 부분이 나왔지만 지금까지 전공에서 접한 지식과 결부하여 이해할 수가 없었음 → 이대로 국어학 강좌를 공부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과 불신이 생김. 비슷한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함.

▷ 요컨대, 상호 조율적 특성을 중심으로 언어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럼으로써 공동체 구성원 간 상호 조율을 매개로 여타 분야와 견주고 가감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다. 국어사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이는 실제의 언어 사용 상황과 언어학의 싱크(동기화율)를 높이는 것이기도 하고, 인접 학문과 언어학의 싱크를 높이는 것이기도 하다.

▢ 혹은, 인접 분야를 이해할 때 쓸모가 있는 지식

▷ 국어사 강좌에서 배운 것이 다른 언어학 강좌나 다른 전공 분야에서 쓸모가 있을 때. 이에 대해서도 따로 다루지 않겠다.

: 보기) 고전문학 작품에서 '-엇-', '-돗-', '-더-' 등의 해석

: 보기) 사회, 문화, 정치, 외교를 이해하는 데 언어 표현이 이용될 때

2. '공동체 구성원 간 상호 조율 수단'으로서의 언어를 연구하기

2.1. 상호 조율의 관점으로 언어를 분석하기

▢ 상호 조율은 의사의 직간접적 표현과 그 해석으로 이루어진다. 상호 조율에 동원되는 모든 단서를 광의의 언어로 본다면, 상호 조율이 곧 담화이다. 단, 발신자와 수신자를 나누고 다시 의사 표현으로서의 '말'이 있느냐 등을 나눠서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것은 좀 복잡해 보이니까 일단 상호 조율이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만 생각하도록 하자.

▢ 이런 관점에서 기존의 언어학적 단위와 개념에 대해 생각해 보자.

▷ 화행: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관철시키려는 의사의 유형 → 알고 있는 것을 물을 때의 효과 등으로 확장 가능. 보기) 서로 알 때: 비난, 재촉 / 화자만 알 때: 퀴즈

▷ 양태: 언급한 사태에 대한 화자의 태도 → 청자는 이러한 태도에서 화자의 발화 의도를 추론해야 한다. 보기) '-을 수 있을 수 있겠다' / '-지 않으면 안 된다.'

▷ 상: 사태의 전개 양상 → 배경 설명, 전경 상황 등 이야기의 구성

▷ 시제: 사태의 발생 시점 → 단순히 사태의 발생 시점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부각하거나 생생하게 표현하거나 등의 뉘앙스를 실을 수도 있다.

▷ 정보 구조: 담화 참여자 간 정보 수준을 맞추는 작업은 담화의 단순 구축에만이 아니라, 거짓말, 교묘한 속이기, 유머 등에도 또 이를 간파하는 데에도 활용된다.

→ 이외에도 문장성분, 격, 증거성, 의외성, 이형태[1] 등등 그간 언어학의 단위나 개념을 상호 조율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색다른 모습들이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상호 조율의 상황을 취급하는 인접 분야와 소통의 여지를 보다 수월하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표현론적 관점과 거의 같아 보이며 다른 함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음)

▢ 서로 다른 문화권의 언어 공동체 간에 보이는 언어적 공통점과 차이점은 각 언어 공동체의 상호 조율의 상황이나 해소 방식의 누적된 역사에서 보이는 공통점과 차이점과 평행한 추세를 보일 것이다.

2.2. 공동체 구성원 간 상호 조율의 역사 속에 빚어지는 언어 변화

▢ 언어 변화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용해 오던 언어에 대한 관행이 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새로운 관행이 소수로 된 작은 공동체에서 시작해 전체 언어 공동체로 퍼지는 것이다. 극단적으로는 사회문화적 권력을 가진 극소수가 언어 공동체 전체의 변화를 만들기도 함: 사회연결망을 타고 이루어지는 언어 변화(Milroy 부부의 일련의 연구).

▷ 2·30대가 1·20대 때 새로 만들어 활발히 쓰다 더는 안 쓰이는 말: 'X-돋다'

▷ 이광수, 김동인 등을 주축으로 시작된 언문일치운동: '~이다(=이-다)'

---

1) 언어 변화는 비규범적인 용법이 규범으로 자리잡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두 인물 간의 대화에서 구개음화의 실현 여부 등으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엿볼 수 있다.

: '~이다'의 매체별 출현 양상을 살펴볼 수 있을 듯

▹ 변이와 변화를 연구할 때 공동체의 사회연결망을 고려해야 한다.

: 보기) '-으셔요/으세요'는 '식모 → 여성 → 물건 파는 사람 / 서비스 업종 종사자 → 교회의 언어 → 남성, 고위층' 순으로 확장됐다.

▢ 말로써 이루어지는 상호 조율 과정에서 고빈도 표현에 대해 조음적, 인지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진다. 발신자는 발신자 나름대로 상호 조율 상황에 대해 고려하여 말하고 수신자도 들리는 말의 의도를 나름대로 상호 조율 상황을 고려해 이해하는 과정에서 추론이 관습화하기도 하고 빠른 소통을 위해 관습화된 덩어리 표현의 조음은 단순화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면을 체계화한 것이 문법화 이론이라 할 수 있겠다.

2.3. 상호 조율의 흔적을 모아 둔 역사 코퍼스를 활용하기

▢ 상호 조율의 흔적들의 모둠

▹ 국어사 연구 자료는 코퍼스 언어학의 방법론을 직접 적용하기에는 넉넉하지 않다.

▹ 언어의 전반적 변화 정도 및 상호 조율 특성(담화 유형, 장르 등)에 따라 자료를 나누어 보는 것이 언어 변화의 과정을 잘 보여줄 때가 많다.

▢ 코퍼스로서의 자료가 국어사 연구에 끼친 영향

▹ 이전 국어사 연구는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 혹은 자료에 포함된 표현을 알고 있느냐 등이 가장 중요한 연구 역량에 포함되어 있었다.

: '여럿' 등장하는 경우나 '딱 한 번' 등장하는 경우 등은 모두 개인의 기억과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의 문제였다.

: 여전히 실물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 자료에 포함된 표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그것이 연구에 도움이 되는 것도 맞지만, 역사 코퍼스 구축 이후 이러한 미덕이 가지는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 특정한 언어학적 주제를 중심으로 한 연구의 활성화

: 코퍼스의 등장으로 특정 주제 중심의 연구가 수월해졌고 이로써 현대 국어학과 국어사의 연구 주제 및 방법론의 싱크도 높아졌다.

: 현대 국어의 문법 현상을 이해하는 데 국어사에 대한 지식을 접목하기가 수월해졌고, 현대국어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도 국어사에 대한 검토를 요구받게 되었다.

▢ 최근 역사 코퍼스의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한 AI 언어학적 방법론이 국어사 연구에 접목되고 있다.

: 연대 추정, 형태소 분석

3. 마무리

▢ 기존처럼 특정 시기 국어의 공시적 모습을 포착하려는 시도나, 특정 작품을 골라 해제하고 강독하며 연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발판이 없다면 위에서 언급한 방식의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 국어사는 어떠해야 한다는 식의 소위 전통성 혹은 정통성에 얽매이지 말고, 상호 조율의 수단으로서의 언어를 중심으로 접근해 주변의 다른 분야들(언어학, 현대 국어 연구, ,고전문학, 문화사, 사회학, 인류학 등)과 동기화율을 높여 서로 통할 수 있는 방식의 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인접 분야들과 연결되거나, 일상의 요소 중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지점을 일깨우거나 하는 등의 쓸모가 국어사를 비롯해 대학의 인문학 교육 위기의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상호 조율 수단으로서의 언어]

Clark, H. H. (1996/2009). *Using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언어사용 밑바닥에 깔린 원리』, 김지홍 역, 도서출판 경진.)

Keller, R. (1991/1994/2000). *Sprachwandel, Von der unsichtbaren Hand in der Sprache*. Journal for General Philosophy of Science/Zeitschrift für Allgemeine Wissenschaftstheorie, 22(1). (*On language change*, trans. Brigitte Nerlich, Routledge;『언어 변화』, 이기숙 역, 서광학술사)

Sperber, D., & Wilson, D. 1995.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2nd ed. Cambridge/Oxford: Blackwell.

[사회 연결망]

Granovetter, M. S.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1360-1380.

Milroy, J. (1992). *Linguistic variation and change: On the historical sociolinguistics of English*. B. Blackwell.

Milroy, L., & Milroy, J. (1992). Social network and social class: Toward an integrated sociolinguistic model. *Language in society*, 21(1), 1-26.

[고전 문학 작품과 국어사 지식]

박진호 (2017) 국어사 자료로서의 김천택 편『청구영언』,『국립한글박물관 소장, 김천택 편『청구영언』의 종합적 고찰』, 한국시가학회 제84차 정기학술발표회 발표집. 25-116.

[AI 언어학]

박진호 (2018.4) 언어 연구에서 딥러닝의 몇 가지 활용 사례, 연구발표회 자료집, 한국언어정보학회.

[개별 어형의 어원]

김현주 (2012) 종결어미 '-으세요'의 형성과 화행의 편향적 관련,『형태론』14-2, 184~207.

허인영, 전은경 (2019) ‘다치다’의 다의성과 의미 변화.『국어사연구』28: 201-231.

“언어 변화와 언어 공동체와 역사 코퍼스”에 대한 토론문

허인영(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어학 분야에서는 처음 접하는 형식의 발표문이라 토론문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먼저 인터넷에 자주 돌아다니는 만화(의 일부)를 살펴보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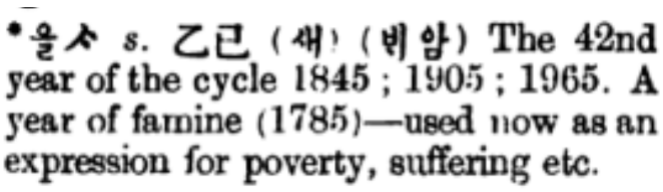
1) 김케장 - 813. 살난 젤라또 박: https://kimkero.tistory.com/1836

1.1. 발표자께서 문제를 진단하신 부분은 평소 제 고민과도 맞닿아 있어 반가웠습니다. 이 글의 전반적인 주장에 동의하는 만큼,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제 생각이나 관련 사례를 덧붙이는 것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의 만화는 표현이 과격하긴 하지만 국어국문학과에 대한 세간의 인식을 잘 보여줍니다. 저도 학부와 대학원을 거치는 과정에서 국어학의 유용함이 무엇일지에 대해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국어학뿐만 아니라 다른 순수 학문 전공자들도 내가 하는 연구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의 충족 내지는 자기만족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학원에서 연구를 한다면 '인류의 지(知)의 총량을 늘리는 데 기여한다'는 생각이라도 할 수 있지만, 학부생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당장의 관심이나 쓸모를 추구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관심이 거의 없는데, 저는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쪽에서는 계속해서 대중적인 작가가 나오고 이를 통해 관심이 환기되는 반면, 국어 쪽은 그런 사례가 드뭅니다. 그러나 '과거로 가도 말이 통할까', '향가 및 중세국어 낭독', '닭도리탕의 어원' 등을 다룬 한 유튜브 채널이[2] 10만명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당장의 관심이나 쓸모를 추구하는 주제'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적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국어학(국어사) 지식의 대중화', 특히 학문적 엄밀함과 대중성의 trade-off와 관련한 발표자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한편 '유연성이 멀어진 말의 역사적 관계'와 관련해서는 마원걸(2021), 성우철(2020, 2021), 정은진(2021) 등과 함께, 조항범(2014)에서 다룬 '을씨년스럽다'의 예가 떠오릅니다.



*을ᄉᆞ s. 乙巳 (새) (비암) The 42nd year of the cycle 1845 ; 1905 ; 1965. A year of famine (1785)—used now as an expression for poverty, suffering etc.

Gale(1897) 한영자전

1.2. 언어학자들은 언어 현상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서 언어는 전적으로 수단이라는 점을 간과하는 일이 종종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언어(변화)에 대한 해명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더라도 인접 분야와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래야 언어를 간접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는 인접 분야와의 소통이 활발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국어사와 가장 가까운 인접 분야는 역시 고전문학일 것입니다. 최근 임재욱(2017)에서는 박진호(2017)에서 김천택 편 『청구영언』의 언어를 국어사적 측면에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조년의 「梨花에 月白ᄒᆞ고」의 '아라마ᄂᆞᆫ'을 '알랴마는'이 아니라 '알건만'으로 풀이하여 작품을 재해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에서는 '국어교육을 위한 실천적 소통과 협력: 국어사와 고전문학'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학술대회에서는 하나의 작품이나 주제에 대해 국어사와 고전문학 전공자가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인접 학문과 언어학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활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김유범·엄태웅 - 고전소설 이본 간의 시간성·지역성과 국어교육적 활용 방안: <홍길동젼>을

2) 향문천 - 글과 울림의 샘: https://www.youtube.com/c/lingfount/

중심으로
서형국·주재우 - 84장본『열여춘향슈졀가』의 담화 기반 분석
이병기·임재욱 - '동동'을 이용한 국어사와 고전문학의 통합적 교육
하윤섭·성우철 - 고전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섭겁다}의 의미 검토
정은진·김진우 - <속미인곡>의 'ᄀᆞᆫ니와'에 대하여

한편 일본에서 일본어사는 기본적으로 고전문학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출발하였으며 지금도 일본어사는 일본어로 된 고전을 이해하기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연구자가 많습니다. 일본의 대학입시에서도 고전과 고전을 해석하기 위한 고전문법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이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학자들이 참여한 '고전은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2020년에는 고등학생들이 참여한 '고등학교에 고전은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라는 심포지엄이 개최되어 큰 화제를 모았고, 각각 勝又基 편(2020), 長谷川凜 외 편(2021)로 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고전문학이나 국어사의 필요성을 전제하고 논의를 시작하기보다, 긍정파와 부정파가 공개적으로 서로의 주장을 맞부딪히는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1. 상호 조율의 관점에서 언어를 분석하게 되면 '의미'와 '화용'이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발표자께서 언급하신 언어 단위들이 화용과 깊은 관련을 지닌 요소들이라는 점은 자연스럽습니다. 이와 함께 음운 쪽에 가까운 요소, 즉 이형태나 음운 현상(움라우트 등)의 사용과 (2.2에서 언급하셨지만) 음 변화에도 상호 조율의 관점이 적용될 수 있을 듯합니다. 예컨대 Ohala(1981)에서 주장한 '음 변화의 근원으로서의 청자'에는 상호 조율 과정에서 청자가 화자의 발화를 어떻게 지각했는지가 음 변화와 관련됩니다.

그리고 상호 조율의 관점에서 언어를 분석한 결과를 인접 분야 또는 교육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인지과학적·언어유형론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어(의 역사)에서는 이렇다'라는 것만으로는 인접 분야의 연구자들을 설득하거나, 상이한 언어 공동체 간에 보이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인간 언어에는 다양성과 함께 그것들을 아우르는 보편성이 있고, 그 배경에는 인간의 인지가 작용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국어사 연구나 교육에서는 이러한 측면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발표자께서는 연구·교육 과정에서 이러한 관점을 어떻게 도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2.2. 사회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link로 이루어진 연결망으로 보는 사회 연결망 이론은 발표문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언어 변화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의의를 갖습니다. 이와 함께 생각해 볼 만한 것으로 먼저 밈(meme) 이론이 있을 듯합니다. 사회 연결망 이론은 연결망의 구조나 link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밈 이론은 연결망(공동체) 내에서 전파되는 행동이나 현상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Richard Dawkins는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에 따라 공동체 내에서 유전자가 전파되듯이, 사회 내에서 행동이나 생각이 전파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그것을 '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밈은 유전자와 마찬가지로 개체의 생존·번식에 공헌하면 번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빠르게 도태되며, 개체의 이익에 반하더라도 밈의 이익에 보탬이 되면 번성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언어와 언어 변화에 밈 이론을 적용해 보면, 언어의 개신 가운데 화자의 이익에 보탬이 되는 것, 예컨대 상류 계급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언어적 특징은 살아남아 전파되기 쉬울 것입

니다. 반대로 낙인 찍힌(stigmatized) 언어적 특징은 전파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화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아니더라도, 밈의 이익에 보탬이 된다면 그 언어적 특징은 쉽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딱히 화자의 이익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이 쓴다는 이유만으로도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는 현상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3)]

그리고 Dahl(2001)에서 다룬 언어에서의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 효과 또한 언어 변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관점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기존에도 의미론에서 어휘의 의미 하락(양반, 마누라) 등과 관련하여 유사한 생각은 있었지만, 경제 분야에서 통화량이 늘어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언어 분야에서도 어떤 표현이 과도하게 사용되면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는 관점은 어휘 요소뿐만 아니라 문법 요소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많은 언어에서 현재 관련성(present relevance)을 나타내던 완료상(perfect) 요소가 단순 과거 요소로 변화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현재와 관련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쓰이다가 그 가치가 떨어지면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 밖에도 중국어의 ‘很+형용사’ → ‘非常+형용사’ 변화나, 프랑스어 부정문의 ‘ne → ne … pas → pas’ 변화도 유사한 변화입니다. 언어의 디플레이션 효과는 ‘당신이 제안한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를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로 표현하는 것처럼 주로 부정적인 평가에서 너무 강한 표현을 피하고 약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효과들 또한 화자와 청자가 서로의 발화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호 조율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 연결망 이론, 밈 이론, 언어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 연결망을 타고 이루어지는 언어 변화의 확산을 좀 더 매끄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어사 연구자들의 연구뿐만 아니라 나아가 인접 분야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거나, 국어사 교육에서 언어 변화의 과정이나 원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2.3. 역사/통시 코퍼스가 구축되면서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나아가 국어사뿐만 아니라 현대국어학 연구에서도 국어사적인 사실을 다루게 된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최근에는 이민우(2020) 등에서 역사 코퍼스의 전산 처리를 통하여 의미 변화를 연구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 코퍼스의 형태 분석 과정에서의 중의성 해소에 대해서도 확률적 모형을 적용한 방진우(2020)와 같은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이용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만, 방법론이 확산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현재의 적은 데이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역사 코퍼스와 관련하여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검색의 편의성과 자료에 대한 감각(직관이라고 해도 좋습니다)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구축된 말뭉치의 양과 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전자의 문제는 많은 연구자들이 오래 전부터 지적해 온 것입니다만, 검색은 내가 찾은 것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앞뒤 맥락, 나아가 전체 문헌의 맥락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결과 맥락에서 도출되는 의미를 간과하게 되거나 심지어는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현대인이 과거 언어의 직관을 온전히 갖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국어사 연구 및 교육에서는 자

3) 이에 대해 Dan Sperber는 표상의 역학(epidemiology of representation) 이론을 통하여 유전자에 비해 복제의 정확도가 낮고, 전파되는 표상은 화자와 청자에게 있어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고 밈 이론을 비판하였습니다. 나아가 행동이나 생각의 전파는 모방보다는 의사소통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지적하습니다.

료 강독과 이를 통한 ‘감각’의 체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세종계획을 통하여 1,165만 어절의 원시 말뭉치가 구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15-16세기의 간본이 중심이고, 17-19세기의 필사본은 전체 분량에 비하면 극히 일부만이 포함되었습니다. 물론 필사본은 간본에 비해 자료의 확보와 판독 및 입력 과정에서 상당한 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뭉치 내부의 차이는 말뭉치를 통한 연구, 특히 통시적 연구에서 암암리에 편향을 낳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말뭉치를 통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말뭉치를 더 확충하고 보완하는 데에도 그에 못지 않게 (혹은 그보다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문헌

마원걸(2021). 「‘약간(若干)’의 어휘사」. 『국어국문학』 196. 국어국문학회. 145-170.

방진우(2020). 「역사 자료 형태분석에서 미등록어 추정과 분석 중의성 해소」. 『동양예학』 44. 동양예학회. 169-197.

성우철(2020). 「‘당최’의 의미 변화 과정과 그 기제에 관한 연구」. 『국어학』 96. 국어학회. 257-308.

성우철(2021). 「중세 한국어 ‘뷔다[刈]’의 의미에 대한 연구」. 『한국어학』 91. 한국어학회. 273-314.

이민우(2020). 「역사 말뭉치 분석을 통한 감정 어휘의 의미 영역 변화 양상 연구」. 『한국어의미학』 70. 한국어의미학회. 69-100.

임재욱(2017). 「〈梨花에 月白ᄒᆞ고〉의 의미 재검토: “아라마ᄂᆞᆫ”을 “알건만”으로 해독한 견해에 의거하여」. 『한국시가연구』 43. 한국시가학회. 221-244.

정은진(2021). 「‘끼치다’의 어휘사: 기티다[遺]’와 ‘찌티다[撒]’의 통시적 의미 변화를 중심으로」. 『국어사연구』 32. 215-245.

조항범(2014). 「‘을씨년스럽다’의 語源에 대하여」. 『한국어학』 64. 한국어학회. 169-194.

Dahl, Östen(2001). “Inflationary effects in language and elsewhere.” Joan L. Bybee and Paul Hopper (Ed.), *Frequency and the Emergence of Linguistic Structure* (Typological Studies in Language 45).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471-480.

Dawkins, Richard(1989). “11. Memes: the new replicators”. *The Selfish Gene* (2n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Ohala, John J.(1981). “The Listener as a Source of Sound Change”. *Papers from the Parasession on Language and Behavior Chicago Linguistic Society*. Chicago Linguistic Society. 178-203.

Sperber, Dan(1996). *Explaining Culture: A Naturalistic Approach*. Oxford/MA: Blackwell Publishers.

勝又基 편(2020). 『古典は本当に必要なのか、否定論者と議論して本気で考えてみた。』. 東京: 文学通信.

長谷川凜 외 편(2021). 『高校に古典は本当に必要なのか: 高校生が高校生のために考えたシンポジウムのまとめ』. 東京: 文学通信.

제2분과

대학 교육의 위기와 고전문학의 변화 방향

고전시가 위기의 진단과 문제 해결의 좌표

- 관계성의 복원과 이해의 지평을 중심으로

최홍원(상명대 국어교육과)

1. 논의의 배경 및 문제제기: 과거의 고전시가, 현재의 삶, 그리고 미래의 환경

❑ **(논의의 출발)** 『한국문학사(김윤식 외, 1973)』, 『민족문학사 강좌(임형택 외, 1995)』 서문

❑ **(문학 위기의 보편성)** 문학의 위기는 지금 여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사태이며, 고전시가에 한정된 문제라기보다는 문학, 나아가 인문학 전체가 겪고 있는 공동의 현상임.

❑ **(위기 극복과 대안의 모색)** 위기를 타개할 대안 또한 다양한 차원에서 모색되어 왔음. 고전문학의 차원(송효섭, 2008; 정우봉, 2013; 이형대, 2021), 인문학 구성원 전체의 차원(1996 인문학 제주 선언, 2001 인문학 선언, 2006 인문학 선언문, 2012, 인문학 선언문 등)

❑ **(대학의 학제 및 학문 세계 전반의 위기)** NBIC로 대표되는 최첨단의 과학 기술들의 급속한 발전 및 가공할만한 위력으로 인해 과학기술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면서 대학의 학제와 학문의 세계가 근거 자체부터 뒤흔들리고 있음. 대학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변화하고 있음(백낙청, 1994; 강영안, 2002; 임재진, 2001; J. Washburn, 2011 등).

❑ **(고전시가에 대한 반성과 점검의 요구)** 지나간 과거로서 고전시가는 각종 과학정보와 첨단기술이 선도하는 미래 변화의 중심에 벗어나 있고, 문학으로서 고전시가 또한 실용성의 현재 요구에 비켜 서 있음. 과연 과거의 고전시가를 대상으로 현재의 삶에 대응하고, 미래의 변화 환경에 대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회의가 제기됨. 그동안 당연하게 전제해왔던 고전시가의 연구와 교육에 반성과 점검이 요구되는 순간임.

❑ **(문제의식 및 해결의 방향성)** "현재 대학에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인문학은 과연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고 있는가?"(강영안, 2002: 122) 이러한 문제의 해법은 고전시가 내적인 반성을 토대로 새로운 변화와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일에서 출발할 수 있음. 인문학이 인간의 자기 인식을 위한 진정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김광명, 1996), 위기 극복 또한 인문학으로서 고전시가에 대한 반성과 검토에서 시작되어야 함.

❑ 연구 목표 및 과제: 인문학으로서의 학적 성격에 대한 점검과 성찰을 통해 고전시가 연구와 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언하는 데 목표를 둠.

· 인문학이 인간 이해를 목표로 삼는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국어국문학의 연구 결과가 인간 이해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함. 고전시가 진흥을 위한 일련의 기획과 설계의 차원, 혹은 사회적 어젠다에 고전시가를 일방적으로 연결짓는 인정투쟁의 차원에서 벗어나, 내적 대응력의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 사회적 요구에 편승한 고전시가의 도구화를 경계하면서, 전범으로서 가치를 바탕으로 영속되어야 할 지속가능한 내포적 가치와, 사회변화 속에서 확장되는 외연적 효용을 동시에 추구해가는 방향성을 정립하고자 함.

· 고전시가 연구와 교육이 어디에 정위해야 하고, 담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마련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호명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

2. 문제의 지정학적 진단과 해결의 좌표

· 학문과 예술의 심급 속에서 문제의 근원을 탐색하는 가운데, 문제의 적확한 진단과 처방의 방향성을 도출함.

2.1. 학문의 과학성과 인문학의 통찰

❑ **(인문학의 연원)** 진리 발견을 통한 인간의 해방과 자유, 인간적 욕구의 충족(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 이론적 앎(앎 자체를 위한 앎의 추구) (김남두, 1994)

❑ **(과학적 방법론의 대두)** 근대 이후 과학적 방법론의 대두에 따른 인문학의 독자성, 존재의의의 입증 요구(최성환, 2007). 자연과학이 모든 학문의 근본이 되는 편견의 발생(조동일, 1977).

❑ **(실증주의와 인과성의 영향)** 인문학에서 연구자의 인격성, 주체성이 배제되고 실증주의와 인과성이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음. 과학성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법론으로 기여하지만, 포괄적 성격, 규범적 맥락, 실천적 지향성을 상실함(최성환, 2007).

❑ **(고전시가의 학문적 역사)** 고전시가 분야도 1920년대 이후 역사주의적 관점, 실증적 방법을 통해 근대학문, 분과학문으로서 자리잡음(성호경, 2021).

❑ **(고전시가 연구의 폐해)** 실증주의 연구방법론으로 인해 사실만을 앞세우고, 미세하게 분화된 영역 속에서 연구 지형이 협소해주는 폐단이 발생함. 연구 결과가 대중과 소외되는 결과에 직면하게 됨. 학문으로서 문학의 성립 과정이 전통적 인문학의 쇠퇴 시기와 일치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함.

❑ **(문제의식 및 해결의 방향)** 사실의 기술이 아닌, 인간다움을 탐색하는 규범적 학문, 가치적 표현이라는 점에서(이한구, 1995), 인간 삶과 가치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론의 전환이 요청됨.

> ❑ “분석과 종합의 기계적인 반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통찰”로서 “총체적인 조망과 종합의 지혜”(김광명, 1996).
>
> ❑ 살피는 행위의 총괄로서 ‘통찰(通察)’은 과학과는 구별되는 이해의 방법으로, 학문은 ‘이해로서의 통찰’과 ‘설명으로서의 과학’, 두 방법론으로 구성될 수 있음(조동일, 1997; 정대현 외, 2000).

2.2. 예술의 무관심성과 문학의 비판의식

❑ **(예술의 무관심성)** 무관심성(Interesselosigkeit): 실제적인 이해 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매혹적인 사물로서 미적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는 관조적 태도(칸트, 판단력비판; Melvin M. Rader 외, 1987). 예술이 현실 세계와 무관한 독립된 세계로 전제되면, 예술에 대한 태도는 순수한 예술작품으로서 심미성에 초점을 맞추게 됨.

❑ **(대상론으로서 문학)** 예술작품으로서 문학은 본래 지칭 대상을 전제하지 않은 채 외적 현실 세계의 실존 대상과 무관한 언어적 세계로서 자족적인 공간으로 간주되어 왔음. 목적이나 의향과 상관없이 하나의 독립된 실재물, 폐쇄된 작품으로 접근하는 ‘대상론(object-theories)’의 관점이 대표적임(Olsen, 1999). 문학 연구는 언어의 ‘예술적 사용’을 분석하는 것을 주된 과제로 하여, 학문으로서의 독자성과 방법의 엄밀성을 확보하여 왔음(조동일, 1997)

❑ **(문학의 무용도성)** “문학은 본질적으로 용도성이 없고 용도의 실현이 지향하는 목적을 지니지 않아서 용도성을 산출하는 주체(저자)의 의도와 상관없는 것”(서동욱, 2013)으로 이해되어 왔음.

❑ **(고전시가의 유용성 문제)** 고전시가 역시 삶, 사회와 유리된 영역, 실용성이 결여된 학문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유용성에 대한 사회의 요구에 적절한 대응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음. 유용성의 문제를 경제적 잣대로만 이해하고 접근한다면 자연과학이나 실용학문과 경쟁하기 어렵고 과학기술의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해서 유용성이 확보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내재되어 있음.

- **(문제의식 및 해결의 방향)** 문학을 포함한 인문학은 인간이 사는 현실과 무관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실용학보다도 더 가까이에서 현실의 삶을 반영함(김광명, 2007). "문학은 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 억압하지 않는 문학은 억압하는 모든 것이 인간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여준다"(김현, 1977)

- 인문학은 삶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역사와 사회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주요 과업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존재의 요건으로 삼으며, 현실과의 거리와 불화가 생산하는 끊임없는 비판의식이 인문학의 자기 정체성임(윤평중, 1998).
- 고전시가의 탐구와 교육은 인문학 본연의 과제, 즉 인간 이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성호경, 2021).

2.3. 주체와 대상의 관계성 복원과 인간 이해 및 세계 투시

- **(인간다움 회복을 위한 작동 기제의 규명 요청)** 고전시가의 위기 극복이 인문학으로서 인간다움의 회복에서 가능하다면,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작동 기제와 양상을 규명하는 것이 요청됨.
- **(인문학의 사유 구조_반성적 구조)** 객체로서의 세계를 다루는 자연과학적 탐구가 밖으로 대상으로 향하는 사유 구조를 갖는 데 반해, 고전시가를 포함한 인문학의 사유 구조는 탐구 대상이 탐구 주체인 인간을 포괄하는 만큼 자기 자신으로 향하는 반성적 구조를 지님(이상헌, 2013; 정대현 외, 2000). 세계를 보는 자신을 되돌아보는 사유 구조를 가리킴(강영안, 2002).
- **(고전시가의 학적 성격_관계의 물음)** 대상인 텍스트와 주체 사이에 새로운 관계 설정의 문제를 제기함. 인문학으로서 고전시가의 학적 성격은 바로 이러한 관계의 물음으로 대표되며, 인간 삶의 표현을 대상으로 주체와의 특별한 관계를 살피는 것이 요청됨.
- **(존재물음)** 하이데거의 '존재물음(Seinsfrage)'. 물음의 대상(das Gefragte), 물음의 목표(das Erfragte), 물음의 제기자(das Befragte) 사이(Zwischen)의 관계성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Heidegger, 1998). 이러한 연구 주체('현존재')와 대상('존재') 사이에서 '뜻과 의미'의 탐색 방법에 대한 물음으로 연결됨(이서규, 2011).
- **(직지향과 사지향)** 직지향(直志向, intentio recta)이 지향의 주체 쪽에서 대상을 향한 움직임이라면, 사지향(斜志向, intention obliqua)은 대상을 향하되 지향 주체의 의식 속에서 대상과 더불어 자신에 대한 의식이 어떤 방식으로든 함께 하는 복합적 활동에 해당함(이태수, 1994) 사지향은 원래 대상을 향한 일향적인 행위를 다시 행위의 출발점인 행위 주체자에게 되돌려 연관시켜 놓고 보는 반성적 관계를 내재함(이태수, 1994; 김상환, 2012).
- **(고전시가의 반성적 관계)** 고전시가에 치환하여 살펴보면 각각 대상인 작품, 작품의 뜻과 의미, 그리고 인간 주체에 대칭되면서, 자연스럽게 작품과 인간 주체 사이의 반성적 관계를 형성함. 대상에 대한 의미뿐만 아니라 지향 주체와 관련된 의미를 캐는 작업.

❑ 고전시가의 연구와 교육은 텍스트와 주체의 특별한 관계맺음으로 실현되어야 하고, 그 구도는 ‘텍스트를 통한 주체의 이해’로 설계됨. 이때의 이해는 주체 자신으로 수렴되거나 혹은 주체를 포함한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양방향으로 전개됨.
· 고전시가는 텍스트에 등장하는 제요소들을 통해 현실을 재구성하여 주체의 자기 성찰과 사회 투시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분야로, 이러한 이해 지평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간다움의 고양에 기여하는 것으로 재구조화됨. 텍스트는 타자로서, 이해의 매개로서 작동하는 만큼 어디까지나 인간 주체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지닐 수 있고, 고전시가 감상은 이러한 텍스트를 매개로 한 이해의 과정과 행위에 해당함.
· 텍스트를 통해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공동체를 형성하고 세계를 조망함.
· ‘거울’과 ‘유리창’의 비유. 거울이 독자 자신의 삶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면, ‘유리창’은 타자와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관조하는 안목에 해당함(Lee Galda, 1998).

3. 고전시가의 내포와 지속가능성: 텍스트를 통한 자기 성찰

3.1. 텍스트를 통한 자기 성찰의 구조

❑ **(‘손가락과 달’의 비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킴이여. 달은 손가락에 있지 않도다. 말로써 법을 설함이여. 법은 말에 있지 않도다[指以標月兮月不在指 言以說法兮法不在言]”

❑ **(문학과 교육에 대한 반성)** 문학과 교육에 치환시켜 본다면, 문학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설명 방식들을 전수하는 데에만 골몰했던 나머지, 정작 문학을 통해 인간이 도달하는 이해의 지점을 놓치고 말았다는 반성을 불러옴(김대행, 2000). 문학 자체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를 매개로 삼아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자기 이해의 문제를 제기함.

❑ **(사례_시조의 3장 형식)** 문학적 장치로서 설명과 인간 사유 구조(ORM 구조: 대상[Object]-관계[Relation]-의미[Meaning])로서의 이해(김대행, 2000)

❑ **(대상(텍스트)을 통한 자기 이해)** 대상으로부터 그것이 내게 주는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으로 사고가 전개되며, 결국 인간의 자기 이해가 이러한 타자라는 대상을 매개로 실현됨. 타자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에게 가르쳐주는 존재, 곧 나와 나 자신을 연결해 주는 필수불가결한 매개자로서 존재론적 지위를 지니며(변광배, 2004), 물태인정을 다룬 고전시가 텍스트는 이를 위한 효과적인 질료가 될 수 있음.

❑ **(사례_이황의 <도산십이곡> 11연)** 청산과 유수의 대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자신이 추구해야 할 삶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에 정향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음. 대상을 대상 그 자체로 인식하지 않고 자기 문제로 되돌려서 생각하는 가운데, 세계와 자아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줌(최홍원, 2012). 대상과의 만남을 통해 이치를 발견함으로써 절대적 세계에 도달하려는 태도가 문학으로 실현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주체의 자기 이해)** 주체는 텍스트를 통해 기존과는 다른 관계와 존재방식을 경험하며, 텍스트가 제시하는 삶의 존재방식과 가능성에 비추어 자기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함(윤성우, 2004).

❑ 고전시가의 본질이 텍스트와 주체의 특별한 관계맺음에 있으며, '텍스트를 통한 주체의 자기 이해'는 이러한 관계맺음이 작동하고 실현되는 대표적인 지점에 해당함. 가능 세계로서 텍스트의 제요소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주체의 자기 이해와 성찰을 가져오는 것임.
· "문학을 하는 목적이 무엇보다도 인간의 부단한 자기 성찰과 자기 경신에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상섭, 1986)"과 같이, 대상을 통한 자기 이해 속에서 도달하게 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성찰은 고전시가 본연의 탐구 과제이자, 현재와 미래가 요구하는 시대 정신과 요구에도 부합하는 일이 될 수 있음.

3.2. 교육의 실제

❑ **(사례)** 서울 모대학 국어교육과의 3학년 전공선택 강의인 '고전문학과 문화콘텐츠'에서 학생들이 생산한 산출물('상다미쌤' 콘텐츠)

❑ **(내용)** '누구나 낭만적인 사랑을 하고 싶어 하지',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모두 가치있는 존재야!' 등의 주제로, 학생의 실제 고민에 대해 고전문학의 인물이 등장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줌으로써, 고민의 자연스러운 해결을 도모하고 있음.

❑ **(주안점)** "문학 속의 이야기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기여한다(Gerald Prince, 1999)"를 전제로, 자신을 인식하고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동하고 있음.

[그림 1: 상다미쌤 콘텐츠(일부)]

4. 고전시가 외연과 확장성: 텍스트를 통한 세계 투시

4.1. 텍스트를 통한 세계 투시의 구조

❑ **(그때 거기를 통한 지금 여기의 이해)** 현재화된 과거 속에서 현재라는 시간 지평에 대한 의미있는 투시가 가능할 수 있음. 그때 거기의 문제를 지금 여기의 문제로 연결지어 현대 사회를 읽어내는 하나의 통로이자 방법론으로 작동하는 것을 가리킴. 과거와 현재의 삶 속에 내재된 보편적인 사유 방식과 정서를 도출하면서 동시에 그 차이를 밝힘으로써, 동질성과 이질성의 길항 속에서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대응력의 확보를 도모하는 것임.

❑ **(문학의 역할과 기능)** 일상의 경험에 매몰된 주체가 일상의 관습을 제거하고 은폐된 진리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치가 요구되는데, 문학 텍스트에서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기대할

수 있음. 문학 작품은 습관적인 사유의 방식이 주는 환경이나 범주를 탐구하고 그것들을 굴절시키고 변모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이전에는 예상치 못했던 어떤 것을 어떻게 하면 생각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무심하게 세계를 바라보던 그런 범주들에 관심을 갖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작동함(Culler, 1999)

❑ 고전시가를 인간 삶의 문제로 접근하여 삶의 문제를 드러내고 밝힘으로써 세계에 대한 이해의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을 도모함.

· 수용자는 고전시가 텍스트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세계를 되돌아봄으로써 그 근거와 정당성을 묻고 역사적 조건 속에서 사회를 객관화시키고 조망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음. 고전시가의 수용 과정에서 ‘텍스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의 물음이 ‘텍스트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로 전환되어야 함(최홍원, 2012).

4.2. 교육의 실제

❑ **(사례)** 서울 모대학 국어교육과의 3학년 전공선택 강의인 ‘고전문학과 문화콘텐츠’에서 학생들이 생산한 산출물(‘고창석 : 고전의 창으로 보는 석연찮은 세상 이야기’ 카드뉴스)

❑ **(내용)** 고전문학의 이해를 통해 오늘날 세계에 대한 조망과 비판을 시도하고 있음. 개별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질문을 발견하고, 이를 오늘날의 현실과 연결지어 날카로운 시선으로 세계의 부조리를 포착해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 신문, 방송 등의 매체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사건과 이를 소재로 한 여러 영화, 드라마 등을 가로지르면서, “매일매일 새롭게 업로드되는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이야기”로 현대 사회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주안점)** 현재의 인간 조건에 주목하면서도 과거의 텍스트와 연결지어 문제의 근원을 파헤치고 있음. 고전문학은 현재의 감춰진 문제를 포착하고 드러내는 창으로 작동하고 있음. 특히 고전은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각 시대가 지니고 있는 물음에 각각의 응답을 통해 재생되고 수용되기를 거듭해 온 것인 만큼(강두식 외, 1984), 문제에 대한 근원적·통시적 이해를 노리고 있음.

❑ **(한계 및 과제)** 산출물의 질료가 대부분 고전산문인 것에서 보듯, 문화콘텐츠로서 고전시가의 자질은 여타의 갈래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시가 쪽에서의 개선 방향이 상대적으로 부진함(박경주, 2020)

[그림 2: 고창석 콘텐츠(일부)]

5. 결론을 대신하여

- **(결론)** 고전문학은 낡고 진부하다는 선입견과 동시에, 오늘날의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타자인 만큼(김흥규, 2002), 세대와 지역의 갈등을 통합하고 미래 삶의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동시에 내재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고전시가 연구가 인간으로 수렴되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고, 개별 연구 성과가 인간 이해를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인간과 세계의 전체 연관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의의)** 현대사회를 향해서는 인문학의 핵심 주제인 '인간', '관계', '연대' 등이 우리 삶에서 내몰리면서(임재진, 2001) 인문학적 소양의 결여로 인해 야기되는 일련의 사회병리적 현상에 대해 고전시가가 하나의 효과적인 처방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음. 동시에 고전시가 연구를 향해서는 연구 지형 자체를 검토하고 반성하여 본연의 과제를 회복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존립 자체의 위기가 오히려 연구 지평의 새로운 확장을 가져오는 동인이 되어 고전시가 연구와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 것임.
- "인문학은 인간의 얼굴을 가진 지식으로서, 과거와 현재와 미리를 잇는 역사적 지평 속에서, 텍스트를 삶의 물음과 연관해서 꾸준히 읽어가고 응답하는 지적 추구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강영안, 2002)

<참고문헌>

강두식 외, 「문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 서울대 인문과학연구소 편, 『인문과학의 새로운 방향』, 서울대 출판부, 1984.
강영안, 『인간의 얼굴을 가진 지식』, 소나무, 2002.
권정임, 「무관심성 이론의 문화철학적 의미」, 『미학·예술학연구』 24, 한국미학예술학회, 2006.
김광명, 「삶의 학으로서의 인문학에 대한 반성」, 『인문학연구』 37, 숭실대 인문과학연구소, 2007.
김광명, 『삶의 해석과 미학』, 문화사랑, 1996.
김남두, 「서양 학문의 형성과 학문 분류의 기본 원칙」, 소광희 편, 『현대의 학문 체계』, 민음사, 1994.
김대행, 「손가락과 달의 문학교육론」, 『문학교육틀짜기』, 역락, 2000.
김대행, 「제3의 길을 찾아서」, 『국어국문학』 137, 국어국문학회, 2004.
김상환, 『철학과 인문적 상상력-헤겔 만가』, 문학과지성사, 2012.
김여수, 「인문과학의 이념」, 서울대 인문과학연구소 편, 『인문과학의 새로운 방향』, 서울대 출판부, 1984.
김영민, 『한국 인문학의 서양 콤플렉스』, 민음사, 1999.
김윤식 외,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김현, 『한국문학의 위상』, 문학과지성사, 1977.
김흥규, 「고전문학교육과 역사적 이해의 원근법」, 『한국 고전문학과 비평의 성찰』, 고려대 출판부, 2002.
박경주, 「대학 고전문학교육의 현황과 그 방향성 모색」, 『고전문학과 교육』 4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0.
박이문, 『예술철학』, 문학과지성사, 1984.
백낙청, 「세계시장의 논리와 인문교육의 이념」, 소광희 편, 『현대의 학문 체계』, 민음사, 1994.
변광배, 『장 폴 사르트르 시선과 타자』, 살림, 2004.
서영숙, 「고려속요에 나타난 민요적 표현과 슬픔의 치유 방식」, 『문학치료연구』 42, 한국문학치료학회, 2017.
서울대 인문학연구소, 『인문학 진흥을 위한 심포지움-인문학 진흥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방안』, 서울대 인문학연구소, 2001.
서정혁, 「예술적 관심과 심미적 존재」, 『헤겔연구』 10, 한국헤겔학회, 2001.
성기옥 외, 『한국시의 미학적 패러다임과 시학적 전통』, 소명출판, 2004.
성호경, 『한국 고전문학 탐구』, 태학사, 2021.
송효섭, 「고전문학의 위기와 담론 쇄신의 실천」, 『한국고전연구』 18,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양해림, 『디오니소스와 오디세우스의 변증법』, 철학과현실사, 2000.
유성호, 『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89.
윤성우, 『폴 리쾨르의 철학』, 철학과현실사, 2004.
윤평중, 「인문학이 서있는 곳과 가야할 길」, 『담론 이론의 사회철학』, 문예출판사, 1998.
이상섭, 『문학과 자기성찰-열린 문학을 위하여』, 서울대 출판부, 1986.
이상택, 「성격을 통해 본 <춘향전>」, 김병국 외, 『춘향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광학술자료사, 1993.
이상헌, 「인문학은 과학에 자리를 내주어야 하는가」, 서동욱 편, 『싸우는 인문학-한국 인문학의 최전선』, 반비, 2013.
이서규, 『하이데거 철학』, 서광사, 2011.
이태수, 「서양의 인문학의 전통과 특성」, 인문과학연구소 편, 『인문과학의 이념과 방법론』, 성균관대 출판부, 1995.
이태수, 「학문 체계 안에서 인문학의 위치에 관한 고찰」, 소광희 편, 『현대의 학문 체계』, 민음사, 1994.
이한구, 「인문과학에 대한 반성적 작업」, 인문과학연구소 편, 『인문과학의 이념과 방법론』, 성균관대 출판부, 1995.

이형대, 「<오대어부가>와 처사적 삶의 내면 풍경>」, 신영명 외, 『조선 중기 시가와 자연』, 태학사, 2002.
이형대, 「문명의 미래와 한국 고전문학 연구의 방향」, 『국어국문학』 196, 국어국문학회, 2021.
임재진, 「인문학 위기 담론의 실제와 그 반성」, 『동서철학연구』 21, 한국동서철학회, 2001.
임형택 외, 『민족문학사 강좌 (상)』, 창작과비평사, 1995.
정대현 외, 『표현인문학』, 생각의 나무, 2000.
정명환, 『젊은이를 위한 문학이야기』, 현대문학, 2004.
정우봉, 「고전문학 연구의 소통과 대중화를 위한 방안 모색」, 『국어국문학』 165, 국어국문학회, 2013.
조기영, 『한국 시가의 자연관』, 북스힐, 2005.
조동일, 「춘향전 주제의 새로운 고찰」, 김병국 외, 『춘향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광학술자료사, 1993.
조동일, 『인문학문의 사명』, 서울대 출판부, 1997.
조하연, 「<서경별곡> 비타들면 구절의 사후과잉확신 편향에 대한 고찰」, 『문학치료연구』 17, 한국문학치료학회, 2010.
조홍준, 「인문학의 정체성 물음에 대한 전기 하이데거의 대답」, 『문화와 융합』 41(4), 한국문화융합학회, 2019.
조희정, 「고전리터러시의 '시공간적 거리감' 연구」, 『국어교육』 119, 한국어교육학회, 2006.
최성환, 「서양 분과학문속의 인문학의 전개과정」, 『지식의 지평』 2, 대우재단, 2007.
최재남, 「국문시가와 한시의 존재 기반과 미의식 층위」, 인권환 외, 『고전문학 연구의 쟁점적 과제와 전망(하)』, 월인, 2003.
최홍원, 「국어교육 속의 시조, 시조 속의 국어교육」, 『시조학논총』 48, 한국시조학회, 2018.
최홍원, 『성찰적 사고와 문학교육론』, 지식산업사, 2012.
황병익, 「도산십이곡의 의미 재고 Ⅱ」, 『정신문화연구』 36(2),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Culler Jonathan, *Literary Theory*, 이은경 외 역, 『문학이론』, 동문선, 1999.
Galda Lee, "Mirrors and Windows: Reading as Transformation", Raphael, T. T. and Au, K. H., eds., *Literature-Based Instruction*, Gordon Publishers Inc., 1998.
Heidegger M., *Sein und Zeit*, 이기상 역, 『존재와 시간』, 까치, 1998.
Henrie Mark C., *Student's guide to the core curriculum*, 강유원 외 편역, 『인문학 스터디』, 라티오, 2009.
Olsen Stein Haugon, *The structure of literary understanding*, 최상규 역, 『문학 이해의 구조』, 예림기획, 1999.
Prince Gerald, *Narratology*, 최상규 역, 『서사학이란 무엇인가』, 예림기획, 1999.
Rader Melvin M. 외, *Art and human value*, 김광명 역, 『예술과 인간가치』, 이론과 실천, 1987.
Ricoeur Paul, *Du texte à l'action*, 박병수 외 편역, 『텍스트에서 행동으로』, 아카넷, 2002.
Ricoeur Paul, *Interpretation Theory-Discourse and the Surplus of Meaning*, 김윤성 외 역, 『해석이론』, 서광사, 1998.
Ricoeur Paul, 김동윤 역, 「서술적 정체성」, 석경징 외 편, 『현대 서술 이론의 흐름』, 솔, 1997.
Washburn Jennifer, *University Inc*, 김주연 역, 『대학 주식회사』, 후마니타스, 2011.

최홍원 선생님의 「고전시가 위기의 진단과 문제 해결의 좌표: 관계성의 복원과 이해의 지평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김승우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최홍원 선생님께서는 문학교육 일반에 관한 현장 중심적 시각을 바탕으로 여러 연구를 진행해 오셨으며, 특히 고전시가 교육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심으로써 "문학을, 그리고 고전시가를 왜 연구하고 교육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발표는 그러한 저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확대된 견지에서 고전시가 연구 및 교육의 방향을 전망해 주신 성과라 이해됩니다. 같은 고전시가 전공자로서 선생님의 문제의식에 십분 공감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 설정에도 동의합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는 만큼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좀 더 자세한 견해를 청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할까 합니다.

1. 발표문 I장에서는 이른바 '인문학의 위기'라 지칭되는 근간의 상황에 대해 다루어 주셨습니다. 유용성과 경제 논리를 중시하는 요즘의 풍조에서 인문학이 전반적으로 저평가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고전시가의 위기'도 큰 틀에서는 인문학의 위기로부터 불거지는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선생님께서 II장 1절과 2절에서 각각 인문학의 위상과 문학의 의의에 관해 자세히 서술해 주신 것도 이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인문학 연구자이자 문학 연구자들은 서술된 내용에 당연히 공감할 수 있으나, 문제는 인문학과 문학의 가치에 대해 사회 전반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느냐 하는 점일 듯합니다. 문학을 포함한 인문학이 우리의 삶에 절실하다는 점을 일반에 설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2. 오늘 발표의 두 축은 고전시가 연구와 고전시가 교육으로 대별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물론 두 가지가 응당 뗄 수 없는 관계를 지니기는 하지만, 오늘 발표의 목표가 문제 해결의 좌표를 찾는 데에도 있는 만큼 좀 더 자세한 지침을 기대하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고전시가 분야의 연구에서는 1920년대 이래로 역사주의적 관점과 실증주의적 방법론이 주를 차지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출된 여러 성과들이 고전시가라는 분과적 학문 체계를 공고히 하는 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기여해 왔던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실증주의적 연구 방법론이 인문학의 본연적 자질을 해치는 폐단으로 귀결되기도 한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그렇다면 차후의 고전시가 연구는 어떤 방향성을 지녀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품게도 되었습니다. 실증주의에서 추구하는 엄밀성보다는, 작자와 작품에 대한 연구 주체의 의미 탐색을 앞세워야 하는가? 구체적인 실례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등과 같은 물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3. 오늘 발표는 '인문학 → 문학 → 고전문학 → 고전시가'의 층위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전시가의 위기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그 상위의 범주들에 대한 고찰이 응당 필요하고 선생님의 발표에서 이 부분이 잘 검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어교육과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콘텐츠를 제시해 주셔서 고전문학 교육의 방향을 진단

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도 언급하셨다시피 고전문학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낮은 실정에서도 고전산문이나 구비설화 등에 비해 고전시가에 대한 관심은 더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학생들이 제작한 콘텐츠에서도 이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타 고전문학 분야의 텍스트나 자료에 비해 고전시가 분야에서 특히 더 기대할 수 있는 내역들을 보다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듯합니다. 고전시가 교육 분야에서 어떤 점을 들 수 있을지 선생님의 견해를 여쭙고자 합니다.

발표문을 읽은 후의 단상을 위주로 토론문을 작성한지라 선생님의 의도를 혹간 잘못 짚어낸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혜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고전서사 교육의 목적과 방법 재고

엄태웅(고려대)

1. 위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대학 교육의 위기와 국어국문학의 변화 방향'이다. 대학 교육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국어국문학은 어떠한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지를 탐색해보는 것이 이번 학술대회 개최의 목적일 것이다. 그런데 변화 방향을 논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의 위기'가 무엇인가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 교육의 위기는 다양하게 해석된다. 최근 들어 그 이유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학령인구 감소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은 크게 위축되고 있고, 비인기 학과들은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국어국문학과는 '비인기 학과' 혹은 '비인기 학과까지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선호하지는 않는 학과' 정도의 평가를 받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의 위상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우세해지고 있다. 많은 대학이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종전의 위상을 유지하느냐의 문제는 이미 고민의 대상이 아닌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국어국문학과의 위기를 학령인구의 감소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으로만 봐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국어국문학과 구성원들도 학령인구 감소만을 원인으로 보지 않는다. 그에 대해 다양한 진단을 하지만, 발표자는 그중에서도 연구 분야와 데칼코마니처럼 닮은 교육과정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본다.

국어국문학과의 교육과정은 국어학, 국문학(현대문학, 고전문학)으로 크게 나뉘고, 거기서 다시금 하위 세부 영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교육과정이 발표자와 같은 연구자들에게는 매우 당연하게 보이지만, 사실 이런 분류가 언제나 그래야 하는 보편타당한 기준은 아니다. 근대적 의미의 국어국문학 연구가 성립된 이후에 이러한 분류 체계가 굳게 자리 잡았을 뿐이다. 설혹 이 체계가 보편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국어국문학과의 모든 교육과정이 꼭 연구 분야와 일치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소수의 학생을 제외하면, 학문 분류 체계에서 최하위 층위에 존재하는 '고전시가', '고전산문'과 같은 영역의 전문적인 지식을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다.

이는 교육 방법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국어국문학과의 교육과정은 연구 분야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론형 과목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다. 이론형 과목은 주로 교수자의 강의에 의존한다. 학생 발표를 통해 참여도를 높인다고는 하지만, 이 또한 주어진 지식을 잘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애초에 수업의 설계 자체가 지식의 충실한 습득과 정리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요컨대 국어국문학과 교육과정은 지식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데, 그 지식이 학생들에게는 필요 없는 지식인 것이다.

그래서일까. 국어국문학과에서 대학 교육의 위기는 이렇듯 수십 년째 변하지 않는 교육과정과 이를 고수하는 학과 교수들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 그렇다면 교육과정을 바꾸는 것이 과연 대안일까? 대안이라면 교육과정은 어떻게 바꿔야 할까? 이 문제에 대해 고전소설을 포함한 고전서사문학 분야에서 경험한 현실과 나름대로 생각한 변화의 방향에 대해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2. 문화콘텐츠, 의의와 한계

짧은 글에서 전국의 국어국문학과 상황을 모두 수렴하여 논할 수는 없으니, 성급한 일반화를 무릅쓰고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20여 년간 국어국문학과가 위기론을 언급하며 제시한 대안은 주로 ‘문화콘텐츠’였다. 그간의 국어국문학을 유지하면서 일부 과목에 문화콘텐츠를 접목하는 것이다. 이는 국어학보다는 국문학 영역에서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학교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현대문학보다는 고전문학이 주도하는 경우도 많았다. 고전문학에서 나서게 된 데에는 고전문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위기의식도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런 유형의 과목에서는 한국문학을 원천으로 삼아 현대적 콘텐츠를 만든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것의 의의와 한계를 짚어나가곤 한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변화는 기존의 교육과정을 구조적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존의 고전문학 교육 내용에 현대적 변용의 양상을 좀 더 추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과의 접점을 찾음으로써 학생들이 고전문학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변화가 국어국문학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전환한 것은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국어국문학과의 정체성이 다소 어중간해진 측면도 있다. 문화콘텐츠의 접목이 학부생의 진로 설계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종래의 교육 내용은 적어도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나 교직 이수를 해서 중등교사로 나아가려는 학생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것이었다. 그런 면에서 문화콘텐츠를 접목한 교육 내용은 이 학생들에게는 교육 내용의 질적 저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한편 대학원이나 교사가 아닌 다른 진로를 택하는 학생들에게는 종래의 교육 내용이든 문화콘텐츠가 접목된 새로운 교육 내용이든 그리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사회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 중에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분야로 가려는 학생은 의외로 많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콘텐츠 분야를 희망하더라도 문화콘텐츠를 분석하는 것보다는 문화콘텐츠를 기획하거나 창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다면 문화콘텐츠를 제외하고 다시 종래의 교육 내용으로 돌아가면 될까? 그것은 더더욱 안 된다. 학부생들의 진로 방향이나 대학원 진학 현황을 통해서 왜 안 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흔히 ‘요즘 애들은 대학원에 잘 안 와.’라고 푸념 섞인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옛날 애들’도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발표자가 대학원을 진학할 당시에 본교 학부 졸업자 중에 대학원을 진학하는 비율은 7~8% 내외로 학번당 채 10%가 되지 않았다. 최근에 와서 약간 줄어들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애초에 모수가 작았기 때문에 유의미한 수치라고 말할 수 없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이다. 30년 전이나 40년 전에는 어땠을까? 그때도 비슷했을 것이다. 그나마 대학원 진학이 많은 편인 대학도 이 정도이니, 전국의 국어국문학과로 이 통계를 확대해보면 한 해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은 3%도 넘기 힘들 것이다. 요컨대 지금까지의 국어국문학과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은 극소수의 학생에게만 환영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과거에는 그럼에도 ‘국어국문학과 학생이라면 전공 학습에 충실해야지’라는 당위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 같다. 국어국문학과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학과의 교육과정에 자신을 맞췄다. 그래서 비록 졸업 후에 전혀 상관없는 직종에 취업해도, 과거에 자신이 국어국문학을 전공한 것을 좋은 추억(?)으로 말하곤 한다. 그러나 대학 사회에서 국어국문학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든 이가 공감하듯, 최근 학생들은 국어국문학과의 교육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변화를 요구하기도 한다. 어떤 학생들은 국어국문학을 전공하는 자신을 비하하기도 한다. 발표자는 이런 학생들의 반응을 그들의 인성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 생각한다.

3. 교육 방법의 변화에 따른 교육 내용의 변화 추구

그렇다면 앞으로 국어국문학, 그중에서도 고전서사문학 분야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대개 교육 내용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한다. 물론 교육 내용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교육과정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없다면, 교육 내용의 변화는 그저 기존 교육 내용의 부분적 수정에 그치고, 교육 방법은 여전히 이론을 전달하는 형태뿐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보다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교육 방법의 변화를 모색하면,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교육 내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어떻게'를 고민해야 하는 것인가?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하는 학생들 대다수는 국어국문학을 학문 연구의 대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국어국문학은 근대적 민족국가 존립의 근거가 되는 학문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국어국문학의 본령을 탐구하는 연구자를 꾸준히 배출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면서도 사회 진출을 꿈꾸는 다수의 학생들을 위해 학과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에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

이론 교육 일변도에서 벗어나려면 실습 교육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어국문학에서 무엇을 실습할 수 있을까? 쉽게 떠오르는 것이 문예 창작과 답사이다. 전자는 순수문학 창작 실습이고 후자는 학술적 차원의 실습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국어국문학과 학생 중 대학원을 진학하는 비율이 극히 적다. 그리고 순수문학 창작을 꿈꾸는 학생도 많지는 않다. 따라서 실습의 유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어학과 문학이 중심인 학과에서 무엇을 더 실습할 수 있을까? 발표자는 이 지점에서 국어국문학과가 근대적 의미의 문학주의로부터 벗어나 한국의 말과 글로 된 다양한 형태의 유무형 텍스트를 포괄하는 유연한 인식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작품의 문학성을 분석.도출해내기 위해 (문학주의의 관점에서) '문학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주요 작품과 선본만 주목하기보다는, 그런 평가로부터 소외된 텍스트의 맥락적 의미를 탐색하는(문학성 도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 필요하다. 같은 취지에서 국어국문학에서 텍스트의 생산을 '문학적 창작'에만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형태로의 '글쓰기'는 물론 '번역', '비문자 표현' 등으로까지 확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전서사문학에는 (역시 문학주의의 관점에서) 문학성이 떨어지지만 대중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은 작품들이 있다. 이들 작품을 문학성의 관점에서 분석하기보다는, 그 작품들이 인기를 얻게 된 지점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선본을 중심으로 주요 작품의 특징을 공부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이본들이 어떻게 내용을 변개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일지 추측해보고, 더 나아가 스스로 새로운 버전의 이본을 창작해보는 것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 작품을 수용자의 성향과 기호에 맞게 다시 쓰기를 한다든가 번역을 하는 실습도 필요할 것이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위한 다시 쓰기, 영미권 독자를 위해 작품 번역하기 등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매체 전환은 말할 것도 없다. 이미 매체 전환이 된 것들을 분석하고 비평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스스로 매체 전환을 시도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활동이 있어야 한다.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유형의 글쓰기에 관심이 많다. 다만 선호하는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번역을 포함한) 글쓰기의 유형들을 모두 열어두고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예창작실습' 과목처럼 창작(글쓰기)의

유형을 한정하는 과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캡스톤 디자인(창의적 설계 및 실습)’과 같은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교수자는 자신의 지식 범위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과제 수행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결과물에 대한 평가조차도 학생들이 스스로 객관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실습형, 프로젝트형 교육 방법을 통해 더 실험적인 과제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고전서사 원천을 바탕으로 상품이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거나, 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여타 예술 장르로 넘어가 새로운 작품 창작의 기반으로 활용한다거나, 광고카피와 같은 상업적 문구 제작에 모티프를 얻는 것 등을 떠올려 볼 수 있다. 디지털 인문학 도구를 활용하여 고전서사 데이터를 계량화하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품에 대한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거나 작품의 특징을 시각화하는 것 또한 절실히 요청된다.

4. 발표를 마치며

이번 발표를 위해 ‘대학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 찾아보았는데, 허무하게도 “교육기본법”이나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는 이에 대한 언급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교육학 연구자들도 이러한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목표나 목적 없이 대학 교육을 수행해왔는지 모른다. 그저 우리가 배웠던 것을 다시금 전달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연구자이고, 학생들은 대부분 연구자의 삶을 택하지 않는다. 그러한 점에서 연구와 교육은 명확히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어국문학은 어떻게 범위를 정하느냐에 따라 매우 좁을 수도 반대로 매우 넓을 수도 있다. 국어국문학이 한국의 언어와 문자로 된 모든 것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삼아 외연을 확장하고 학생들의 교육적 수요에도 부응하는 것이 오늘날의 위기에 대응하는 한 방법이 아닐까 한다.

엄태웅, 「대학 고전서사 교육의 목적과 방법 재고」에 대한 토론문

정제호(한국교통대)

이 토론을 맡게 된 순간부터 대학에 임용된 지 이제 2년을 갓 넘은 토론자가, 발표자 선생님께서 하시는 고전서사 교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어디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토론을 통해 도움은커녕 이 중요한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의문만 나열하진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고전서사문학을 담당하는 교원으로서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기에 배우는 자세로 몇 가지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다른 위기, 같은 대안

'대학의 위기', 전국의 모든 대학이 공통으로 느끼는 사안이면서도, 또 그 학교의 위치와 명성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밖에 없는 문제일 것이다. '벚꽃이 피는 순서' 대로 대학이 망할 거라는 농담 섞인 자조(自嘲)의 표현은 이제 현실이 되었다. 그래서 지방의 대학들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생존을 고민하고 있으나 성공적인 해결책을 내놓은 사례는 아직 찾기 어려운 것 같다. 이 위기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기에, 지금 내놓은 해결책이 미래에도 유효하다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위기감을 느끼면서도 무언가 대학이 갖는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되는 내용들은 의외로 전국적으로 유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국어국문학과'(혹은 한국어문학과 등의 명칭을 포괄하여)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은 발표자가 밝힌 것처럼 '문화콘텐츠'의 활용 및 실습 등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교육방법'으로서 '캡스톤 디자인'의 도입이나, 'PBL', '플립러닝' 등의 혁신교수법의 적용 정도가 추가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학습자의 기호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실용적 교육에 대한 기대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앞에서 밝힌 것처럼 위기는 대학마다 모두 다르다. 하지만 그 해법이 비슷하다는 것은 위기에 대한 진단부터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방대학의 국문학 전공 학생들에게 '문학주의'에 기반한 전통방식의 교육과정의 고수는 사실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매년 학생들이 받는 성적표처럼 교수들은 '취업률'이라는 이름의 성적표를 받게 된다. 겨우 40프로 정도의 성적표를 받아든 필자를 비롯한 지방 대학의 교원들에게 전통적 교육과정의 고수는 열등생에서 낙제생으로 나아가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모두가 안다.

문제는 모든 대학이 이러한 위기를 통감해야 하느냐는 점이다. 물론 상위권 대학이라고 해서 학생들의 취업률이 관심 밖일 순 없다. 그럼에도 취업률이 지상최대의 과제가 되지 않는 대학들에서는 '전통적 방식의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고전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꼭 전통적 방식의 교육과정이 제대로 된 교육방식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순수하게 문학 자체를 탐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모두가 포기하는 것 역시 옳은 방법인지 고민되는 것도 사실이다.

실용의 방식으로, 실습의 방법을 통해, 흔히 말하는 '지금의 교육'으로 교육과정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어국문학에 대한 본령을 탐구하고, 고전을 깊이 사색하고, 고전서사를 통한 문학사의 본질을 파악하는, 바로 그 자체를 다루는 대학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오랫동안 고전문학 연구와 교육의 최일선에 있었던 대학에서나마 실용보다 본질을 고수하여 우리 고전, 그리고 고전서사에 대한 열정있는 연구자들이 꾸준히 배출될 수 있길 바라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국문과가 아니라 굶는과’라는 오명을 씻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지방의 대학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실용적 교육과정과 다른 본질에 대한 고수가 적어도 어느 곳에서는 한편으론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발표자께서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2. 교육과정의 변화로 인한 부수적인 문제

교육과정의 변화를 시대의 흐름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혹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인정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학점은 정해져 있고, 그 한정된 교육과정 안에서 변화를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대학 자체에서 학생들에게 공통, 교양, 융합 교과목을 권장하면서 개개 학생들이 들어야 하는 전공 교과목의 수는 더욱 줄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전서사를 담당하는 교수자의 입장은 퍽 난처해진다. 고전서사를 학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문학개론, 문학사, 고소설, 구비문학 등등의 교과목을 담당해야 하는 것은 물론 문화콘텐츠 활용 및 기획, 디지털 인문학 적용 및 실습 등 개편된 교과목도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활용 및 실습 관련 교과목이 늘어나면서, 기존 교육과정을 통해 다양하게 학습했던 내용들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문제는 학습자들이 고전서사 작품들을 직접 탐독하고 그 의미를 찾아가는 교육에 대한 미흡 혹은 미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도 우리 고전소설 작품조차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기존 교육과정에서도 모든 작품을 다루는 것은 아니기에 이는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전보다도 고전서사 그대로를 다루는 교과목들을 더 줄일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에 이런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필자 역시 다양한 실습 및 활용 교육을 적용하며 학생들에게 고전을 탐독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듦을 안타깝게 생각해 여러 방식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바 있다. 플립러닝을 통해 ‘작품’들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강의 수강에 앞서 예습할 수 있게 한다거나, 작품을 미리 제공하여 읽어올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말한다. 하지만 이 역시 교육과정 안에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에 비한다면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변화가 계속된다면, <춘향전>, <홍길동전>을 직접 읽어보지 못한 국어국문학과 졸업생을 만날 수도, <금오신화>가 어떤 작품인지도 모르는 한국어문학과 졸업생을 마주할지도 모를 것이다. 변화하는 교육과정만큼 생길 수밖에 없는 교육의 공백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발표자의 고견을 듣고 싶다.

대학 교양 한문의 당면 문제와 개선 방안에 관하여

이승용(단국대)

대학 교양 교육에서 한문 교과는 단순히 한자, 한자어의 학습 및 한문의 독해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학 교양 교육에서 한문 학습의 효과는 좁게는 많은 한자어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말에 대한 이해를 돕고, 넓게는 기본적인 한문 독해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문으로 기록된 우리의 역사 및 문화의 전통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또 한문 교과를 학습함으로써 한문으로 기록된 原典이 많은 國文學·史學·哲學 등 여타 학문의 학습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역시 적지 않다. 한문 교과가 이러한 가치와 실제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학 교양 교육에서 한문 교과의 입지는 그에 미치지 못했고, 현재에는 그 입지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대학 교양 교육에서 한문 교과의 현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개선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한문 교과는 머지않아 존립의 위기에 당면할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현재 대학 교양 교육에서 한문 교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성균관대학교 기초한문의 실제 수업사례를 바탕으로 대학 교양 교육에서 한문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모색과 이를 위해 실제 교양 한문 교과에서 뒷받침되어야 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몇 가지 개선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1. 대학 교양 한문의 위기와 현황

한문 교육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으나, 크게는 두 가지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우리말 사용을 풍부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말에 포함된 한자어와 한자를 올바로 익히게 한다는 기초 교육으로서의 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인성 교육을 목표로 하는 교양 교육의 측면이다.[4] 이 두 가지 목표 중에 대학 교양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육은 후자에 가깝다. 그러나 현재 대학 교양 교육에서 한문 교과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실용성의 문제와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한문 실력의 편차로 인해 교양 교육의 측면보다는 기초 교육의 방향으로 점점 더 경도되어 가고 있다. 그 원인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에 들어와 한문을 처음 접하는 수강생들이 적지 않아 한문 문장이나 한문 고전으로 구성된 교재와 이를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한문 문장 한문 교양에 대해 강의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각 대학에서 지속적으로 대학 교양에서 한문 교과의 시수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한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어려움 때문에 개설 강좌 당 일정한 학생 수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5] 이와 함께 또 최근에 대학 교양 교육에서 한문 교과와 관련하여 생각해야 문제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

4) 김영우, 「대학 교양 한문 교육의 방향 -인제대학교(仁濟大學校) 교양(敎養) 한문(漢文)을 중심(中心)으로-」, 『漢字漢文敎育』 27집, 2011, 320면.

5) 최근 수도권 대학의 기초한문 개설과 그 현황에 대해서는 심호남, 「대학 교양한문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향 연구」, 교양학연구 16집, 중앙대학교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2021. 참조. 이 논문에서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경희대의 교양 한문의 개설 현황과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성균관대학교는 유교(儒敎)에 기반을 둔 해당 대학만의 특수 사례에 가깝다는 이유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국 유학생들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서울·경기권에 위치한 대학이나 지방에 위치한 대학 가운데 중 중국인 유학생의 비중이 높은 학교에서 마주하게 되는 현상이다.[6] 이러한 현상은 대학 교양 교육에서 한문교과가 기초 교육의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가, 교양 교육의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와 다른 차원의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 수업을 운영해야 하는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문제와 연관될 수밖에 없으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2. 교양 한문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교강사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였고 수업내용이 수강생에게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의 문제는 수강생의 강의 평가에 가장 잘 드러난다. 본 장에서는 2021학년도 1학기 성균관대학교 기초한문 강좌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수강생들의 강의 평가 결과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 교양에서 한문 교과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7] 물론 이러한 연구 방법은 개별학교의 사례에 국한될 수 있지만, 각 대학에서 교양과 관련한 한문 교과의 수업 시수가 줄어들고 있고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공통된 상황에 직면하고 있기에 한문 교과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1. 교양 한문의 운영 사례와 실제

2021년도 1학기 기초한문(성균관대 인문과학캠퍼스) -중국 유학생 수 41명/총 수강생 65명[8]

1) 수업에서 인상 깊고 유익했던 점에 관한 수강생의 의견

· 한문을 통해 한국으로서 기본 소양을 쌓을 수 있고, 역사와도 관련 있는 본문들을 통해 흥미롭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한문을 처음 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주십니다.
· 한문에 대해 이렇게까지 깊게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 한문 산문을 읽으실 때 따로 ppt에 그 음을 적어두시지는 않으시는데, 빠르게 지나가 놓치는 음이 많습니다. ppt나 교안에 음을 적어주시면 더 편하게 수업내용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평소 어렵게만 느꼈던 한문 산문들을 문형부터 차근차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문형을 익히고 나니 긴 글이라도 차츰 그 내용이 보이기 시작하고 한문학 작품들을 읽을 수 있게 되어 좋았습니다.
· 유명한 고대 문장을 소개해 주셔서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한문을 배워야 한국어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6) 최근 대학 내 교양 교육 특히 한문 교과와 관련하여 중국인 유학생의 비율 증가에 대한 현상은 대학 내 교양 교육 중 한문교과와 관련된 중국인 유학생의 증가 추세에 대해서는 한새해, 「대학 교양교육에서 한문 교과목의 효율적 운영방안 - 서강대학교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 」,『漢字漢文敎育』46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9, 161면.
7) 2021년 1학기 성균관대학교 기초한문 강좌는 4강좌가 개설되었다.
8) 인문과학계열(9명), 사회과학계열(22명), 한문교육과(1명), 컴퓨터교육과(1명), 국어국문학과(1명), 프랑스어문학과(1명), 중어중문학과(1명), 철학과(1명), 문헌정보학과(2명), 심리학과(1명), 경제학과(1명), 글로벌경제학과(2명), 경영학과(16명), 글로벌경영학과(1명), 영상학과(2명), 컬처앤테크놀로지(1명), 미디어커뮤니케이션(2명)

2) 수업에서 느꼈던 어려움과 개선 방안에 대한 수강생의 의견

· 중한 대조 번역 해석이 설명할 때 화면에 써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설명이 지나치게 디테일하고 같은 것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시는 면이 있으나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 그런 것 같다. 그 외에는 한문 발음을 받아적기가 조금 바쁘다.
· 선생님이 ppt 아래에 주석을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 ppt에 글자 말고도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2. 2021년도 1학기 기초한문(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중국인 유학생 수 15명/총 수강생 47명[9)]

1) 수업에서 인상 깊고 유익했던 점에 관한 수강생의 의견

· 고사성어에 담긴 의미를 심도있게 알아 갈 수 있어서 좋았다.
· 내가 한자를 읽게 될 수 있다는 게 인상깊었다.
· 사자성어에 관한 고사도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더불어 수업을 적당한 속도로 알려주셔서 이해하기 좋았습니다.
· 일상과 밀접한 내용 삶과 연결시켜 주신다.
· 재밌게 수업을 진행해주셔서 한문 공부가 재밌습니다.
· 한문 글을 너무 잘 해석해줍니다.
· 한문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얻었고, 고문에 많이 쓰이는 고정식을 많이 배웠습니다.
· 한문이라는 딱딱한 과목을 최대한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주십니다.

2) 수업에서 느꼈던 어려움과 개선 방안에 대한 수강생의 의견

· 수업 시간에 질문을 많이 던지면 좋겠다.
· 수업 내용 좀 어렵다.
· 양이 너무 방대하여 어떤 것은 필수적으로 외워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힙니다. 음과 뜻 둘 다 외우기에 조금 버거운 것 같습니다.
· 외울 것이 진짜 너무너무 많습니다. 전공과목 같습니다. 이건 기초한문이 아니라 심화 한문인 것 같습니다.

2.2. 교양 한문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1) 수강생의 학습 능력과 수준 편차를 고려한 수업 운영
- 한자어, 고사성어 등 기초적인 내용과 문장 독해의 적절한 분배
2) 효과적인 교수 방법의 모색과 활용
- 교수 내용과 관련된 영상매체와 시각 자료
3) 온라인 학습공간(i-campus)을 통한 피드백과 소통
- 수강생의 학습 수행 정도와 건의 사항 파악

9) 인문사회 캠퍼스 : 인문과학계열(2명), 경영학과(2명), 경제학과(1명), 정치외교학과(1명),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1명), 연기예술학과(1명), 영상학과(1명), 의상학과(1명) / 자연과학 캠퍼스 : 기계공학부(1명), 물리학과(1명), 생명과학과(1명), 소프트웨어학과(1명), 수학과(1명), 스포츠과학과(11명), 식품생명공학과(4명), 신소재공학부(3명), 융합생명공학과(4명), 의예과(1명), 전자전기공학부(4명),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2명), 화학과(3명)

<참고문헌>

성균관대학교 교양한문 편찬위원회,『敎養漢文』,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6.
우리한문학회,『사자성어 따라쓰기 365+』, 문자향, 2016.

김영우,「대학 교양 한문 교육의 방향 -인제대학교(仁濟大學校) 교양(敎養) 한문(漢文)을 중심(中心)으로-」,『漢字漢文敎育』27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1.
이돈석,「대학교양한자교육(大學敎養漢字敎育)의 현황(現況)과 교재분석(敎材分析)」,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漢字漢文敎育』35집, 2014.
이승용,「대학 교양 한문의 운영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 성균관대학교 기초한문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韓民族語文學』92집, 한민족어문학회, 2021.
심호남,「대학 교양한문교육의 현황과 개선방향 연구」, 교양학연구 16집, 중앙대학교 다빈치 미래교양연구소, 2021.
한새해,「대학 교양교육에서 한문 교과목의 효율적 운영방안 - 서강대학교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 」,『漢字漢文敎育』46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9.
한새해,「대학을 둘러싼 한문교과목 운영 현황의 실제와 과제 - 서울 소재 D대학교와 S대학교의 국문과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漢字漢文敎育』48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20.

「대학 교양 한문의 당면 문제와 개선 방안에 관하여」에 대한 질의문

김종민(성균관대)

이승용 선생님은 대학 교양 한문의 운영과 개선 방안에 대한 고견을 이미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선생님이 이미 짚어보신 바 대학 교양 한문의 최근 추이를 고찰하고 보다 더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발표문에서는 대학의 교양 한문이라는 교과목이 갖는 시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대학 교양 한문의 위기'로 진단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한문 교과가 존립의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예측하였습니다. 교양 한문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는 1) 수강생의 학습 능력과 수준 편차를 고려한 수업 운영, 2) 효과적인 교수 방법의 모색과 활용, 3) 온라인 학습공간을 통한 피드백과 소통, 이렇게 세 가지를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발표자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면이 많고, 특별히 그에 대한 반론이나 이견을 낼 만한 것은 없습니다. '대학 교육의 위기와 국어국문학의 변화 방향'이라는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를 상기했을 때, 저는 발표자의 의견에 보탬이 될 만한 생각거리를 말씀 드리는 것으로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발표문의 서론에서 한문 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정도로 설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사용을 풍부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말에 포함된 한자어와 한자를 올바로 익히게 한다는 (1) 기초 교육으로서의 측면, 다른 하나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인성 교육을 목표로 하는 (2) 교양 교육의 측면입니다. 발표자께서는 대학 교양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육은 교양 교육의 측면에 가깝다고 보고, 현재 대학 교양 교육에서 교양 교육의 측면보다는 기초 교육의 방향으로 점점 더 경도되어 가고 있는 점을 문제시 하셨습니다.

저는 교양 교육으로서의 측면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학 교양한문의 위기를 타개하고 개선해 나가자면 기초 교육으로서의 측면을 새롭게 인식해야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대학의 교양한문 커리큘럼이나 교재를 놓고 봤을 때 (2)의 목표인 '전통문화의 계승이나 인성 교육'을 제대로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그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교재마다 다양한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로 대학 교양한문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문학·사학·철학(이밖에 지리학·수학 등) 등 여러 학문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서 학생들로서는 다른 과목명의 대학 교양강의에서 공부해야 할 양보다 더 많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교양한문은 문학에만 한정해서 말하더라도 한문산문, 한문소설, 한시 등을 다 조금씩이라도 학습내용으로 삼고 있고, 『논어』·『맹자』를 비롯해 『노자』·『장자』·『한비자』 등도 학습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은 교재를 만든 분들이 다 고심해서 가려 뽑은 고전명문들이고 학습자를 고려해서 일부분을 발췌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한문' 교과가 필수과목이 아니라 선택과목에 속해 있어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중에는 중고등학교 6년동안 한문 과목을 전혀 배운 적이 없는 학생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생들은 대학교에 개설된 '교양한문' 강의를 기피하기도 하겠지만 졸업 이수학점을 채우기 위해 부득이하게 수강하기도 합니다. 또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몇

년간 한문 과목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한문을 친숙하게 여기거나 한문 과목에 자신있다고 여기는 학생은 극소수인 듯합니다. 대학 교양한문 강의에서 광범위한 학문분야를 망라하거나 학습량을 과중하게 설정하는 것은 아닌지 교강사나 교재집필자는 늘 돌아보아야 하지 않는가 합니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대학 교양한문'이 '대학 한문전공강의'와는 입각점이나 강의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한 초석으로서 '초급한문'이 있다면, '교양한문'은 여러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그들 자신의 전공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학습내용과 대학졸업 후에도 사회인이자 지성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지식을 담는 정도로 교재를 구성하고 학습범주와 학습량을 대폭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의 전공이 매우 다양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대분야로 나눌 수밖에 없겠지만 이를 테면 가칭 '이공계 학생들을 위한 교양한문'과 같은 강좌에서는 그 전공에서 많이 쓰는 용어 위주로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을 좀 더 안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의학 용어나 법률 용어 역시 수강생에 맞게 학습내용으로 포함한다면 미래의 의료인, 법조인은 물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한자 학습을 통해 체득할 수 있어서 유익하다고 여길 듯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 드린 이러한 내용은 한문이 아닌 한자의 차원이었습니다만, '교양한문'이라는 한 학기 대학강의에서 '한자'만 강의하자는 주장은 아닙니다. 한문고전 중 명문장과 명시를 일정 정도 학습하도록 해서 인문학적 소양과 인문적 지성을 기르도록 하는 것도 여전히 유지되어야 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공대 학생들이 주로 듣는 강의에서는 전통시대의 기술자들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의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옛 시대의 의원들을 많이 소개하며 인간애와 생명존중사상이 부각된 작품들을 제시하면 좋을 듯합니다.

정교하지 못한 제안에 불과하지만, 한문학 전공 강의와 같은 인상을 주는 현재의 대학 교양한문 강의를 혁신하여, 비전공자의 입장에 서서 학습량을 줄이고 각자의 전공에 밀접한 정보를 배울 수 있는 길도 모색해보는 것은 어떠한지 논의할 만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공의 대분야로만 나누더라도 비교적 비슷한 전공의 학생들끼리 수강하도록 유도하여 교수자나 학습자나 효율을 제고할 수 있고, 교과목을 개설할 때에도 전공의 대분야별로 강의 시수가 요구되므로 대학 측에 강의 분반의 증설을 건의할 수도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선생님께서 그동안 교양한문을 강의하시면서 수강생의 학습 수행 정도와 수강생의 학습 능력에 차이가 있음을 많이 느끼셨을 듯한데요, 교수자로서는 늘 겪는 문제일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이러한 문제에는 평소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시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또한 이와 결부되는 성격도 갖는 문제이자 발표문에서도 지적하신 점과 닿아 있는 질문을 한 가지 드립니다. 외국인 유학생 중 특히 중국인 유학생의 비중이 매우 커진 상황 하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각자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교강사가 행할 수 있는 방법과 과거와는 변화된 수강생 구성 환경에서 한국인 학생들의 강의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견도 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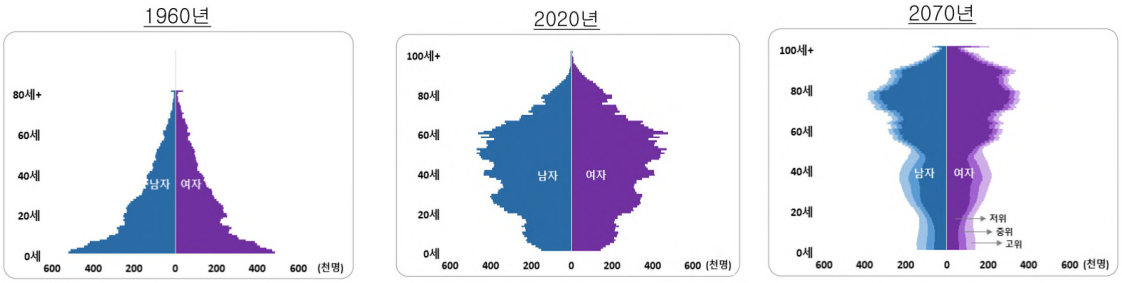
발표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주된 기조로 삼으면서 교양한문을 담당하는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게 된다면 앞으로 대학 교양한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희망하며 두서없는 질의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실 밖으로 나온 구비문학 강의 설계와 실천 방안

김경희 (가천대학교)

1. 문제 제기

학령인구의 감소와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대학 교육의 정체성과 방법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20년 1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3월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국 대학 입학 정원은 약 49만 2000명이다. 그러나 고3을 졸업하는 만18세 학령인구는 2022년 47만 3000명으로 입학 정원보다 1만 9000명 적다. 2040년 28만 3017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현재의 대학은 새로운 길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총인구도 2020년 5,184명에서 2070년 3,766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총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학령인구의 감소, 노령인구의 증가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디지털화로 AI 인공지능과 같은 최첨단산업의 발달로 인문학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학 교육 내에서 구비문학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통계청 인구 피라미드, 1960년-2070년]

2. 교육제도에 나타난 현실 인식

2.1. 학과명 변경과 현실 인식

2000년대 국어국문학에 대한 학과명의 변동은 국어국문학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였다. ‘국어’에 대한 자국 중심의 학과 정체성에서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조명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문학, 글로벌한국학 등의 이름이 호출되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국어국문학창작, 미디어 문학 등 새로운 매체와의 결합이나 다른 학문과의 통합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고, 인문학의 위기 속에서 국어국문학의 정체성 또한 재정립될 것이다.

2.2. 교과목의 변화에 나타난 현실 인식

국어국문학과 내에서 고전문학, 현대문학, 국어학으로 나뉘고 고전문학 내에서 구비문학, 고전소설, 고전시가, 한문학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구비문학의 교과목은 구비문학개론, 민속학개론이 일반적이었다면, 현재는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면서 한국구전이야기의 탐색, 구비문학의 세계, 구술과 연행, 문헌설화읽기, 이야기와 스토리텔링, 신화와 문화콘텐츠, 구비문학과 원형콘텐츠 등의 이름으로 변화해 왔다. 이는 구비문학론에서 세부적이고 특화된 교과목으로 당대 현실적 요구가 수용된 결과이다. 2000년대 콘텐츠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콘

텐츠’라는 합성어가 접목되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이 화두가 되면서 디지털인문학, 디지털리터러시 등이 나타나고 있다. 더 나아가서 AI(인공지능)인문학이 출현하고 있다.

2.3. 고교 학점제에 나타난 현실 인식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미래사회에 대응하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위해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학점제 부분 도입이 시행되고 있다. 고교학점제를 통하여 수업량의 기준을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하여 학점 기반 교육과정을 적용, 개별성장 및 진로 연계 교육을 위해 교과목 재구조화, 지역 연계를 통한 교육과정 다양화를 시도하고 교과를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도입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래형 교과서, 미래형 학교 공간의 변화를 꾀하고 학교 밖 학습경험으로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대학, 기업 등과 연계 및 현장 전문가를 활용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고등학교 과정의 변화는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과 밀접한 관계이기에 대학교육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3. 구비문학 강의 설계와 실천 방안

3.1. 지역연계과정을 통한 지역학 발굴

지역학은 유무형의 지역문화자산으로 장소 마케팅, 장소 브랜딩, 지역재생 등 지역의 문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수도권 중심중의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 쇠퇴, 축소, 소멸의 위기에 맞서 지역을 살리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지역과 연계한 교과목의 발굴과 실천으로 구비문학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구비문학 교과목은 각 학교 국어국문학과 홈페이지 교육과정을 참고하였다. 그러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역을 고려한 교과목으로 지역문학론, 구비문학의 이해와 현지조사, 한국전통문화의 현장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원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도서해양민속연구, 민속신앙연구, 민속예술연구, 민속학 방법과 민속자료조사, 생애담연구, 영상민속학연구의 강의가 특징이다. 또한, 구비문학특수연구는 한국구비문학 연구에 요구되는 특수과제들을 설정하여 심층적으로 탐색한다. 최근 주요한 연구주제를 검토하여 한국구비문학연구 흐름을 이해하고 새로운 관점 및 방법론을 모색한다. 시민인문학지역문화심층연구는 한국문학을 시민성과 지역성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세미나이다. 한국문학 및 인문학과 시민성의 관계를 탐구하고, 지역문학의 역사와 현재를 검토한다. 시민성에 결합하는 한국문학 담론의 계보를 살펴보는 한편, 한국문학의 지역적 원천에 대한 검토를 통해 문학과 공간의 관계 등을 다룬다. 지역학은 특정 지역에 대한 총체적이고 객관적인 이해를 수반한다. 『오래된 미래-라다크로부터 배우다』의 저자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는 언어연구를 위해 히말라야 산맥의 라다크를 방문하여 그들의 삶 안으로 들어가면서 라다크인들의 내면적 세계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찾아내는 성과를 얻는다. 지역학은 표면적인 지표와 더불어 인간 삶의 내면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구비문학에 드러난 사람들의 삶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3.2. 교과목 모듈화와 학점교류의 확대

2022년 고교학점제를 경험한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오는 2025년에 국어국문학과를 선택하여 교과목을 신청하는 학생들의 선호와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구비문학에 흥미를 가지고 전공선택을 하는 학생이나 대학원에 진학하여 구비문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선택지를 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는 고교에서 대학, 대학원

으로 이어지는 연장선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학 교육은 보편적 소양 교육을 받은 고등학생이 심화된 기초교양을 쌓고 전문교육으로 실력을 쌓아 대학원에서 깊이 있는 연구영역을 탐색하기 위한 디딤돌을 닦는 발판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앞서 제기한 구비문학을 지역학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각 대학에서 구비문학과 관련된 교과목은 한 과목이 일반적이다. 그 하나는 바로 구비문학개론이다. 구비문학개론을 통하여 구비문학 전반에 대한 상황을 학습하게 된다. 가천대학교의 사례로 보면, 구비문학개론은 구비문학과 스토리텔링으로 바뀌었다. 구비문학과 스토리텔링에서 구비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스토리텔링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학습한다. 이후 캡스톤 디자인 고전과 문화콘텐츠 수업에서 고전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을 실습한다.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는 2011부터 도시화, 산업화로 사라질 위기에 있거나 변화를 겪고 있는 지역공동체를 조사해 경기마을기록사업 시리즈 책자를 현재까지 23권 발행하였다. 기본적인 교과목인 구비문학개설을 중심으로 지역학 연계의 교과목과 수업 내용을 비교해 보았다.

교과목	수업 내용
마을 기록	마을의 유래, 마을 사람들의 일상생활, 생활 용구들, 세시풍속, 일생 의례, 신앙, 이야기와 노랫소리
구비문학개설	**구비문학개념,설화, 민요, 무가, 판소리, 민속극, 속담, 수수께끼, 구비문학에서 기록문학으로의 이행, 구비문학의 현지조사**
라키비움 심층연구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s), 박물관(Museum)의 결합, 라키비움(Larchiveum)의 이론과 현황을 검토, 정보와 문화, 지식과 예술이 공존하는 인문학 공간의 구축 전략
시민인문학 지역문학	시민성과 지역문학의 역사와 현재를 검토, 문학과 공간의 관계
고전과 문화콘텐츠	마을 탐색, 마을 이야기 채록, 마을의 장소 블랜딩, 장소마케팅, 마을콘텐츠개발 실습

각 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이루어지는 구비문학강좌에 대해 학점교류를 통해 공유한다. 양질의 수요자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을 구축한다. 또한, 교수자와 협력하여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수업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결론을 대신하여: 구비문학개설 서문

'먼 산 보고 절하는 방아'나 '하늘 보고 주먹질하는 절구'도 이젠 都會에서 볼 수 없게 되었다. 농촌에는 아직도 남아있으나, 정미소가 방방곡곡에까지 들어서면 머지않아 우리 관습에서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나 이 소박한 수수께끼가 **구비전승의 자료로 채록**되고, 문자화되면 먼 뒷날, 우리의 후손들은 '하늘'과 '산'을 인식하듯이 이것을 불면의 고전으로 소중히 여길 것이다. 다시 童心을 회고해 보자. 나는 '하늘 보고 주먹질'하는 그 버릇없는 절굿공이를 미워하면서도 '먼 산 보고 절하는 방아'를 귀엽게 생각했었다. '하늘은 아버지, 땅은 엄마, 해는 누나, 달은 언니, 그리고 나는 별이라는 童心은 곧 신화요, 또 원시의 사고인 것이다. **동심에 신화가 있고, 신화에 종교, 철학 그리고 문학이 있다. 동요나 민요에도 우주의 섭리가 소박진솔하게 내포되어 있고, 인류의 심성이 강렬하게 메아리치고 있다. 구비문학은 정녕 이런 세계에 파고 들어가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자료

각 대학 국어국문학과 홈페이지 교과과정 참고

교육부,「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안」, 2021.

경기도문화원연합회·경기문화재단,『다산이 그리워한 마을 마재』, 경인일보사, 2014.

김경희 외,『모두의 마을』, 이담북스, 2022.

경기도메모리 https://memory.library.kr/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서는 경기도메모리(https://memory.library.kr/)를 통해서 경기도 발간 자료, 사진, 영상, 구술, 기증자료까지 다양한 자료를 한 곳에 모아 제공

지역N문화 https://www.nculture.org/

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20-2070」, 2022.

서울학연구소(각 구의 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화성시 문화재단), 인천학연구원. 충청학, 충북학연구소, 전북학연구센터, 호남학연구원, 부산연구원, 울산연구원, 경남학연구센터, 대국경북학, 제주학연구센터, 도서문화연구원 등 각 지역학에 특화된 연구소, 문화원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오래된 미래-라다크로부터 배우다』, 녹색평론사, 1991.

논저

김춘식,「지역학으로서 나주학의 발전 방향과 전망」,『역사와 교육』31, 동국대학교 역사교과서연구소, 2020.

박준범,「학습자중심 모듈형 의사소통교육 수업의 교육적 효과에 관한 연구」, 『리터러시연구』22, 한국리터러시학회, 2020.

장덕순·조동일·서대석·조희웅,『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71.

강의실 밖으로 나온 구비문학 강의 설계와 실천 방안에 대한 토론문

서유석(경상국립대)

이번 국어국문학회 학술대회 주제는 “대학교육의 위기와 국어국문학의 변화 방향”입니다. 본 발표문도 이러한 주제에 맞는 논의를 펼치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대학 내 구비문학 교육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토론자는 발표자 선생님의 견해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 국어국문학과에서 이루어질 구비문학 교육의 몇 가지 방향성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1. 구비문학이라는 전공과 대학교육의 현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국어국문학과 내 다양한 세부 전공들 중에서 구비문학 교육의 현실 반영이 가장 빨랐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소위 ‘문화콘텐츠’라고 불리는 분과학문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무렵부터 대학 내 많은 구비문학 수업들이 과목명 변경을 통해 변화하는 세상의 모습에 적응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수업들은 이미 진행된지 오래이며, 앞으로 이러한 변화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문입니다만, 굳이 과목명을 바꾸지 않더라도, 구비문학 관련 수업 내에서 문화콘텐츠적 요소를 반영한지는 오래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보다, 그렇게 바뀐 과목명처럼 실제 수업이 그러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근 15년 전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설립될 때 이루어진 ‘문화원형’ 사업은 국문학 내 많은 세부전공들의 참여가 가능했지만, 문화원형 사업 종료 후 지금의 문화콘텐츠진흥원의 사업은 문화콘텐츠 아카이브나 문화정책, 문화기술 쪽으로 옮겨간 지 오래기 때문입니다. 수업명은 혁신적으로 바뀌었어도, 예전에 ‘구비문학론’이란 수업에서 이루어지던 문화콘텐츠적 요소의 반영이 바뀐 수업명만큼 그 내용도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토론자인 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반성의 의미가 더 크기도 합니다.

2. 고교학점제와 대학입시

고교학점제는 저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입시와 관련된 정책이 연속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진행된 적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고교학점제가 대학 교육의 끼칠 영향은 오히려 겁이 나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지역에서는 역설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문이과라는 구분이 없어진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우수한 이과 학생들이 학벌을 위해 문과로 진학하지만, 지역에서는 그 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오히려 취업에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이공계, 의약학, 간호계열 학과에 우수한 문과 학생들이 대거 진학해서 소위 ‘MSC(수학, 과학, 컴퓨터)’ 기초 능력의 약화로 대학 교육 일선이 무수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교학점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게 관련학과 진학에 유리한 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표문에서 말씀하시는 큰 방향성은 당연히 동의하지만, 갈수록 서울과 지역, 그리고 수도권 소재 대학과 지방 대학의 격차가 벌어지는 현실 속에서 고교학점제를 일선 학과가 입시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주어질지 의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질문이라기 보다는 선생님과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싶기에 올립니다.

3. 지역학과 구비문학

발표자 선생님과는 사실 몇몇 사업을 함께했던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감히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생님께서 수업의 결과물로 만들어놓으신 자료를 보고 감탄하기도 하고, 감명을 받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발표문이 제시하는 것처럼 지역연계과정을 통한 지역학의 발굴이나 교과목 모듈화를 통한 학점교류의 확대는 의미 높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하게 소위 ‘지역학’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물들은 수는 정말 많습니다. 특히 지역 내 대학들은 지자체나 지역 내 문화기관의 작은 지원을 받아 비슷한 결과물들을 도출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모두 ‘지역학’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으나, 모두 자신들의 세부전공 내에서의 ‘지역학’일 뿐, 실질적인 ‘지역학’ 혹은 ‘지역문화’의 전체적인 조망에는 이르지 못하는 듯 싶습니다. 더 나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몇 사례들은 국어국문학 내 구비문학적 측면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지만, 사회학, 인류학, 혹은 언론정보학이나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도 거의 동일한 결과물들이 제출되고 있는 것을 여러번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구비문학이 할 수 있는 지역학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발굴된 지역학은 기존의 구비문학과 어떤 차이점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 역시 현장에서 언제나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제 자신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3분과

대학 교육의 위기와 현대문학의 변화 방향

디지털 네이티브와 새로운 시적 감각

- 문학의 변화에 대응하는 문학교육

김지윤 (숙명여자대학교)

1. 디지털 시대의 문학[1)]

멀티미디어 환경에는 문자, 그래픽, 음성, 영상 등이 혼합 처리되며 서로 다른 미디어들의 부호가 디지털 부호를 사용하여 서로 융합되거나 혼합되어 이용된다.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전통적 문학양식의 틀을 벗어난 읽기와 쓰기 경험을 하고 있고 새로운 독자층이 되어 이제 프로슈머에서 더 나아가 플래티셔로 진화하고 있다. 작가들의 창작환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정보기술,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문학은 종이 지면을 떠나 북토크, 낭독회 등의 행사나 유튜브와 팟캐스트 등의 소셜미디어,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직접적으로 독자를 만나기도 한다.

현대의 경험들은 상당부분 탈(脫)내러티브적이다. 기존의 '서사'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복잡성이 특징이며, 매우 시각적이며 이미지가 더욱 강조된다. 디지털미디어는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이미지를 포함하며 하이퍼사실주의를 추구한다. 기존 이미지를 가져오는 대신 이미지 요소와 양식이 다양하게 접합되어 형식적으로 혼종적이다.

디지털 문학[2)]은 이미 해외에서 실험, 창작되며 연구[3)]도 이루어지고 있다. 시의 경우 하이퍼텍스트, 키네틱 시, 홀로그래픽 시(holopoetry), 컴퓨터 동영상, 디지털 비주얼 시, 인터랙티브 시 등 많은 시 형식이 해외 문학계에서 실험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컴퓨터 언어를 바탕으로 한 '코딩'을 시에 적용시킨 코드 시 (code poetry)도 도전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새로운 디지털 시들은 다양한 운동성과 언어적 형태의 변화를 보여준다. 전자 텍스트는 모호하고 불안정하며 유동적인 텍스트이며 웹 공간은 차원을 늘리고 분산[4)]시킨다. 디지털 타이포그래피[5)]는 시에서 새로

---

1) 이 발표의 일부는 필자의 우리문학회 제127차 정기학술대회 발표문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미적, 언어적 전위 - 2010년대 이후 시를 중심으로」(2022. 1. 20)의 연구를 심화 확장시킨 것이다.

2) Strehovec은 디지털시가 "애니메이션시, 인체 및 시각 디지털 시, 디지털 사운드시, 인터랙티브시, 코드시, 시 생성프로그램을 포함해 시의 특징을 가진 디지털 텍스트 및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형태를 취하는 자체 장르"로 폭넓게 정의한다. (Strehovec, J. Text as a loop/On the digital poetry. In MelbourneDAC, the 5th International Digital Arts and Culture Conference. May 19-23, 2003) 디지털 문학은 전자 문학의 한 형태로 다양한 방식으로 시에서 구현된다.

3) Archambault, L. Carlson, D. L. Poetry in motion: using VoiceThread to prepare 21st century. In Society for Information Technology&Teacher Educ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2011, March, 4265-4272.
Koskimaa, R. Digital literature: from text to hypertext and beyond. Dichtung Digital. *Journal für Kunst und Kultur digitaler Medien*, 2000, 2.6: 1-4.(2011, March).
Wardrip-Fruin, N. Reading digital literature: Surface, data, interaction, and expressive processing. *A Companion to Digital Literary Studies*, 2008, 163-82.
Simanowski, R. *What is and to what end do we read digital literature?. Literary Art in Digital Performance*: Case Studies and Critical Positions, 2008, 10-17.
Seiça, Á. Kinetic Poetry. Electronic Literature as Digital Humanities Contexts, Forms, and Practices, 2021.

4) Giovanna di Rosario, Digital Poetry: a Naissance of a New Genre?, Carnets, Première Série - 1 Numéro Spécial 2009, posto online no dia 16 junho 2018, consultado o 01 maio 2019. URL : http:// journals.openedition.org/carnets/3762 ; DOI : 10.4000/carnets.3762.

5) 문학의 디지털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연구로는 하트퍼드셔 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인 Barbara Kay의 The behaviours of fluid character forms in temporal typography(Kay, 2012)가 있으며, 이 논문에 기존

운 감각을 형성하고 있고, 구술성이 높아지며 청각적 이미지도 변화하고 있다. 시(언어 텍스트)와 이미지(시청각) 사이의 관계는 현대문학에서 새롭게 탐구될 필요가 있다.

2. 시의 제3구술성[6]과 CMC의 영향

디지털원주민 세대는 일방 통신 매체가 아닌 쌍방 통신 매체를 경험하며 성장했고 공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와 소셜네트워크, 디지털 기기가 일상화된 세상에서 대부분의 생애를 보냈다. 이들에게 소통은 매우 큰 욕구이고,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다. 문자와 이모티콘을 섞어 사용하며 음성과 이미지와 문자가 섞인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한 세대에게 문자만으로는 표현이 되지 않는 지점이 존재한다. 이들이 보여주는 미적, 언어적 실험은 자신의 감각을 문자라는 단일한 매체를 통해 드러내야 하는 것의 한계성을 극복해보려는 시도이자 확장된 소통욕구에 가깝다.

이 시대의 시적 감각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요소는 청각적 감각의 차이다. 소리의 디지털화는 소리의 개념을 확장시킨다.[7] 새로운 소리들은 녹음 가능하고,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전파되며 여러 양상으로 진화되고 변이된다. 이는 소리를 듣고, 느끼고 전달하는 방식을 바꾸며 문자에도 영향을 미친다. 텍스트, 이미지, 음성이 경계가 불분명하게 뒤섞이는 것은 최근 시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현상으로 CMC(Computer-mediated-communication)의 영향[8]이라고 볼 수 있다. CMC가 디지털원주민 세대에게 미친 영향 중 하나는 문자를 이미지와 음성이 결합된 형태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TV, 유튜브, SNS기반 개인방송 플랫폼 등에서 ‘마음의 소리’를 자막 형태로 제공하는 형태가 일반화되고 대중화되면서 심지어는 ‘생각’조차 문자화되었다. 마음속의 이야기임에도 자막 텍스트와 함께 제공되면서 음성 지원의 효과를 갖는다. 진짜 소리가 들리지는 않는다 해도 시청자들에게 ‘상상된 음성’을 들리게 하거나 혹은 실제로 독백하는 음성을 삽입하기도 한다. 마음 속 생각마저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은 소통의 극대화된 형태다. ‘문자화된 마음의 소리’는 글말보다 입말적 성격이 강하며, 구술성이 높아진 상황을 보여준다. 옹에 의하면 ‘구술’은 소리, 즉 음성에 의존하는 현상이며, 발화되지 않은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음성과 관련을 맺는다고 보았다.[9]

글자의 음성화는 청각 지각을 기반으로 하는 구술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최근 다양한 오디오북의 등장과 약진[10]도 구술성이 높아진 시대의 문화 특성을 반영한다. 독서가 TTS(Text to Speech, 인공지능 음성기술)를 활용하는 방식도 다원화되었다. 귀로 들으며 텍스트를 바로 확인하고, 말을 녹음해 텍스트로 자동변환하며 SNS로 독서체험을 동시적으로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의 문자는 구술성이 높아지는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음성과 사운드의 결합으로 멀티 감각적 자극을 시도한다. 소리와 시각이미지의 결합은 영상은 아니지만 마치 영상과 같은 효과를 가져다주기도 한다. 현대의 대중은 SNS의 채팅과 메신저 기능을 사용하면서 ‘음성을 대신하는 문자’라는 개념에 익숙해져 있고, 이것이 문학 작품 속에도 자연스럽게 표출된다.

디지털 시대의 언어는 고정성과 지시성이 약화된 가볍고 가변적인 것이다. 지칭되고 지시되는 사물과 현상이 문법이나 화법으로부터 발생되는 언어의 논리성에 기대고 있다는 합리성[11]이 디지털

연구들이 정리되어 있다.

6) 이 발표문에서 시의 제3구술성과 관련된 부분은 필자의 글 「소리의 입구, 시의 출구:‘지금의 시’에 대한 단상」(『문학인』 6호, 2022)에서 논한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글 참조.

7) T. D. Taylor, Strange Sounds: Music, Technology and Culture, Routledge, 2014, pp.3-4.

8) CMC의 영향과 관련된 부분은 2019년 4월 27일에 있었던 제 120차 우리문학회 학술대회(“한국문학과 매체 - text에서 media로”)에서도 필자가 언급한 바 있다.

9) 월터 옹, 이기우 외 역,『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언어를 다루는 기술』, 문예출판사, 2018, 15쪽.

10) 2018년 기준으로 12세 이상 미국인의 44퍼센트에 해당하는 약 1억 2천 4백만 명이 오디오북 청취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시장 매출이 매해 두 자릿수 성장을 할 만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기도 하다. (이은호, “출판 오디오북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45(6), 2018, 34-38)

시대의 언어유희성, 즉 테크노루디즘(Technoludism)[12]을 통해 와해되는 부분들이 최근 시 속에서 드러난다. 지시성, 고정성이 약화된 대신, 유희성은 강화된다. SNS 등에서 다양한 디자인, 도안을 담아 디자인된 이모티콘이 언어를 대신하는 의사소통의 역할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언어 커뮤니케이션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멀티미디어의 시대는 수많은 오차의 발생으로부터 다양한 미디어 효과를 발생시킨다. 언어도 이에 영향을 받아 가벼움과 가변성이 높아진다.

컴퓨터 음성 인식 프로그램이 생산한 문장을 그대로 시로 옮겨 놓기도 한다.[13] 컴퓨터의 문장 생산력을 문학에 접목시킨 이런 시도는 낯설지만 새로운 감각을 전한다. 디지털적 언어 사용법에 가깝게 느껴지는 시들이 등장하는 것은 이 시대의 디지털 경험의 흔적이다. 장르, 형식, 기법,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사람들'과 그들의 '감각'이 달라지는 것이다.

3. 디지털 시각 이미지와 시각문화의 영향

20세기 근대모던예술운동에서 입체파. 미래파, 다다, 초현실주의, 예술지상주의, 구성주의는 모두 20세기 그래픽 언어에 영향을 주었다. 타이포그래피는 이 시기의 새로운 요구, 새로운 기회에 부응하는 수단이었다. 아방가르드 예술 운동가들은 글자에 대한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통해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커뮤니케이션의 도구가 되도록 기여하였다.

고정된 레이아웃이 있는 인쇄매체는 평면적이므로 정지된 상태에서 완료되기에 독자의 시각 환경 역시 고정되지만 인터넷이나 영상매체의 타이포그래피 환경은 다르다. 일정한 시간 동안 입체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중요한 시각적 요소로서 타이포그래피가 활용된다. 또한 '하이퍼 타이포그래피'는 3차원과 시간을 결합한 다차원의 사이버 공간을 통해 문자를 디자인적으로 배열한다. 21세기의 디지털 타이포그래피는 기존과 다른 방식의 '읽기'를 전제한다.

종이책과 같은 인쇄매체들은 전형적인 종이책 읽기의 방식인 한 줄 한 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아닌 문서를 스캐닝하는 방식의 읽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읽기'보다는 '보다'에 해당되는 시선 고정과 시선 운동의 형태를 보인다. 제이콥 닐슨은 인터넷 사용자들에의 시선 추적 실험[14]을 실시해 인터넷에서 보는 행위는 '훑기'에 가까운 빠른 속도의 쌍방향 활동임을 밝혔다. 최근의 많은 시들은 마치 인터넷 화면을 훑어보는 듯한 안구의 움직임을 유도한다. 스크린에 기반한 읽기 습관은 기본적으로 비선형적 방식의 읽기를 하고 있다. 여러 정보를 하나의 스크린에 모으는 멀티미디어 인터넷 안의 온라인 저작물들은 멀티트랙적이고, 분절적인데, 이런 정보

---

11)심희정, 김성호, 「디지털 미디어 예술의 특성과 감상성의 문제」, 『예술과 미디어』, 5(1), 한국영상미디어협회 예술과미디어학회, 2006, 90쪽.

12) 테크노루디즘(Technoludism)은 영어 단어 'Technology'(기술)와 놀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Ludus'를 합성하여 만든 용어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한 유희성을 나타낸다. (류현주, 『문학과 테크노루디즘』, 글누림, 2014 참조) 문학 속에 나타나는 테크노루디즘은 디지털 컴퓨터 매체의 쌍방향성과 즉흥성이라는 특징을 보여준다.

13)하나의 예를 리타 카터, 『뇌 맵핑 마인드』, 양영철, 이양희 역, 말글빛냄, 2007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시도된 구글시(google poetry)나 AI도구인 'verse by verse'를 통해 창작된 작품들도 이와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이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런 글쓰기가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지, 선택과 조합 행위를 한 것도 창작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제안 받은 문장들을 활용하는 것이 고유하다고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거나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컴퓨터가 생산하는 문장이나 디지털적 언어가 보편적 경험에 스며들어 시적 이미지 변화에 작용한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한인준의 시집 『아름다운 그런데』 (창비, 2017)나 이소호의 『불온하고 불완전한 편지』(현대문학, 2021) 등에서 유사한 시도가 나타난다. 『불온하고 불완전한 편지』에 실린 「소호의 호소」의 창작기법을 이소호 자신이 "2020년의 테크+다다이즘의 시 쓰기 방법"으로 규정하였고 "휴대전화의 자동완성 기능을 활성화"하여 휴대전화 자동완성이 추천하는 단어를 연속 선택해 시를 완성했다.

14) 니콜라스 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청림출판, 2011, 204쪽.

를 스캐닝하여 훑어보는 방식의 읽기는 여러 감각 중 시각성을 강화시키고 자극하는 방식이 된다.

특히 디지털 타이포그래피에서 문자를 읽는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타이포그래피는 유동성을 나타내며 언어 기호와 그림 기호의 관계를 미학적으로 탐구한다. 글자는 회전하거나 요동친다. “글자체에 입체공간을 형성하는 X, Y, Z축 모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기울어짐, 회전, 요동의 6가지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각기 다른 방식으로 문자가 읽힐 수 있”[15]게 하는 디지털 타이포그래피의 특징들이 시 속에 채택된다.

이소호 시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적 감각을 구현하며 문자와 시각이미지가 뒤섞여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소호의 『캣콜링』에서도 다양한 시각적 효과가 실험되고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니키 드 생팔 등 여성 현대 미술가들에게 영감을 받은 시편들과, 마치 미술작품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는 사진을 삽입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불온하고 불완전한 편지』는 한층 더 전위적인 선택을 한다. 이 시집의 시들은 적극적으로 ‘읽는 시’가 아니라 ‘경험하는 시’를 표방한다. 채널예스의 인터뷰[16]에서 시인은 “이 시집은 경험 그 자체”라고 말했다. 최근 시들은 시를 구전적 형식과 문자적 형식 모두와 관련된 예술적 경험(artistic experience)이라고 인식한다. 『불온하고 불완전한 편지』는 시집을 하나의 갤러리로 표현한다. 시들은 뉴뮤지엄(New museum)이라는 가상의 미술관 B4 제2전시실에 전시하는 작품들로 표현된다. 가상과 현실의 흐린 경계는 이 시대에 더 이상 특이하지도, 모순적이지도 않다. 작품은 시각적 이미지이며 거기에 덧붙여져 있는 문자들은 “각주”이고 시인은 “도슨트”라고 보는 이 시집은 갤러리 그 자체이자, “도록”이기도 하다. 시 쓰기의 방식에는 컴퓨터 명령어나 텍스트, 특수문자를 아스키코드로 변환해 만든 ‘밈’을 바탕으로 하는 아스키아트 등 다양한 기술이 도입되어 있다. 이소호는 이를 “온라인 점묘법”이라고 표현한다.

이제 글은 종이에 쓰여진 후 인쇄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작업이 바로 컴퓨터에서 만들어진다. 물론 문자 형태나 인쇄된 문학양식에 대한 지식과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기준을 바탕으로 디지털 작업을 수행한다고 해도 포스트프린트 시대의 작업들은 창작과정 자체에서 차이를 보이고, 더 쉽게 많은 기술적 요소들을 부가할 수 있다. 물론 시각시visual poetry나 특히 언어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 구체시[17]처럼, 아방가르드 문학에서 이미 실험한 것과 유사해보이지만 인쇄와 디지털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인쇄물 레이아웃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이퍼텍스트나 비주얼 컬쳐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고, 표현의 욕망이나 창작의식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최근 젊은 시인들의 시에 다양한 디지털 타이포그라피가 등장하는 것은 언어를 문자화한 ‘활자’ 자체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형될 수 있음이 당연시되기 때문이다. 20세기 모더니즘예술운동에서 아방가르드 문학가들이 펼쳤던 타이포그라피적 실험이 문학적 전위를 실험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디지털 시대의 타이포그라피적 시도는 문학적 전통의 전복, 혹은 문화적 액티비즘의 실천이라기보다는 고정된 문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시대의 감각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최근 시들에서 보여주는 장면들은 분절적인데, 디지털 문명 자체가 분절적 현상과 파편화된 이미지들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끊임없는 장면전환은 현대적 감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된 언어들은 실시간으로 계속 변화하며 다른 스트림으로 바뀐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이런 공간에서라면 장면이 갑자기, 계속적으로 전환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 움직임들은 빠르고

15) 장원선, 『새로운 디지털 타이포그래피의 표현 형식에 관한 연구 -웹에서의 타이포그래피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14쪽. (위의 타이포그래피에 관한 인용 역시 이 논문 13쪽 참조)

16) 신연선, “이소호, 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유일한 의도였다- 두 번째 시집 『불온하고 불완전한 편지』”, 『채널 예스』, 2021. 8.17, http://ch.yes24.com/Article/View/45634.

17) 구체시. 근대시는 상징주의 이후 언어의 시청각적 요소의 환기력과 물질적 에너지를 회복하려 셰아바르트, C.모르겐슈테른의 음향시, 미래파의 자유화법, 다다의 추상시, 물체시 등의 실험을 낳았다. 이후 lettrisme(문자주의)에 매개되어 제2차 세계대전 후 콘크리트 포이트리 운동으로 발전했다. 시각적, 청각적, 키네틱의 3분야로 대별된다. (콘크리트포이트리 concrete poetry, 두산백과. 2000)

무질서하며 반복적이면서도 끝없는 차이를 만들어내므로 정해진 패턴이 없고, 파편적이다. 그러나 이 무수한 이미지와 정보들이 라이프스트림에 유입되어 삶의 흔적을 만든다.

최근 많은 시에서 새로운 시간감각을 엿볼 수 있는데, 순서와 연결, 개연성이 있는 서사가 부재하며 시제가 뒤섞이는 혼돈스러운 시간 감각을 보여주는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것도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미디어는 선형적이고 진화론적인 서사로 기술되었던 인간의 역사 속에 포섭되지 않는 탈역사적이고 비선형적인 방식을 취한다. 볼프강 에른스트는 이것을 "시간 결정적 미디어(time- critical media)"[18]라고 불렀으며, 말과 문자 등 기호로 의미를 만드는 인간과 다르게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며 전달하는 고유한 시간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미디어는 기호가 아닌 신호를 처리하기 때문에 디지털 미디어의 물질성은 문화적 지형을 변화시켰다. 에른스트의 일련의 저작들에 따르면 기계적 저장 미디어인 사진, 축음기, 영화는 간헐적이고 순간적이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불연속적이고 분절적인 시간성을 만들어냈다. 고유한 방식으로 시간을 나누고 기록하고 조작하는 이러한 미디어는 디지털미디어로 변화하면서 더 짧은 시간 간격으로 정보를 처리하여 인간의 감각을 초과한다. 요즘 시 속에서 엿볼 수 있는 혼돈스러운 시간감각은 오히려 현대적 디지털 경험을 매우 현실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 있다.

4. 변화의 진행과 문학교육의 방향

디지털 이미지들은 다양한 기술을 통해 변형되고 전파되며 그 정보를 처리하는 다양한 사고나 감각을 필요로 한다. 어떤 정보를 이해하려고 할 때 인간에게는 다양한 심리적 과정이 일어난다. 인간의 인지나 감각은 언어표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이 과정은 언어에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매체에 따라 렌더링(rendering)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무수하게 다른 결이 생겨난다. 디지털 시대의 세계는 끊임없이 확장되고 변형되며 언어에도 명확한 한계가 없게 된다. 현대적 경험은 멀티트랙적이고 탈내러티브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창작자들은 이를 표현하기에 문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끼고, 새로운 감각을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한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부캐'[19] 열풍은 심지어 정체성조차 확장하려는 욕망이 팽배함을 느끼게 한다. 이 시대의 멀티 페르소나는 현실, 메타버스, SNS와 라이프로깅(life logging)으로 다원화된 현대적 개인의 특수성으로 인해 생겨났으며 이로 인해 시적주체와 인칭 표현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시대적 특성과 새로운 현대적 경험으로 인해 새로운 문학 독자의 '읽기'는 달라지고 있으며 '쓰기'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문학교육에서도 그 개념이 새로워질 필요가 있고, 교육의 범주도 확장되어야 한다. 탈내러티브적이고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복합성을 바탕으로 하는 현대의 미적경험을 반영하는 시들은 새로운 감각을 가져오며 문학의 지형을 바꾸는 주역이 될 새로운 세대들이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고 이에 대응하는 일은 중요하다. 최근 시들의 언어는 의도적으로 구조를 벗어나며 독자의 이해를 끊임없이 방해한다. 그것은 마치 수많은 하이퍼링크들 사이를 정처 없이 옮겨 다니는 인터넷 서핑처럼 비선형적이고, 끝없이 건너뛸 수 있는 무한한 징검돌처럼 흩어져 있다. 자꾸만 움직이기 때문에 의미는 포획되지 않으며, 시 읽기 자체가 형언할 수 없는 경험이 되게 한다.

가변적인 의미들 사이를 흐르는 무수한 시어들이 흩어지고 모이고, 다시 흩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루는 새로운 시의 감각과 정동들은 "인터넷 기반 디지털 시각문화에서 이미지가 무한히 생성되

18)정찬철, 「디지털 미디어는 어떻게 인간의 시간성과 기억 방식을 바꾸는가?」, 『문화일보』, 2020. 2. 11.

19)본래 게임에서 사용되던 용어이다. 온라인 게임에서 본래 사용하던 계정이나 캐릭터 외에 새롭게 만든 '부캐릭터'를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 일상생활로 그 용어의 용례가 확대되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정체성을 부가적으로 만들어 '자기'(itself)를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고 자유롭게 교환되는 순환”[20]을 연상시킨다. 뉴미디어 아티스트들이 2000년대 중반에 ‘포스트인터넷’[21] 예술을 선언한 이후로도 15년이 흘렀다. 인터넷과 사회적 연결망, 수많은 미디어들에서 취한 이미지들은 재배치되고 재조직되며 무수한 창작물로 재탄생되고 있다. 수정, 유포가 가능한 수많은 이미지들은 무수한 곳에서 출몰하며 새로운 물질성을 이루고 있다. 지금의 시인들은 인터넷에 국한되었던 개념과 형식을 다양한 미디어로 확장해가며 자신이 경험하는 디지털 시대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내고 있다. 수많은 사용자들이 비판, 편집하고 창작물을 수정하며 자신만의 창작물을 배포하는 시대에 소통의 방식은 크게 달라진다.

모니터와 핸드폰 화면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는 페이지 터닝 방식이나 읽기 방식에 있어서 인쇄매체와는 다른 시각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경험 자체가 달라진다. SNS의 채팅과 메신저는 음악, 이미지, 영상 등을 대화의 중간 중간 실시간 전송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인터넷은 텍스트와 함께 많은 음성 신호와 시각 자극을 제공하며 단일한 감각이 아닌 멀티감각을 요구한다. 다양한 시각매체의 영향을 흡수하며 그래픽과 텍스트, 영상이 연관되어 다양한 시각적 자극을 준다.

현대시 연구와 교육에서 디지털 문학과 관련한 논의들이 더 진전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대들의 특질과 그들의 내적 요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대의 문학, 더 나아가 미래의 문학에 대해 고민하는 일이 문학도에게 필수적인데도 현재의 문학교육 현장에서는 디지털 문학과 관련해서 거의 다루고 있지 않고 드물게 다루는 경우에도 대상 텍스트가 종이책인지 인터넷 매체인지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사이버문학’ 분류에 모호하게 섞어버리는 경우도 많다. 미래연구라는 이름을 걸고 있으면서도 가장 최신의 창작 현장에 대한 이해나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교실현장에서 디지털 방식을 접목한 새로운 교수학습법도 시도되어야 한다. Dredger, Nobles과 Martin(2017)의 연구, Dymoke와 Hughes(2009)의 연구는 시 해석과 창작을 가르치기 위해 교실에서 위키를 사용하는 방법을 고찰했다. Collie와 Slater의 연구(2011)는 디지털자료 활용에 있어 비디오와 오디오 자료 제공, 작가 및 작품별 자료 검토, 본문 탐색, 감상 및 토론이라는 단계적 방법을 제시했다. Hassler외 연구(2020)에서는 디지털시를 위한 기술과 교육 현장에서 협력 시를 창작하기 위한 도구 개발[22]을 시도했다. 김선희(2021)는 시 교육에 있어 디지털 텍스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23]했다. 문학교육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의 문제는 의미 있게 고찰되어야 한다.

디지털 원주민 세대 창작자와 독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대학의 문학 학습자를 이해해야 하며 그것이 교육에 반영되어야 한다. 현재의 문학이 처해 있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고찰은 필수적이다. 기존 문학 이론과 문학 분석의 틀만을 가지고 새로운 감각과 정동을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재 문학이 처해 있는 곤경 중 하나다. 이 시대에 시가 소외되고 있는 요인은 구태의연한 문학교육[24]에도 원인이 있다. 현실과의 괴리로 “시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을 극복시키지 못하는 교육”(Showalter, 2003)은 변화되어야 한다. 문학과 대학교육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의 학습자들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하고 창의력을 개발하는 교수학습법이 고민되어야 한다. 문학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문학과 문학교육의 학술장에서 더욱 활발히 개진될 필요가 있다.

---

20)Marisa Olson, "Lost Not Found: The Circulation of Images in Digital Visul Culture", *Words without pictures,* ed Alex Klein (New York, Aperture, 2008), p. 274.

21)2006년 당시 뉴미디어 및 인터넷아트 포털 *Rhizome*의 편집자였던 마리사 올슨이 ‘Net Aesthetics 2.0" 토론의 패널로 참가하여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22)Hassler, David & Pytash, Kristine & Ferdig, Richard & Mucha, Nate & Gandolfi, Enrico. The Use of Digital Poetry to Inform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and In-Service Teacher Professional Development During COVID-19. *Journal of Technology and Teacher Education*. 28. pp.403-413.

23)김선희, 「과제중심 학습과 디지털 텍스트를 활용한 영미시 교육」, 『현대영어영문학』 65(2), 한국현대영어영문학회, 2021.

24) 위의 글, 28쪽.

참고문헌

김선희, 「과제중심 학습과 디지털 텍스트를 활용한 영미시 교육」, 『현대영어영문학』 65(2), 한국현대영어영문학회, 2021.

김지윤, 「소리의 입구, 시의 출구:'지금의 시'에 대한 단상」,『문학인』 6호, 2022.

니콜라스 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청림출판, 2011.

류현주, 『문학과 테크노루디즘』, 글누림, 2014.

리타 카터, 『뇌 맵핑 마인드』, 양영철, 이양희 역, 말글빛냄, 2007.

신연선, "이소호, 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유일한 의도였다- 두 번째 시집 『불온하고 불완전한 편지』", 『채널 예스』, 2021. 8.17, http://ch.yes24.com/Article/View/45634.

심희정, 김성호, 「디지털 미디어 예술의 특성과 감상성의 문제」, 『예술과 미디어』, 5(1), 한국영상미디어협회 예술과미디어학회, 2006, 90쪽. 정찬철, 「디지털 미디어는 어떻게 인간의 시간성과 기억 방식을 바꾸는가?」, 『문화일보』, 2020년 2월 11일.

월터 옹(1995), 이기우 외 역,『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언어를 다루는 기술』, 문예출판사, 2018.

이소호, 『캣콜링』, 민음사, 2018.

『불온하고 불완전한 편지』, 현대문학, 2021.

이은호, "출판 오디오북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45(6), 2018.

장원선, 「새로운 디지털 타이포그래피의 표현 형식에 관한 연구 -웹에서의 타이포그래피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한인준, 『아름다운 그런데』 , 창비, 2017.

Archambault, L. Carlson, D. L. Poetry in motion: using VoiceThread to prepare 21st century. In Society for Information Technology&Teacher Educ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2011, March.

Barbara Kay, The behaviours of fluid character forms in temporal typography, Doctoral thesis, The University of Hertfordshire, 2012.

Collie, J. Slater, S. Literature in the Language Classroom. Cambridge: CUP, 2011.

Dredger, K., Nobles, S., & Martin, J. M. (2017). Digital poetry practicum: Preservice English language arts teachers' dispositions of new literacies. Journal of Literacy and Technology, 18(1).

Dymoke, S, & Hughes, J. Using a poetry wiki: How can the medium support pre-service teachers of English in their professional learning about writing poetry and teaching poetry writing in a digital age?, *English Teaching: Practice and Critique* 8(3), 2009.

Hassler, D. & Pytash, Kristine & Ferdig, Richard & Mucha, Nate & Gandolfi, Enrico, The Use of Digital Poetry to Inform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and In-Service Teacher Professional Development During COVID-19. *Journal of Technology and Teacher Education*. 28. 2020.

Giovanna di Rosario, Digital Poetry: a Naissance of a New Genre?, Carnets, Première Série - 1 Numéro Spécial 2009, posto online no dia 16 junho 2018, consultado o 01 maio 2019.

Koskimaa, R. Digital literature: from text to hypertext and beyond. Dichtung Digital.

Journal für Kunst und Kultur digitaler Medien, 2000, 2.6. 2011. .

Marisa Olson, Lost Not Found: The Circulation of Images in Digital Visul Culture, Words without pictures, ed Alex Klein ,New York, Aperture, 2008.

Seiça, Á. Kinetic Poetry. Electronic Literature as Digital Humanities Contexts, Forms, and Practice, Teaching: Practice and Critique, 8(3).

Simanowski, R. *What is and to what end do we read digital literature?. Literary Art in Digital Performance*: Case Studies and Critical Positions, 2008.

Strehovec, J. Text as a loop/On the digital poetry. In MelbourneDAC, the 5th International Digital Arts and Culture Conference. May 2003.

T. D. Taylor, Strange Sounds: Music, Technology and Culture, Routledge, 2014.

Wardrip-Fruin, N. Reading digital literature: Surface, data, interaction, and expressive processing. *A Companion to Digital Literary Studies*, 2008.

「디지털 네이티브와 새로운 시적 감각」에 대한 토론문

윤호경(이화여자대학교)

김지윤 선생님의 발표문은 디지털 네이티브의 변화된 소통 방식과 새로운 작품의 경향, 이와 같은 변화를 문학교육이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발표문을 읽으면서 디지털 세대와 그 시적 감각, 문학교육의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연구의 필요성과 가치에 깊이 공감하며, 선생님의 발표문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을 여쭙는 것으로 토론의 소임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3의 구술성이 현대시 장르에 미친 영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발표문에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문자와 이모티콘, 음성과 문자가 섞인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한 세대로서 이들의 소통은 제3의 구술성으로 설명됩니다. 실제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의사소통에서 제3의 구술성은 글과 말의 혼합으로서 말의 속성을 가진 글, 즉 입말적 글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새롭게 등장한 구술성, 그리고 그와 같은 구술성이 강해지는 소통의 경향이, 인쇄된 지면을 통해서 '보는' 시, '읽는' 시, 정제된 글로서 문자성을 강하게 지니는 현대시 장르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구술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시의 장르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최근 시들 가운데 이러한 현상을 찾아볼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시에 나타나는 타이포그래피는, 기술의 차이가 있겠지만 기존에도 여러 시인들에 의해서 시도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상의 「오감도」 연작 중 '시제4호'는 타이포그래피 실험으로 평가받고, 황지우의 1980년대 시들은 행과 연의 배열을 통해서 산(山)의 모습을 형상화하거나 신문의 내용과 형태를 그대로 인용하는 등 다양한 형식 실험을 보여주었으며, 서정적 자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큰 글씨와, 화해로운 서정의 세계에 균열을 일으키는 작은 글씨의 구분을 통해 서로 다른 주체의 목소리를 표현한 작품도 있습니다(함성호, 「꽃들은 세상을 버리고」). 오늘날의 현대시에서 시도되고 있는 타이포그래피는 이전의 작품들과 비교할 때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새로운 시적 감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문학의 변화를 반영한 문학교육의 방법과 방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문학 작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문학교육 현장에서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강의의 성격과 관점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은 대학의 국어국문학과 전공 수업, 문학을 활용한 교양 수업 등 수업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새로운 감각의 작품들을 디지털 세대의 새로운 흐름, 현대에 등장한 예외적인 경향으로 '추가'할 것인지, 현대시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 자체의 변화를 촉구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시의 새로운 감각과 경향이 대학의 문학교육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방법과 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선생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문학교육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네이티브인 학습자들의 시 감상과 향유 방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발표문 서두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오늘날의 문학 작품들은 지면을 떠나 유튜브, 팟캐스트, 온라인 플랫폼에서 독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디지털 세대의 소통 방식은 시 텍스트의 창작뿐 아니라 감상과 수용에도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중등학교 교과서에는 '사이버문학광장'의 시 배달 영상을 텍스트로 활용하여 학습자가 인쇄매체만이 아

니라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복합적인 감각을 통해서 현대시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적 감각이 학습자들의 시 감상과 향유 방식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대학의 문학교육에서는 이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신자유주의시대의 웹툰과 소녀들의 서바이벌 : <피라미드 게임>, <도플갱어의 게임>을 중심으로

전지니(한경대학교)

1. 소녀 성향 웹툰과 여성 독자

본고는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소녀들의 서바이벌 게임을 다룬 웹툰 <피라미드 게임>(작 달꼬냑, 2020.1.24.~2022.4.15, 총 101회)과 <도플갱어의 게임>(글 킹스날, 그림 쥐주, 2020.2.16.~2021.4.18, 총 60회)에 대해 논의한다. 웹툰 플랫폼 '네이버 웹툰'을 통해 연재된 두 작품은 비슷한 시기 연재를 시작했으며, 각각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인 여고생들의 생존 게임을 극화했다. 이외에도 소녀들의 서바이벌을 극화하는 과정에서 스릴러와 학원물의 문법을 혼용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25] 특히 부정하거나 무책임한 어른이 개입할 수 없는 교실 속에서 벌어지는 소녀들의 전쟁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겹쳐진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비슷한 시기 소녀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두 웹툰의 이야기 구조와 장르적 특징, 결말의 문제 등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두 웹툰이 과거 순정만화의 장르적 특성과 연결되어 있던 '소녀 만화'의 특성으로부터 어떻게 이탈하고 있으며, 기존 소녀들이 등장하는 다른 대중문화 장르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를 조명한다. 그리고 소녀들이 주인공이 되고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 독자를 겨냥한 이상의 웹툰이 소년 중심 학원 웹툰과는 어떻게 차별화된 의미망을 형성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26]

과거 출판만화 시장에서 소녀 독자를 대상으로 하며 학교를 배경으로 한 일련의 로맨스 만화를 '순정만화'로 일컬었던 것과 연관하여, 웹툰의 시대에 이르면 학교를 배경으로 소녀 주인공의 서사를 다루어도 그 소재와 장르가 다양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곧 웹툰의 시대에 이르면 스릴러, 호러, 사회 비판물 등으로 소녀 서사의 장르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실례로 스릴러의 문법을 취하고 있는 두 작품 외에도 <선의의 경쟁> 등이 대학 진학을 앞둔 소녀들 간 경쟁과 갈등을 심리물의 형식으로 풀어냈다. 이외에도 <도플갱어의 게임>과 <야자괴담>이 소녀가 중심이 된 학원 호러물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소녀 해미>는 소녀를 내세운 복수물로서 새로운 장르를, <여고생 임연수>는 18세 소녀의 시선을 통해 한국 사회의 이면을 해부했다. 여기서 2010년대 후반 연재를 시작한 이들 웹툰이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대중문화계 전반에서 등장한 여성 중심 서사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은 점은, 작가가 의식하고 있는 젠더 문제와 관련해 주목해 볼 부분이기도 하다.

살펴본 것처럼 웹툰의 시대에 이르면 소녀 성향 만화와 관련해 학교를 배경으로 소녀들의 관계성에 주목한 작품들의 소재와 장르가 다양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경쟁' 혹은 '게임'이라는 키워드로 신자유주의 시대 학교의 문제를 형상화하는 작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이를 감안해, 본고는 소녀들의 서바이벌 게임을 다룬 두 웹툰이 어른들이 만든 신자유주의적 계급 구도를 확산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저항을 논의하는 지점을 살펴본다. 특히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의 여성 서사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지점을 분석한다.

---

25) 네이버웹툰의 장르 분류에서 두 작품 모두 '스토리, 스릴러'로 구분되어 있다.
26) 독자의 연령대 및 성별과 관련해서는 네이버웹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실시간 인기 웹툰' 흐름을 참고했다.

2. 계급구도의 확장과 세대론의 변주

2.1. 기성세대의 부정 혹은 배제

<피라미드 게임>과 <도플갱어의 게임>은 모두 부모와 교사가 개입하지 못하는/않는 상황에서 소녀들이 진행하는 서바이벌 게임을 다루고 있다. 전자의 경우 클라이맥스 이후에 이르면 기간제 교사, 장학사 등 나쁜 어른과는 다른 인물군이 등장해 게임을 종료하려는 소녀들에게 도움을 주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은 큰 파장을 일으키지 못하고 모든 상황은 소녀들의 계략과 돌발 행동으로 진행된다. <도플갱어의 게임>의 경우 학교 안에 있는 교사의 다수가 도플갱어에 의해 껍데기가 된 것으로 설정됨으로써, 학교에 남은 소녀들은 자신들만의 생존 게임을 벌이게 된다. 두 작품이 다루는 학교는 부패의 온상으로 설정되며, 학교라는 체제에 대한 비판은 궁극적으로 경쟁을 가속화시키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간다.

<피라미드의 게임>은 군인인 어머니를 따라 계속 전학을 다니면서 남들보다 빠른 눈치와 판단력을 갖게 된 성수지가 명문고인 사랑고에 전학을 오면서 시작된다. 성수지의 집에는 어떤 이유로 아버지가 부재하고, 늘 바쁜 어머니는 딸의 학교생활에 개입할 의지와 여력이 없으며, 딸에게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성수지는 늘 그랬듯이 타고난 적응력으로 학교에서 살아남겠다고 자신하지만, 재계 서열 1위의 손녀부터 모든 ‘금수저’와 특기자들이 즐비한 행복반의 이상한 게임을 목도한 후 처음으로 전학을 고민하게 된다. 부모의 부재라는 측면과 관련해, <도플갱어의 게임>에서 송수지의 어머니의 경우 딸이 어릴 때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면서 초반부터 극에 개입할 수 없다. 곧 주인공 소녀들의 부모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학내 갈등에 개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부모가 초반부터 배제된 상황에서 소녀들은 반강제적으로 게임에 휘말리게 된다.

그렇다면 학교 안의 어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피라미드 게임>에서 교사들의 부패와 타락이 소녀들의 생존게임을 부추긴다면, <도플갱어의 게임>에서 학생들과 마찬가지고 껍데기가 된 교사들은 애초에 게임에 개입할 가능성을 차단당한 상태다. 곧 두 작품에서 어른은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아이들이 뒤틀리는 데 일조하거나 아이들의 세계에 개입할 의지 혹은 능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곧 작가들은 지금과 같은 서바이벌 게임이 만들어진 토대를 제공한 기성세대를 부패하거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형상화하면서, 어른들이 개입할 수 없는 소녀들만의 심리 스릴러를 만들어간다.

2.2. 소녀들의 경험과 젠더 문제

각각 여학급과 여학교를 배경으로 진행되는 두 웹툰은 모두 소녀들 사이의 우정과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그런데 과거 학교를 배경으로 한 순정만화에서 이성애적 로맨스가 이야기 전개의 중심에 배치되고 소녀들 간의 관계는 로맨스의 주변적 요소로 후경화되었다면, 스릴러를 표방한 이상의 텍스트는 학교 내부의 권력관계와 이에 따라 진행되는 심리전을 긴박하게 묘사해가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에 따라 소녀들은 서로를 동경하고 질투하며, 경우에 따라 우상화하는 동시에 배제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전경화되는 것이 젠더 문제다. <피라미드 게임>의 경우 작품 초반 행복반에 내던져진 성수지의 수난사를 묘사하는 과정에서 담임교사의 성폭행 시도 사건을 배치한다. 작가는 여학생들만 있는 학급에서 벌어질 수 있는 젠더 폭력의 문제를 다루며 소녀들 간 유대가 형성되는 순간에 집중한다. 흥미로운 점은 작가가 의식적으로 권위 있는 가부장이 부재하는

공동체를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피라미드 게임이 마무리되고 대학생이 된 소녀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외전 '동창회'에서, 어른이 된 성수지가 과거 연대했던 명자은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설정된다. 이 같은 공동체는 소녀들의 가정, 폭력적인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위계적 가족 관계로부터 이탈해 있다.

<도플갱어의 게임> 역시 주변인을 제물로 만들어 껍데기가 되는 상황을 벗어나야 하는 소녀들의 신경전을 묘사하면서 각자의 상황과 절박함을 묘사한다. 송수지의 경우 어머니가 사망한 상황에서 친구와의 관계에 집착하고, 의도치 않게 그녀를 껍데기로 만든 후에 모든 문제의 시발점인 도플갱어를 찾아내기 위해 애쓴다. 작품 속 일진은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르는 부정을 친구였던 고유리가 목도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더 집요하게 그녀를 괴롭히며, 알만한 기업의 회장인 아버지를 둔 서연우는 자신의 배경만을 보고 추종해왔던 친구들의 진심을 알게 된 후 냉소적으로 변한다. 이에 더해 학생회장 박채은은 어머니의 교육 방침에 입각해 성장한 후 학교 안에서 공고한 서열을 만들어낸다. 곧 작가는 소녀들 간의 집착과 질투, 배신 같은 감정을 토대로 스릴러로서의 긴장감을 만들어낸다.

3. 소녀의 통과의례와 장치로서의 게임

3.1. 장르의 혼용과 관습적 결말

두 편의 웹툰은 모두 '스릴러'를 표방하고 있다. 스릴러 장르는 흥분(thrilling)과 긴장감(suspense)라는 감정에 기반해 과거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는 호기심에 더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긴박감이 그 서사적 움직임을 추동하게 된다.[27] 관련하여 <피라미드 게임>과 <도플갱어의 게임>이 스릴러로 구분된 것은 소녀들의 두뇌싸움에 입각한 예측 불가능한 서바이벌 게임을 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학교 내 계급구도, 왕따, 성적 갈등 등 교내에서 등장할 법한 현실적인 상황이 맞물리면서, 두 작품은 소녀들이 중심이 된 '학원 스릴러'로서 차별화된 성격을 갖게 된다.

이에 더해서 <피라미드의 게임>은 멜로드라마의 구조를 취한다. 작가가 후기를 통해 소녀들의 과거사에 함몰되는 것을 지양했음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의 클라이막스를 지나 결말부에 밝혀지는 명자은과 백하린의 과거사는 지극히 '멜로드라마'적이다. 행복반의 진실이 라이브로 전국에 중계된 이후, 작가는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 할 법한 행복반의 탄생 배경, 명자은과 백하린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에피소드를 풀어둔다. 게임의 등급에 집착하며 폭력을 조장하고 내면의 악의를 무지의 얼굴로 덮어버리고자 했던 행복반 아이들에 대한 다면적인 조망은, <피라미드 게임>의 성취라 할 부분이다. 그런데 결말부에 이르러 악인에 대한 감정 이입의 여지를 만들고, 화해라는 결말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파토스를 강화하는 익숙한 멜로드라마적인 해법을 제안한다.

<도플갱어의 게임>의 경우 스릴러 형식에 호러와 판타지를 섞어 둔다. 아이들의 성적 스트레스와 왕따 문제 같은 현실적인 소재를 취하고 있을지라도, 평범한 학생의 모습으로 저주를 거는 도플갱어와 학교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비현실적 상황이 맞물리며 공포감을 만들어낸다. 소녀들의 성적 경쟁과 학교 안을 떠도는 초현실적 존재 같은 작품의 소재는 1990년대 후반 흥행한 영화 <여고괴담>의 문법에 입각한 것이다. 그런데 2020년대의 웹툰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감행하는 소녀들을 형상화한다. '여고괴담' 시리즈에서 귀신이 된 소녀들이 입시 경쟁의 피해자로서 공포의 대상인 동시에 동정 받을 대상이었다면, <도플갱어의 게임>에

27) 박진, 「스릴러 장르의 사회성과 문학적 가능성」, 『국제어문』 51집, 국제어문학회, 2011, 379~380쪽.

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 죄책감 없이 친구들을 껍데기로 만들거나 무차별적으로 동료들을 살해하는 소녀들은 동정의 여지가 없는 괴물처럼 형상화된다.

살펴본 것처럼 스릴러를 표방한 두 웹툰 중 <피라미드 게임>은 멜로드라마의 장르적 특성을, <도플갱어의 게임>은 호러 장르의 문법 등을 뒤섞어 이야기를 진행시킨다. 그리고 멜로드라마적 이분법에 입각해 소녀들을 부정한 사회의 희생양으로 묘사했던 <피라미드 게임>이 용서와 화해라는 결론으로 나아간다면, ‘귀신 찾기’라는 호러 장르의 문법을 변주한 <도플갱어의 게임>은 과거 ‘여고괴담’ 시리즈가 그랬듯 끝나지 않을 저주를 암시하며 마무리된다. 각각 멜로드라마와 호러의 특성을 차용한 두 웹툰은 두 장르가 관습적으로 취하는 결말의 특성을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끝맺고 있다. 전자는 멜로드라마의 문법에 입각해 정의의 승리와 악인의 징벌 및 참회와 회개로 끝을 맺고, 후자는 호러 장르의 관습적 결말을 차용해 경쟁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한 소녀들은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암시하며 마무리된다.

3.2. 소녀 간 연대 가능성과 한계

언급한 것처럼 <피라미드 게임>은 주요 인물들의 변화를 통해 반 내부의 서열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을 맺고, <도플갱어의 게임>은 다시 반복될 생존게임을 예고하며 마무리되면서 소녀들의 성장과 미래에 대해 다른 결론을 보여준다. 곧 두 웹툰은 성장서사라는 문법 안에서 함께 논할 수 있다. 두 작품이 부정한 어른과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학교 밖 세상의 논리가 개입한 학교 안의 상황을 ‘서바이벌 게임’의 장(場)으로 인지하고 있음은 흥미로운 지점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녀들 간 대립구도를 설정하며, 소녀들 간의 연대를 부정한 세계/학교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토대로 간주하고 있음에 주목해볼 수 있다. 소녀들 간의 미묘한 감정 문제는 소녀들이 등장하는 스릴러를 표방한 웹툰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지점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두 웹툰이 소녀들 간의 감정적 연대를 적대적인 세계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만하다.

두 작품은 어른이 부패하거나 무기력하고, 경쟁논리에 입각한 부정한 사회질서가 교내를 지배하는 가운데 빚어지는 서바이벌 게임을 다룬다. 이어 궁극적으로 게임을 종료시킬 수 있는 것은 순수함이 남아 있는 소녀들의 연대라는 것을 제시한다. 학교를 생존게임의 장으로 간주하고 독자의 트라우마를 자극할 법한 잔인한 묘사도 서슴지 않았던 두 작품은, 그렇게 아직은 미숙한 아이들의 연대를 통해 부정한 시대를 넘어설 가능성을 찾아내고 있다.

이 점에서 작가들이 제안하는 소녀의 연대는 판타지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결말과 관련해 <피라미드 게임>의 경우 소녀들의 우정이 졸업 후에도 이어지며 그 중에서도 성수지와 명자은이 동거한다는 것, <도플갱어의 게임>의 경우 게임 종료 후 송수지를 중심으로 소녀들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이들의 우정 또한 견고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곧 제작진은 소녀들의 연대를 부정한 세계를 가로지르는 수단이자 영속적이고 이상적인 공동체의 형태로 간주한다. 다만 소녀의 연대, 공동체에 대한 신뢰는 다분히 이상적이고 관점에 따라 판타지에 가깝게 그려진다는 점에서, 치열한 현실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던 작품의 전개와 잘 맞물리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 같은 결말은 시종일관 소녀들을 둘러싼 부정한 사회에 치열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던 텍스트의 비판 지점을 희석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미완)

<참고문헌>

1차 자료
작 달꼬냑, <피라미드 게임>, 네이버웹툰, 2020.1.24.~2022.4.15.
글 킹스날, 그림 쥐주, <도플갱어의 게임>, 네이버웹툰, 2020.2.16.~2021.4.18.

2차 자료
김화현, 「은둔(隱遁)의 전복성: 여성향 서브컬쳐의 회화적 적용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9.
박진, 「스릴러 장르의 사회성과 문학적 가능성」, 『국제어문』 51집, 국제어문학회, 2011.
서은영, 「'순정' 장르의 성립과 '순정만화'」, 『대중서사연구』 21-3, 대중서사학회, 2015.
손혜민, 「OTT 서비스와 '여성 취향'의 진화-드라마 「킬링이브」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51,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송아름, 「1990년대의 불안과 <여고괴담>의 공포」, 『한국극예술연구』 34, 한국극예술학회, 2011.
전지니, 「학원물과 재난물의 조우, 학원재난 웹툰의 스토리텔링 연구-<방과 후 전쟁활동>(2012~13), <유쾌한 왕따>(2014~16)를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60, 우리문학회, 2018.
한상정, 「순정만화라는 유령 - 순정만화라는 장르의 역사와 감성만화의 정의」, 『대중서사연구』 22-2, 대중서사학회, 2016.

「신자유주의시대의 웹툰과 소녀들의 서바이벌 : <피라미드 게임>, <도플갱어의 게임>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문선영(한국공학대학교)

전지니 선생님의 발표문은 웹 기반 콘텐츠의 성장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소녀 성향 학원물 웹툰의 다양성 확대와 특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주시하시고, 학교 배경의 소녀 인물형이 중심인 소녀 성향 웹툰 두 편에 나타난 캐릭터, 서사적 전략, 장르적 특성 등 꼼꼼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발표문은 소녀 성향 학원물 웹툰 <피라미드 게임>, <도플갱어의 게임>이 스릴러라는 장르적 특성과 게임이라는 서사적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자유주의시대의 계급 구도를 학교를 통해 형상화하고 학교 내 권력적 관계, 서열화, 생존 경쟁 등의 구도를 탈피하고자 하는 소녀들의 연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연구는 학원물 웹툰에서 소녀 캐릭터, 소녀 서사는 어떻게 다루어지며 대중적 전략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동시에, 여성 서사 중심의 웹툰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발표문을 통해 웹툰뿐 아니라 학원물, 소녀 서사 등 흥미로운 발견을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웹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에,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선생님의 고견을 듣는 것으로 토론문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발표문에서 분석하고 있는 두 편의 웹툰(<피라미드 게임>, <도플갱어의 게임>)의 중요한 키워드이자 공통점은, ‘소녀’,‘게임’입니다. 인기투표 게임, 수건돌리기, 마피아 게임 등 서바이벌 게임을 활용한 서사는 두 편의 웹툰의 대중적 전략이자 의미를 찾아내는 열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이 점에 주목하셔서 웹툰에서 드러나는 게임에 대한 특성과 의미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발표문에서는 두 편의 웹툰이 소녀 인물, 소녀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 집중해서 ‘게임’의 의미를 “소녀들 간의 대립 구도 설정, 소녀들 간의 미묘한 감정 문제, 감정적 연대” 등과 연결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두 편의 웹툰에 다루고 있는 소녀들의 서바이벌 게임이라는 것이 “감정 문제, 감정적 연대”로만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게임’이 기존의 웹툰, 특히 소년 중심 학원 웹툰에서의 ‘게임’의 활용이나 특징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2. 발표문은 두 편의 웹툰이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의 여성 서사라는 점에 주목하셔서, 웹툰에서 재현하고 있는 젠더 문제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게임>에서는 남교사의 여학생 성추행, 스토킹, 가스라이팅 등의 에피소드를 통해 젠더 폭력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릭터의 이미지, 성격, 관계 등에서 퀴어 서사의 범주로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 <도플갱어의 게임>은 소녀 인물, 소녀 서사(소녀들의 연대)라는 점에서 <피라미드 게임>과 결을 같이 하고 있지만 젠더 문제를 뚜렷하게 가시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두 편의 웹툰에서 젠더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차이가 있고 동일한 범주로 분석하는 데 있어서, 기울어지는 지점(<피라미드 게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플갱어의 게임>에서 제시하고 있는 젠더 문제에 대해 선생님의 설명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3. 발표문에서는 장르적 특성(장르 혼융)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계십니다. 두 편의 웹툰이 '스릴러'를 표방하고 있는 장르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여기에 '멜로드라마'(<피라미드 게임>), '호러', '판타지'(<도플갱어의 게임>)의 장르적 관습이 뒤섞여 활용되고 있는 점을 정리하셨습니다. 하지만 '스릴러'는 종종 멜로, 공포와 자주 결합하는 방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유사한 장르적 혼합을 지닌 다른 웹툰, 또는 유사한 여성 서사 콘텐츠와 달리 두 편의 웹툰에서 보이는 차별점, 특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장르적 혼융이 "소녀의 통과의례"(3장의 제목)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4. 발표문은 '학원물', '소녀', '게임'. '스릴러' 등 흥미로운 지점 등을 포착하고 있기에, 두 편의 웹툰 이외, 확장된 의미 있는 논의들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생님께서도 서론에서도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 생각을 여쭙고자 합니다. 두 편의 웹툰은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여성 서사 중심 콘텐츠의 확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소녀들이 등장하는 다른 대중문화 콘텐츠와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 영향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그 변화에 대해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1960년대 '문학과 현실' 담론의 전개와 비평 장의 변동

안서현(서울대)

1. 서론-비평사의 빈 자리

1960년대는 순수·참여문학 논쟁의 시대였다. 그러나 50년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비평사는 1963~64년 이형기와 김우종 중심의 제1 논쟁이 흐지부지 끝난 이후, 1967~68년 김붕구의 '작가와 사회' 세미나 발제에 의해 갑작스럽게 다시 제2 논쟁이 재개되었다는 단절적 서술로 일관되고 있다. 1965년의 『사상계』 심포지엄 수록 글들이 같이 거론되기도 하였지만, 이전과 담론의 양상이 달라진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본고는 비평사에서 누락된 1965~66년의 맥락을 복원하고자 하는 시도다.

1965~66년은 한일협정 비준 반대와 「분지」 필화 사건 대응으로 작가들의 집단행동이 활발하였던 시기다. 특히 중요한 것은 1965년 7월경이다. 1965년 7월 7일 한국시인협회를 주축으로 하여 한일협정 반대 재경 문인 83인 성명 준비가 시작되었고, 하루 만에 서명을 다 받아 9일에 성명이 발표되었다. 이는 12일에 재경 대학 교수단의 성명과 가을의 정치 교수 파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규모의 문인들의 집단 행동에 10일 예총 회장단이 작가들의 정치 참여를 우려하는 반대 성명을 냈다. 7월 7일 남정현 작가가 구속되었고, 10일 이 사실이 신문 지상에 보도되었다. 13일에는 예총 산하 한국문인협회에서 작가의 작품에 의한 구속 문제를 둘러싼 우려 섞인 논의가 있었고, 20일에 진정서가 제출된다. 같은 날 조선일보에 남정현을 옹호하는 백낙청의 글 「저항문학의 전망」이 발표되었고 이 글이 다시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 두 가지 사안은 서로 얽혀 당시 대립으로만 치닫던 논쟁이 유화 국면으로 들어서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는 비평사적으로 순수·참여 논쟁의 공백기라기보다는 이러한 구체적 사건들의 영향으로 논점이 변화한 전환의 시기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본고에서는 세 가지 자료, 1965년 7월의 크리스천 아카데미 주최 '문학과 현실' 심포지엄, 같은 해 10월의 월간 『사상계』 지상 심포지엄, 그리고 1965년 9월 『세대』 지의 이어령·최인훈 대담과 1966년 5월 새로 창간된 『문학』 지의 최인훈·정명환 대담을 중심으로 이 시기의 '문학과 현실' 담론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2. 작가의 시민적 참여-문학과 현실 세미나

크리스천 아카데미 주최 '문학과 현실' 심포지움이 열린 7월 8일은 앞서 밝힌 것과 같이 각각 재경 문인 83인 성명 전날이었다. 이날의 논의는 자연히 문학인의 정치 참여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서정주와 최인훈이 발제자로 나섰다. 서정주는 문학인의 현실 참여는 필요하지만, 문제는 현실의 개념이 협소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정치적 현실만을 논할 것이 아니라 장구한 역사 속의 참가자로서 현실을 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논지로 발제하였다. 최인훈은 순수문학 역시 정치의 바깥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독일의 유대인 학살에 가담한

나치 장교가 피아노를 치는 장면을 예로 들며 음악에서는 가능한 이러한 장면이 문학에서는 성립되지 않으며, 그것은 문학이 매개로 삼는 언어가 그 시대의 윤리에 의하여 착색되는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순수문학이란 특수한 시대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대 한국 작가들에게는 그러한 윤리가 부재하므로 이른바 현실파 작가들 역시 이러한 작품을 쓰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토론에서는 먼저 '현실'의 개념 규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김동리, 이형기 등은 현실의식의 시간적 범위를 확대하여 역사의식으로 생각해야 하며 그것은 곧 전통의식, 그리고 더 넓히면 시간의식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호철, 사회학자 고영복, 이어령 등은, 현실의식이란 주로 당대 현실에 대한 인식을 뜻하며, 현재까지 체질화되어 있거나 새롭게 재구성되는 과거 전통에 대해서만 현실의식이 논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현실의 개념 문제는 이전에도 논의된 바가 있으나, 이 자리에서 이형기의 발언 중 작가로서의 참여와 시민으로서의 참여를 구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고, 이는 새로운 논점이었다. 작가가 시민으로서 참여할 때, 그것은 아마추어로서의 참여이므로 자기 입장에 대한 성실성만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최인훈은 만약 작가가 발언할 수 없는 사회라면 작가는 다른 방식의 참여를 통해 그 사회를 바꾸어야 하므로 이러한 분리와 제한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반론하였다.

지금까지 이 심포지움은 '작가와 사회' 세미나에 비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순수 편의 논자들 역시 문학인의 현실 참여를 인정하며 그 개념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로 나아가려 하였고, 또 작가의 '시민으로서의 참여'를 구분하여 접근함으로써 참여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는 기존의 이념적 논리에서 벗어나 논의의 일 진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작가로서의 참여와 시민으로서의 참여를 구분해야 한다는 논리는 김붕구의 '작가와 사회' 발제에 몇 년 앞선 것으로, 문인 성명이 임박했던 당시 상황에 힘입어 새로운 논점이 제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작가의 성실성 문제-사상계 지상 심포지엄

같은 해『사상계』9월호에 '씸포지엄 문학과 현실'이라는 제목을 달고 같이 실린 이형기, 최인훈, 조동일의 글은 '대화' 심포지엄에서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형기는「작가의 성실성」에서 먼저 문학이 현실과 유리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다만 현실론자들은 문학을 사회 개조의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그것을 인정하더라도 그 목적성이 문학을 지배하지는 못하고, 그 목적이 이루어진 후에도 문학은 가치를 지닌다고 논하였다. 또 작가가 한 시민으로서 현실 개조에 참여하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다만 작가로서는 다양한 현실에 대한 다양한 성실성을 보여야 한다고만 덧붙였다. 이 글을 불과 1년 전의「문학의 기능에 대한 반성」(『현대문학』, 1964.7.)과 비교해 보면, 대표적인 순수문학 논자였던 이형기의 입장 변화가 잘 드러난다.

최인훈은「문학활동은 현실비판이다」에서 '대화' 심포지엄의 발언을 반복하였다. 근대 이후 예술이 효용의 한계를 넘어 나아가려는 과정에서 현실과 절연하게 되지만 다른 예술과 달리 문학은 현실의 도구인 언어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작가가 살고 있는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의 행위가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실의 반영이 아니라 현실의 부정임을 강조하면서 글을 마치고 있다.

조동일은 먼저 순수문학이란 작가가 자기의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라고 하면서 바로 김동리의 제3휴머니즘과 서정주의 영통주의(靈通主義)를 직접 들어 비판하였다. 그들은 자기의 현실에 대해 아무런 발언도 할 수 없음은 물론, 그 현실의 존재마저 부인하거나 그것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을 본분으로 삼는 태도를 견지해왔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작가는 현실에 참여하지 않는 한 작가로 존재할 수 없으며 작가는 대중의 한 사람임을 자인하고 자신의 사회관계 속에서의 체험을 그리되 그 변화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현실 변화에 참여하는 것이 궁극적인 의미라고 결론 내렸다.

이 특집에서 이형기는 문학의 도구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입장의 변화를 공식화하고 있다. 또 '무엇을'만이 아니라 '어떻게'라는 형식의 문제를 포함하는 작가의 성실성을 이야기하는 그의 글은, 작가는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현실에 결박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곡예를 통하여 현실의 부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최인훈의 논리와 접점을 찾을 수 있다. 이 특집을 계기로 당시 순수·참여 논쟁은 이미 이분법을 넘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작가의 자기반성-이어령·최인훈 대담과 최인훈·정명환 대담

1965년 9월 『세대』에서 이어령과 최인훈이 나눈 대담 "소설은 현장검증이다"에서 눈에 띄는 것은 참여론이 문학자의 자기반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역시 최인훈의 '문학과 현실' 발제에 제시된 비판론을 본격적으로 개진한 것이다. 이어령은 최인훈의 『광장』의 결말을 비판하면서 더 주체적인 입장을 주문하였고, 최인훈은 그 결말이 오히려 시대의 기후를 정직하게 드러낸 것이었다고 답변하였다. 두 사람은 그 밖에도 1950년대의 소설들이 시간적 거리상의 한계와 그 밖의 문화적인 원형의 부재, 문체 실험의 부족 등으로 전쟁이라는 역사의 현장에 도달하지 못하였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문학자의 자성과 비판은 이후 1968년의 이어령·김수영의 논쟁에서 문학인의 창조적 응전을 일관되게 강조했던 이어령의 입장과도 관련지어 볼 수 있다.

1966년 5월 『문학』에는 최인훈과 정명환의 대담이 실린다. 두 사람은 먼저 '현실'의 개념에 대해, 이때의 현실이란 객관 현실이 아니라 작가가 인식하고 표현하는 주관적 현실을 의미한다고 정리하였다. 그리고 참여는 작가가 현실에 응전하여 시대의식을 개조하는 창조적 행위라고 보았다. 이들은 "참여는 의식개조이다"라는 새로운 명제를 제기한다. 예컨대 낡은 휴머니즘에서 벗어나는 소설을 쓰거나, 현대 한국인을 정신사적으로 해부하는 작품을 쓰는 일 등이 모두 이러한 작가의 참여에 포함될 수 있다.

이 대담에서 두 사람은 그동안의 논점들을 점검하며 '문학과 현실' 담론을 결산하는 한편, 참여의 당위적 주장을 넘어서 참여의 목적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 기존 담론에서 소재 차원에서의 참여 논의, 즉 정치적인 것을 다루거나 사회적인 것을 다루면 참여라는 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온 것을 비판하고 방법 차원에서의 참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것은 참여론이 단순한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 아니라 현실과 분리된 의식 자체를 바꾸는 것, 즉 정신사적 의미에서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5. 결론

백철은 ‘문학과 현실’ 담론의 전개 양상을 두고 30년 만의 문학사적 반동이라고 표현하였다. 유진오와 김동리의 순수·세대 논쟁 이후 30년 만에 다시 순수에서 그 반대로 지향이 바뀌고 있다고 본 것이다. ‘문학과 현실’ 담론에 대한 정당한 정리와 평가는 1960년대 비평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이러한 방향 전환의 과정을 연속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담론은 낡은 이념적 논리로부터도, 그리고 기존 순수·참여 논쟁의 한계로 지적된 사르트르의 영향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다. 물론 이러한 담론이 당시 대학가에 큰 영향을 미친 사르트르의 앙가주망 이론과 무관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이 다다른 것이 한국 정신사의 문제였음을 감안할 때, 이는 단순히 사르트르의 영향만으로 환원되는 논의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사르트르에 대한 추종을 경계하며 이념적 단순 논리를 드러냈던 1967년 김붕구의 ‘작가와 사회’를 넘어서는 논리가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주관적 현실이나 의식개조의 강조는 관념성의 강화나 지식인 문학에의 편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비평 논쟁이 순수·참여의 이분법을 넘어 담론의 분화와 전개로 나아갔다는 점은 비평사에서 1965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또 이에 따라 ‘작가와 사회’ 세미나 역시 신문 지상으로의 논의의 확대와 신세대의 활발한 참여 등을 중심으로 그 의의가 재론되어야 할 것이다.

「1960년대 ‘문학과 현실’ 담론의 전개와 비평 장의 변동」에 대한 토론문

허선애(KAIST)

안서현 선생님의 발표문을 잘 읽었습니다. 이 발표문은 비평적 한계 혹은 비평사적 공백으로 남아있는 1965년 무렵 비평 장의 논쟁적 지점, 특히 순수, 참여, 문학적 현실 등에 대한 담론적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시기에 대한 이분법적 이해에서 벗어나고자 한 결과물입니다. 선생님의 꼼꼼한 독서를 통해 기존 연구가 주목하지 않았던 다양한 측면이 선명하게 보여주신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발표문을 통해 보여주신 문제의식과 비평사적 보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선생님께 몇 가지 의견을 여쭙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발표문에서 밝혀주신 것처럼 1965년경의 한일협정 비준과『분지』필화 사건은 더 이상 이분법적으로 구조화된 입장에서 어떠한 실천도 불가능함을 예시하는 사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정리해주신 내용을 따라 읽다 보면, 많은 작가와 비평가들이 저마다 순수나 참여, 현실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모습이 인상적으로 느껴집니다. 한편으로는. 참여나 현실이라는 용어를 부정할 수 없는 당대적 상황 내에서 이들은 이러한 용어들의 개념적 확장을 통해서 자신의 문학적 입지점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가령, ‘현실’에 ‘전통’을 포함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논쟁을 통해서 ‘현실’의 내포를 확장하려는 시도, 혹은 최인훈과 정명훈이 ‘현실’에 ‘인식’과 ‘주관’이라는 요소를 포함하며, 나아가 ‘참여’를 의식의 개조, 즉 정신사적 의미의 참여로 확장해보려는 시도들이 그러합니다. 이렇듯 논쟁의 주요 개념들을 자기의 문학적 입지점으로 전유하며,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방향 바꿈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시기 논쟁이 중단되거나, 논쟁의 공백이라는 기존의 해석이 부적절하며 동시에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논점 전환’이라는 이해가 더욱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시기 순수론자인 이형기의 전회, 그리고 이어령의 순수문학 옹호 등을 단순한 자리 바꿈이 아니라 자신의 문학적 입장을 공고화하는 과정으로 해석해볼 가능성은 없을까요?

2) 선생님께서 논의하고자 하는 ‘문학과 현실’ 논의는 1960년대 후반 비평의 흐름과도 주요한 접점을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붕구의「작가와 사회」발제의 논점이 1965년의 사회적 상황에서 제기되었다는 것은 지식과 담론의 흐름을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조화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1965년은 필화와 한일 협정이라는 문학의 외부적 사건이 비평의 방향을 바꾸어놓은 시간인 동시에, 문학의 후속세대(훗날 4·19세대로 명명될, 그리고 그 전에 자신들을 ‘65년 세대’라고 불렀던)의 등장이라는 문학 내부적 사건이 발생한 시간입니다. 1965년 무렵 극심한 논쟁이 일종의 유화 국면으로 접어들며 논점이 변화한 시기라고 하신 점을 감안하여 이 세대를 해석해보면, 65년 세대는 이 유화 국면에서 등장하여 다시 논쟁적 주체로 자기 입지를 굳히고 다시 한 번 순수와 참여의 이분법을 넘어서겠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1965-66년의 비평적 국면에 대한 새로운 세대의 불만이나 해석이 이 세대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한 것으로 이해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들이 극복하겠다고 선언하는 이분법은 1960년대 초반의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등장하던 시기의 이분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듯, 1965-66년을 논쟁의 중단이 아니라, 논점이 변화한 전환의 시기로 본다면, 1960년대 비평장 전체를 순수-참여 혹은 문학과 현실 논쟁의 지속과 확장으로 이해해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선생님께서는 이어령의 세대 의식 그리고 66년부터 80년까지 비평 매체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해오시며 이 시기 비평에 대해 폭넓은 시각을 갖추고 계시는데요. 이번 발표를 포함하여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비평사의 큰 흐름 혹은 해석의 관점이나 주제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3) 발표문에서 다루는 담론들은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이기도 한 ‘대학 교육의 위기와 국어국문학의 변화 방향’과 관련하여서도 좋은 참조점을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발표문에서 보여주셨듯, 정치적 사건을 계기로 당대 비평장이 담론의 방향성을 바꾸어 나간 것은 그 당시의 지적 위기 상황에서 문학 그리고 지식이 자기반성을 통해 정치와 사회에 응전하려는 고투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한국이 도착한 지성사의 위기 상황에서 1960년대 중반 지식인의 반성과 대응을 읽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문학 연구의 영역에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1965-66년 무렵의 ‘문학과 현실’ 논쟁에서 지금의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선생님의 고견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디지털인문학의 과제와 교육 모델로의 활용 가능성 탐색

박미란(성공회대)

1. 디지털인문학의 대두와 가속화

디지털인문학이 인문학과 대학 교육의 위기라는 담론과 함께 대두하여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지도 10여 년이 지났다. 국내의 디지털인문학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문화 산업의 경제적 논리 속에서 테크놀로지와 인문학, 대학 교육의 접속을 도모했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진행되어 온 한편으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와 아카이브 구축 사업 및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는 새로운 학술운동과 연구방법론의 맥락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1] 주로 문학과 사학 분야에서 전산통계, 네트워크 분석, 토픽 모델링, 디지털 아카이빙, 지식맵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방법론으로 도입한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져 왔는데,[2] 이들 연구는 광범위한 데이터 처리를 통해 개별적 텍스트에서 읽어내기 어려운 지점을 짚어내는 한편 데이터 결과물을 분석 및 해석해내기 위해 전통적인 문헌 연구나 질적 연구 또한 함께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와 '디지털 뉴딜'이라는 정책 속에서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등이 각광을 받으면서 대학들이 속속 관련 학과를 늘리고 있듯이 산업적 요구의 힘이 더 거세게 작용하면서 디지털인문학 연구나 교육 또한 가속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가속화 경향이 다분히 디지털인문학에 대한 도구적·산업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인문학이 인문학 연구로서 의미를 지니기 위해 어떤 점이 고려되어야 하는가, 현재 어떤 과제를 마주하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디지털인문학의 흐름과 변화에 주목하며 '인문학적' 가치를 논하는 연구들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3]

디지털인문학이 디지털 환경에서 인문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인문 지식과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해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연구 방법론이나 연구 환경의 차원뿐만 아니라 교육적 차원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연구와 교육이 환류될 수 있을 때 인문학 연구의 심화와 확산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은 소략하고 제한된 논의이지만, 디지털적 전환이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디지털인문학 연구와 교육은 어떤 과제를 마주하고 있는가를 짚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가치에 주목해야 할 것이며, 어떠한 방향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

1) 국내 디지털인문학의 정착과 변화, 연구 동향 등에 대해서는 황동열·황고은(2016); 김민형·임영상(2016); 김용수(2017); 이광석·윤자형(2019); 정유경(2020)) 등 참조.

2) 최근에 나온 몇몇 연구를 들어보자면 강우규·김바로(2020); 김일환·이도길(2020); 구현주(2021); 정유경(2020); 박미란(2020); 김일환·이도길(2020); 구현주(2021); 전성규·허예슬·최주찬(2021); 홍종욱·김도민·깅수연·홍수현(2021); 이유미·김바로(2022) 등이 있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대표적으로 김용수(2017); 이광석·윤자형(2019); 류인태(2020); 이소연(2020); 김지선·장문석·류인태(2021)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는 지식의 자유로운 공유와 표현이라는 디지털인문학이 지닌 개방성과 다매체성, 비선형성 등을 중요한 가치로 강조하는데, 디지털인문학이 디지털 기술과 환경을 바탕으로 학술적 커뮤니케이션과 연구 생태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에 주목하며, 인문학적 연구를 심화하고 인문 지식과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기초 데이터 공개를 통한 인문 지식 자원의 확장

디지털인문학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하거나, 이를 교육에 활용하고자 할 때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기술 활용의 미숙함보다 데이터 구축의 어려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데이터가 소략하거나 편향적이면 연구의 타당성과 가치를 확보할 수 없기에 가능한 많은 데이터를 망라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으며, 그만큼 데이터 구축은 많은 시간과 인력이 드는 일이기도 하다. 상당수의 연구가 주로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받아 여러 연구진이 참여한 대규모의 데이터 구축을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거나, 수업 등을 통해 데이터 구축을 진행한 후 이루어지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 없이 개인 연구자가 진행한 연구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때에는 기초 데이터로 삼을 수 있는 자료가 전집 등의 목록을 통해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었던 경우가 많다.

디지털인문학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 데이터 구축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현재 많은 연구가 생산되고 있음에도 이 연구의 기초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중요한 문제로 지적할 필요가 있다.[4] 분석 대상이 된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음에 따라 데이터 자료가 적절하게 해석된 것인가, 혹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몇몇 자료들이 빠지지는 않은 것인가, 다시 반복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인가 등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또한 데이터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주제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한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에 다른 데이터가 더해지고 확장되면서 기존 데이터가 보여주지 못했던 새로운 관계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데이터는 개별 기관이나 개별 연구자의 자료로 고립될 것이 아니라 계속 수정되고 더해지는 미완의 DB로 남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자료의 개방과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즉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재활용, 재가공하여 연구에 대한 검증과 확장이 가능한 환경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1차 생산자와 수정자 등을 명시하는 방식, 데이터의 인용이나 재사용 등에 대한 인용법과 출처 표기의 방법, 저작권의 해결, 민감한 정보의 처리(개인정보 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디지털인문학이 등장한 지도 10년이 넘어 가고 있으나 이러한 논의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인문학이 지향하는 지식의 공유와 개방을 통해 인문 지식의 확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공개에 대한 요구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3. 메타인지의 활성화로서의 디지털 인문학 교육

디지털인문학 교육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식을 배우고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이며, 다른 하나는 그 결과물을 표현하고 공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3장에서는 전자를, 4장에서는 후자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디지털인문학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자료를 데이터의 형식으로 정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예컨대 네트워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항목을 선택하여 어떻게 분류하고 관계를 조직할 것인가 등의 온톨로지를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존의 자료를 읽어가며 분석할 데이터의 관계를 설정하고 분류하고 추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식 정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는가, 무엇이 빠져 있었는가, 어떤 점이

4) 물론 연구의 기반이 된 데이터를 위키 페이지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연구 또한 찾아볼 수 있다.

더해지거나 수정되어야 하는가 등을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디지털인문학을 교육에 활용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인식하는 메타인지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메타인지는 반성적·종합적 사고와 연계되는 것으로서, 문제를 제기하고 발견하는 학술적인 사유로 효과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김윤정, 2007: 10-13). 즉 디지털인문학 교육에 있어 디지털 기술을 가르치거나 그 기술을 통해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를 확인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고 알아야 할 것을 확인하는 과정, 그것을 위해 무엇을 수행해야 하고 그것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수행된 디지털인문학 연구를 대상으로 연구 설계를 검토하거나 기존에 구축된 아카이브나 문화관, 박물관 등의 지식 설계를 검토하고 새롭게 그려보도록 할 수 있다. 대상의 범위를 좁힌다면 특정 문학사적 서술, 연구사 검토 등에도 활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1960-70년대의 극장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현재 접근할 수 있는 이 시기의 국립극단 아카이브가 어떤 항목 중심으로 조직되었는지를 파악하게 하고, 이 시기의 극장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들을 토론을 통해 새롭게 설계하여 데이터를 수집, 시각화, 분석함으로써 결과를 도출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기존의 지식이 어떻게 구성된 지식인가, 새로운 지식으로 확장되기 위해 어떤 내용이 필요할 것인가 등을 능동적으로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한 데이터의 관계성과 확장성 속에서 이전에 알고 있던 지식의 그림이 변화하는 것을 인지하며 문제의식의 발견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때 데이터의 변화 속에서 모호한 데이터, 주변적 데이터에 주목하여, 시각적 결과를 해석하기 위한 개별 연구 주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계량적 성격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디지털 기술을 인문학의 대상에 적용하여 연구 주제를 이끌어냄에 있어서 자명한 것을 자명하게 보여주는 데 머무르지 않게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디지털인문학 교육 모델이 인문학적 사유를 심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의 습득과 적용이 아니라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식의 구조에 대한 성찰이 가능하도록 수업 모델이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3장과 4장의 논의에서 구체적인 수업 모델과 예시는 차후 보완하고자 한다.)

4. 지식 공유 플랫폼과 지식 큐레이션: 데이터에서 스토리 구성하기

현재의 디지털인문학 관련 연구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더라도 그것을 기술하고 표현하는 방식은 여전히 '논문 쓰기'라는 전통적인 방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문 지식의 확산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논문 쓰기라는 형식 외에 어떻게 연구의 결과를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디지털인문학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리포트 쓰기' 외에 어떠한 방식으로 연구의 결과를 표현하고 학생 상호간의 공유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김지선·장문석·류인태(2021)는 공유와 협업의 글쓰기가 가능한 플랫폼으로서 위키를 제시하고 있는데, 위키 페이지뿐만 아니라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 등의 플랫폼을 통해서도 지식의 표현하고 다양한 이용자에게 공개하여 문화적 확산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의 표현과 관련하여 디지털인문학 교육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하이퍼링크와 멀티미디어로 정보 자원을 관리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차원을 강조해왔다. 이때 다양한 자료를 가져와 연결하는 것이 디지털 리터러시로서의 의미를 지닐 수 있으나 자칫 단편적 정보의 분산적인 나열에 그칠 우려 또한 존재한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 교육

모델에서는 3장에서 수행한 데이터 분석,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스토리 구성 기획을 이어가도록 할 수 있다. 정보의 나열이나 전달이 아닌, 혹은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제시가 아닌 의미의 구성과 전달이 중심이 되도록 전체 데이터에서 자신의 연구 주제를 스토리텔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중 어떤 것을 강조할 것인가, 어떤 순서로 보여줄 것인가, 이용자가 어떤 체험을 하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정보를 재조직하고, 선형적 읽기의 방식이 아니라 중심적인 스토리에서 주변적 스토리로 확산될 수 있도록 스토리라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수용자 입장에서는 정보가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더 능동적으로 사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주어진 정보를 간편하게 수용하는 데 그칠 수도 있다. 따라서 스토리텔링을 함에 있어 어떻게 해야 수용자가 보다 관심을 기울이도록 할 수 있을 것인지 등 수용자가 지식을 보다 능동적으로 얻게 되는 과정을 고려하도록 한다.

특히 최근 관심을 얻고 있는 메타버스 등에서 시청각성이 주는 공간감과 몰입감을 바탕으로 이용자끼리의 소통이나 역할 부여, 퀴즈 등의 이벤트 통해 지식을 얻는 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 위키에서 공동 작업이 가능한 것처럼 모질라허브 등의 메타버스도 각각 만든 '세계'를 합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만든 메타버스에 자신의 자료를 업로드할 수도 있는 등 공동 작업이 가능한데,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자신의 연구 결과를 제시함과 함께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식을 얻어가도록 할 수 있다.

5. 맺음말

(추후 보충)

<참고문헌>

강우규·김바로(2020),「딥러닝을 활용한 경판 방각본 소설의 유형 고찰-영웅소설과 애정소설 유형을 중심으로」,『국제어문』제84집, 국제어문학회, 2020.

구현주(2021),「개념사 연구에서 빅데이터 연구방법의 활용 가능성-한국사회 1960-1990년대 노동 개념 변천을 중심으로」,『개념과 소통』제27호, 한림과학원.

김민형·임영상(2016),「디지털 시대의 인문학을 다시 생각한다: 인문콘텐츠에서 지식콘텐츠까지」,『인문콘텐츠』제41호, 인문콘텐츠학회.

김용수(2017), 한국의 디지털인문학: 위기, 희망, 현실, 비평과 이론 제22권 2호, 한국비평이론학회.

김윤정(2007),「메타인지 촉진전략을 활용한 온라인 토론 수업모델의 형성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일환·이도길(2020),「개화기 잡지 코퍼스의 구축과 활용」,『개념과 소통』제25호, 한림과학원.

김지선·장문석·류인태(2021),「공유와 협업의 글쓰기 플랫폼, 위키」,『한국학연구』제60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박미란(2020),「1960년대 연극계의 작가 매체 네트워크와 연극장의 지형도」,『한국연극학』79호, 한국연극학회.

이광석·윤자형(2019),「국내 '디지털인문학'의 정착과 굴곡 - 대학교육과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불안정한 접속」,『한국언론정보학보』95호, 한국언론정보학회.

이소연(2020),「디지털 아카이브 기술을 활용한 문학사 모형에 대한 연구」,『한국근대문학연

구』 41호, 한국근대문학회.
이유미·김바로(2022),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1930년대 후반 동인시지(詩誌)와 시인」, 『인문논총』 제79권 제1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전성규·허예슬·최주찬(2021), 「이인직 소설의 감정론-시각화와 계량화를 기반으로」, 『민족문학사연구』 76,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소.
정유경(2020), 「디지털인문학 분야의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제37권 제2호, 한국정보관리학회.
정유경(2020), 「텍스트의 계량 분석을 활용한 근대전환기 신문의 시계열적 주제 분석법: 『황성신문』 논설을 대상으로」, 『역사문제연구』 제43호, 역사문제연구소.
황동열·황고은(2016),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인문콘텐츠 분야의 의미연결망 분석-2003년부터 2015년까지 인문콘텐츠학회 논문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제43호, 인문콘텐학회.
홍종욱·김도민·깅수연·홍수현(2021), 「북한 인문학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 『인문논총』 제78권 제1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의 과제와 교육 모델로의 활용 가능성 탐색」 토론문

유연주(서울대학교)

박미란 선생님의 발표문 잘 읽었습니다. 디지털인문학 연구와 교육에 관심은 있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구자이자 교육자로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연구는 디지털인문학의 기초 데이터 공개의 필요성부터 디지털인문학 교육 과정과 결과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견해에 대체로 동의를 하면서 읽었기에 몇 가지 궁금증을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데이터 아카이빙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개인적인 역량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라 목록이라든가 자료를 수집해서 결국에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게 되는 연구자로서 기초 데이터를 함께 구축하고 그것을 재활용, 재가공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매번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기초 데이터 수집과 공개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지 선생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지원’이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현재 지원을 받아서 구축된 데이터들에 한계가 느껴질 때가 있어서 선생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모델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2. 현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육자로서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점차 높아져 가는데 반해 수업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수업 시간에 디지털인문학 교육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문에는 구체적인 수업 모델과 예시를 차후 보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미리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3. 두 번째와 비슷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디지털 리터러시는 향상되어 가지만 리터러시 자체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와 리터러시를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스토리 구성이라는 대안을 제시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스토리 구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할 텐데 혹시 커리큘럼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분과

대학 교육의 위기와 어문교육의 변화 방향

대학교육의 위기와 국어교육의 역할

남가영(서울대학교)

1. 대학교육의 의미 탐색 및 재규정 필요

·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 학습 시대. 고등교육의 대중화("보편화된 중등교육의 연장에 불과한 것, 홍병선(2012: 286))". 형식 학습과 무형식 학습의 경계 무화(無化). 학교 밖 학습과 학교 내 학습의 연결. 무형식 경험 학습의 인증 체제 가속화. 대학이 담당하던 고등교육의 의미 재설정 필요.

⇨ '대학'이라는 공간과 제도의 역할은 무엇인가? 대학만이 줄 수 있는 '차별화된 경험'은 과연 무엇인가?

· 대학의 본래적 기능은 무엇인가? 대학의 기능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 자유인을 길러내는 교양교육(영국), 국가사회의 발전이라는 공적 가치에 헌신하는 전문가 육성(독일),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책무를 다함으로써 공공적 기능의 수행(미국). ⇨ 대학은 공적 가치를 추구하고 보편적 지식을 탐구하며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장

· 대학의 본질적 기능 vs. 사회적 기능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가능했던 두 가치 간의 공존이 21세기 대학교육에서는 왜 새삼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는가?(Spellman, 2009 ; 김성원, 2012)"

"대학은 현실세계를 위하여 폭넓고 집중적인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과학의 장소이다. 모든 사회적 문제들이 대학에서 과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대학은 이러한 사회적 질문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Spranger, 1953:360)". "대학은 연구와 가르침의 자유와 고립이라는 조건 하에서 과학적 도야를 구현하는 삶의 장소로 변혁되어야 한다(Spranger, 1920: 30)(이상오, 2005 재인용)."

vs.

"(자유교육의 철학과 민주주의 사회의 철학의 접점. '시민성', '사회적 책임', '지역사회'의 개념들과 자유교육의 관계성에 대한 고찰에 주목) '잘 교육받은 시민'은 책임감 있는 사회적 행동과 지역공동체의 웰빙을 담보하는 전제 조건이다. 대학교육은 민주적 가치, 민주주의제도에 대한 존중, 윤리관, 시민적 의무,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을 풍부하게 해 주어야 한다(조영하, 2015: 49)."

·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제기(UNESCO, 2015, 2018 ; OECD, 2018, 2019, 2020 등). 인권으로서의 학습, 공공재로서의 지식. 존재의 변혁(transformation)과 참살이(well-being)를 추구하는 교육, 학습자의 주체성(agency)과 책임 강조

· 변화하는 대학교육 및 학습환경 체제. 미래사회의 공유 경제. 개방형 체계의 플랫폼(Coursera, MOOC 등).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분산형 시스템의 정착 등에 따른 새로운 학습 환경의 조성. 소유 중심의 지적 재산권이 공유나 공동 자산의 개념으로 변화.

⇨ 집단 지성의 관점에서 서로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교육. 얼마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느냐가 자신의 능력과 이익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 상승. 미래 문해력

(future literacy)의 대두와 강조

⇨ 변혁적 학습(transformative learning), 연결학습(connected learning)의 중요성 증대 (B. Leaver, et al.(ed.), 2021; Ito et al., 2013 ; 2020 등)
√ 성인교육, 평생교육, 비판교육, 민주시민교육, 미디어리터러시 교육과의 확장과 연계
√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행위로서의 학습과 교육 강조. 연결과 참여, 성찰과 책임, '깊이 있는 학습(deep learning)'과 '엄정한 사고(rigor of thought)'의 강조
√ 개방적으로 연계된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무언가를 창안하고 만들어내는 데 주력하는 환경에서 활성화되는 '연결 학습'
√ 변혁의 계기로서 'disorienting dilemma', 이에 대한 'critical thinking', 이를 통한 'shaking of beliefs' 강조(Mezirow, 1990, 2000)
√ 연결학습, 변혁적 학습에서 '언어'의 역할

· *현재 대학교육의 개혁을 주도하는 담론. '역량 중심 교육', '측정 가능한 교육'에 관한 담론. 대학의 핵심역량 진단을 통해 대학교육의 성과 측정, 평가하는 시도와 연계됨. 대학교육이 추구해 온 가치, 평생 학습 시대에 대학교육을 통해 기대하는 경험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2. 대학교육의 개혁과 국어교육: 초학문의 시대, 언어를 다룬다는 것의 의미

2.1 지식과 학문에 대한 초학제적 메타 담론으로서 언어에 대한 이해

· 언어의 지식 구성적 역할에 주목하여 언어 분석 자체를 교과 연구의 방법론으로 택하는 교과교육학 연구의 흐름. 어떤 교과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학습하는 데 필요한 지식은 무엇인가?(소지영, 주세형, 2018 ; 소지영, 성경희, 주세형, 2018 ; 주세형, 2021 등)

· SFL에 기반하여 학문 분야 텍스트의 지식 구성 양상을 분석하거나, 학습자의 지식 구성 단계를 분석하는 실증적인 도구를 획득할 수 있음.
√ "새로운 유형의 언어가 발달하며 새로운 지식 역시 발달해 간다(Halliday, 1994: 93)"
√ "배움이 일어날 때 "언어학적 자원과 함께 인지적 자원이 동시에 확장된다(Accuro, 2017)"
⇨ 일상 언어-학문 언어의 발달, 그것을 추적하는 핵심 지표로서 '문법적 은유(grammatical metaphor)'와 '희미한 은유(faded metaphor)'(Derewianka, 2003; 192)

· (언어학적 기반에 근거한) 학문 문식성(disciplinary literacy) 탐색의 가능성. '학문 문식성'은 분야별 수사적 목적과 그에 따른 언어적 선택의 차이는 '언어학적' 연구 성과를 통해 명백히 밝혀짐(Shanahan & Shanahan, 2012: 9). '학습자의 발달'을 읽어낼 수 있는 이론적 틀, 교과별 지식 구성의 양상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프레임워크, 메타언어로서 분야별 언어학적 지식(Disciplinary Linguistic Knowledge)의 구축 필요. "학습의 언어, 학교의 언어, 학문의 언어가 국어교육의 새로운 내용론이 되어야(주세형, 2021)"

· ‘인문언어학(Humanistic Linguistics)’의 부상
  √ 언어를 도구로 하여 언어를 통해 인문학 연구의 연계와 통합적 연구 가능성 타진
  √ 언어를 대상 및 도구로 하는 인문과학 분야의 통합적 연구를 통해 복합지식을 생산해내는 학제적 학문 분야(김한샘, 2014)
  √ 언어 기능에 기반한 인문학 연구 방법론 모색, 인문학의 연구 대상에 나타난 언어의 특성 분석
  ⇨ ‘너트와 볼트의 언어학’ vs. ‘인문언어학’(Lakoff, 1973)
    “형식적 원리-특정 언어에서든 언어 일반에서든-가 세계 언어들에 나타나는 언어적 요소들 사이의 배열과 관계를 설명하기에 필수적이고 충분한가?” vs. “인간에 대해 언어 연구는 무엇을 말해 줄 수 있는가?”
  ⇨ “언어와 관련된 모든 것은 나의 관심을 끈다(Jacobson).”
    언어에 대한 총체적 양상을 이해하려 했던 인문적 언어관. 고대로부터 현대로 내려오는 언어학의 목적, 즉 인간의 고유한 정신적 특성으로서의 보편문법의 추구는 분명히 인간 정신을 탐구하고자 하는 인문학의 목적과 일치함.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언어 연구의 주류는 실용적인 언어 연구였음. 언어에 대한 과학적, 형식적 연구에 매몰된 근대 언어학 연구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김성도, 2003)

· *언어학은 어떻게 초학제적 메타담론으로서 교육, 대학교육을 개신할 수 있는가? 국어교육학은 이를 매개하는 핵심 논리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가?*

2.2 학습 목적 글쓰기(writing to learn), 그 의의와 한계

· 범교과적 글쓰기(WAC, writing across the curriculum)와 전공 내 글쓰기(WID, writing in the disciplines). interdisciplinary+disciplinary的 접근(배식환, 2012)
· ‘학문적 의사소통’ + ‘학습’을 위한 글쓰기의 함의
· ‘담화 종합(Spivey, 1997; 송치순, 2014), ‘자료로부터 글쓰기’(Kirkpatrick & Klein, 2009; 최건아, 2014), ‘쓰기 위한 읽기’(Risemberg, 1996)
· 담화 종합(discourse synthesis)이란 “필자들이 다양한 텍스트들을 읽고 그로부터 스스로의 텍스트를 생성해 내는 과정”(Spivey, 1997: 146)
· 학습 목적 글쓰기로 인한 새로운 지식의 형성 과정 고찰(Galbraith와 Baaijen, 2015 ; 김혜연, 2015). Kintsch의 담화 분석 절차에 따라 명제 단위의 분석을 거쳐 Grimes(1975)의 계층적 구조 정리 방법이나 Gentner(1983)의 구조도(structure-mapping) 모형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자료 간의 관계, 기존 자료에 가해지는 변형, 정보들의 선택과 표현, 표상 등을 분석하여 학습자의 지식 구성 양상을 탐색하고자 함.

· IB(국제 바칼로레아) 디플로마 과정에서 ‘지식론(theory of knowledge)’의 전개 양상
  √ DP과정의 핵심 필수 과목. ‘지식의 본질’과 ‘안다는 것’의 개념을 탐구하는 과목
  √ 목적: 지식의 본질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안다고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지에 대해 학생들이 숙고하도록 하는 것.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고 어떻게 믿게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지식·신념·관점을 얻으며 어떻게 그것들을 주장하고 정당화하는가’

√ 지식론 수업의 12개 주요 개념들: 증거, 확실성, 진실, 해석, 권력, 정당화, 설명, 객관성, 관점, 문화, 가치, 책임감 등
√ 핵심주제: 지식과 지식을 아는 사람: 학생들이 자신을 지식을 '아는 사람(knower)' 및 '생각하는 사람(thinker)'으로 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속한 다른 '아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고려해 보게 하는 것.
√ 지식 영역: 역사, 인문학, 자연과학, 수학, 예술
√ 지식 습득 방식: 언어, 감각, 감정, 이성, 상상, 믿음, 직관, 기억
√ 지식론의 평가로서 Essay. 지식에 대한 메타인지로서 성찰과 숙고. 그 표상으로서의 글쓰기

· *글쓰기로 구현되는 지식 구성에 양상에 대한 인지 심리학적 분석의 가능성. 학문 세계에서 소통과 사유와 학습의 도구를 쥐어주는 것, 이를 통해 지식의 확장, 더 나아가 지식에 대한 사유를 체험하는 것의 의의는 무엇인가? 그것의 가시적이고 명확한 지표로서 '언어학적 분석'이 동반되거나 그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어떠한 한계에 봉착하는가?*

2.3 연구 방법으로서의 언어학, 그 교육적 전환

· 언어학적 방법: 담론으로 존재하고 구성되고 소통되는 세계, 현상을 분석하고 탐색하여 의미를 발견하는 도구. 이러한 도구의 전유를 통해 학습자는 어떠한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가(semiotic empowerment)? 이러한 연구 방법의 '교육적 함의'에 주목할 필요.
⇨ '어떻게 말하는가(how to say)'를 통해 '무엇을 말하는가(what to say)'를 탐색하고 발견하는 과정

· 언어학은 언어과학으로서 순수하고 독립적인 학문 세계를 구축해 왔으나, 인간과 세계와 학문을 탐구하는 연구 방법론으로서도 전통이 깊다.
⇨ 인지언어학적 분석(시나리오, 프레임, 개념적 은유, 개념적 혼성 이론 등)(Fillmore, 1985; Lakoff & Johnson, 1999; Fauconnier & Turner, 2002 등)
⇨ 텍스트언어학적 분석, 담화 분석. 인간의 정신과 사회적 행위를 연구하는 다양한 유형의 인문 및 사회학적 연구는 텍스트 분석을 방법론적 토대로 함. 연구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분석과 해석을 위한 텍스트의 분석 범주와 해석을 위한 방법론 필요. 담화 분석의 핵심 논제는 "하나의 텍스트가 어째서 현재 주어진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고 바로 지금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는가"에 대해 설명하는 것.

· "언어를 바라보는 렌즈로서의 담화", "사회를 바라보는 창으로서의 언어"(김종현, 2020; 김병건, 2017)
√ 어휘의 담화 분석: 푸코(1971)의 '배제'(exclusion), 반 다이크(1998)의 '이념 사각형'(ideological square)(1998), 마틴 & 화이트(2005)의 '평가어 이론'(Appraisal Theory)의 '태도'(attitude), 강범모(2010)의 '핵심어-공기어'의 개념과 분석 방법
√ 문장/문법 중심 담화 분석: 할리데이(2004)의 SFG의 '타동성'(transitivity), 마틴 & 화이트의 '평가어 이론'(Appraisal Theory)의 '개입'(engagement) 등

√ 텍스트 내용 구조/ 외적 요인 중심의 담화 분석: 그레마스(Greimas)의 내러티브 기호학 의미 구조, 논증 구조 분석 등

⇨ 언어학에서 담화 분석의 특징: Foucault, Greimas, Habermas 등의 철학적 성찰 아래 문법론, 의미론, 화용론, 텍스트언어학 등의 방법론 원용. 언어학적 방법론의 원용은 담화분석에 '엄격함'과 '독창성' 제공(Hart 2014/김동환·이미영 역 2017:27). "언어 이론에 기초하지 않는 담화분석은 무엇이든 실제로 전혀 담화분석이 아니라 '텍스트에 대한 중계방송'일 뿐(Halliday, 2004)"

⇨ 최근 코퍼스를 이용한 담화 분석 방법론 발달. 연어 관계, 클러스터 분석, 용례 분석 (신서인, 2017)

· 언어학적 방법의 교육적 함의, 그러한 경험의 교육적 의미에 대한 교육과정적 접근

⇨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중 융합선택 과목 '언어생활 탐구'(노은희 외, 2022)

"자아 인식, 집단의 정체성 형성, 지식의 구성, 사회적 담론의 형성과 참여 등 개인적, 사회적 영역에 걸친 주요 범교과 개념과 현상들이 어떻게 언어를 매개로 구현되고 실천되는지 다양한 언어 자료를 살펴보고 분석해 보는 활동을 통해, 언어가 우리 삶에서 갖는 힘과 가치를 체험하고 이를 통해 언어 실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언어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12언생01-02] 탐구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언어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언어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민감하게 인식한다.
[12언생01-04] 여러 교과에 사용된 언어를 분석하고 비교하여 학습을 위한 언어의 표현 방식과 특성을 탐구한다.
[12언생01-05] 가정, 학교, 사회의 언어 사용에 나타난 정체성의 실현 양상과 관계 형성의 특성을 탐구한다.
[12언생01-06] 다양한 매체 환경에서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는 과정과 맥락을 탐구한다.

3. '언어를 안다는 것', '언어를 한다는 것'의 자유교육적(自由教育的) 함의

· 고등교육 대중화 시대에 대학교육이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체험의 영역

√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행위로서의 '학습'과 '교육'

√ 존재에게 있어 이러한 자유의 체험이 갖는 '변혁'으로서의 의미와 의의

· 이러한 학습과 교육의 과정에서 언어의 역할

√ 지식과 학습의 도구로서 '언어'

√ 지식 구성과 학습 과정을 사유하는 메타언어로서의 언어

√ 언어를 통한 지식 구성과 학습 과정을 체험하는 것의 교육적 의미

<참고문헌>

강범모(2010),「공기 명사에 기초한 의미/개념 연관성의 네트워크 구성」, □한국어 의미학□32, 한국어 의미학회, 1-28쪽.

김동화(2010), 인지언어학 연구 방법론, 우리말학회 27. 5-28

김병건(2017),□담화분석 연구 동향 분석-2000~2016년 언어학 관련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어문론총 73, 31-62

김성도(2003), 한국 언어학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론적 성찰, 인문언어 5, 7-36

김슬옹(2005), 언어 분석 방법론으로서의 담론학 구성 시론, 사회언어학 13(2), 43-68

김종현(2020), 언어를 들여다보는 렌즈로서의 담화, 언어학 88, 225-253

김한샘(2014), 인문언어학의 개념과 방법론 -언어정보학과 인문학의 소통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47, 103-126

김혜연(2015), 대학생의 학습 목적 글쓰기에서 지식 구성의 양상 고찰 - 혼합 연구 방법론의 적용, 작문연구 30, 29-68

배식한(2012), 전공 연계 글쓰기(WAC)의 국내 적용을 위한 전제 조건-미국 WAC 프로그램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교양교육연구 6(3), 591-626.

변순용(2015), 대학과 대학교육의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 대학의 미래와 대학 교육의 문제점에 대하여", 교양교육연구 9(1), 11-28

소지영, 주세형(2017), 과학 교과서의 '문법적 은유'를 중심으로 본 국어과의 도구 교과적 본질 탐색, 국어교육연구 39, 119-158

소지영, 주세형(2018), 초등학교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언어적 특성 연구-국어과의 도구 교과적 본질을 중심으로-, 한국초등국어교육 65, 77-108

소지영, 성경희, 주세형(2018), 중학교급 학습자 서술형 답안의 언어적 특성 연구 -사회과 학업성취도 평가 서술형 문항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61, 159-187

신서인(2017), 코퍼스를 이용한 담화 분석 방법론, 한국어의미학 55, 53-79

주세형(2021), 국어교육의 '새로운 내용론' - 학습의 본질 구현을 위한 초학문 융합 패러다임 설계, 국어교육 174, 73-125

조영하(2015), 21세기 대학의 자유교육, 그 정체성에 관한 고찰, 비교교육연구 25(4), 35-62

홍병선(2012), 대학교육의 현실과 사회적 요구, 교양교육연구 6(2), 269-291

Fairclough, N.(1995), Media Discourse. Edward Arnold. 이원표 역(2004), 대중매체 담화 분석, 한신문화사.

Halliday, M.A.K.(200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Hodder Arnold.

Hart, C.(2014), Discourse, Grammar and Ideology : Functional and Cognitive Perspectives. Bloomsbury Publishing Plc. 김동환·이미영 역(2017), □담화, 문법, 이데올로기 : 인지언어학과 비판적 담화분석, 로고스라임

Ito, M. *et al.* (2013). *Connected learning: An agenda for research and design.* Irvine, CA: Digital Media and Learning Research Hub.

Ito, M. *et al.* (2020) *The Connected Learning Research Network: Reflections on a Decade of Engaged Scholarship*, Connected Learning Alliance. Irvine, CA.

Lakoff, George(1973). "Humanistic Linguistics" in Francis P. Dineen (ed) Georgetown Roundtable on Languages and Linguistics. Georgetown University Press.

Leaver, B. L., Davidson, D.E. & Campbell, C.(ed.)(2021), *Transformative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UK: Cambridge.

OECD (2019).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 OECD Learning Compass 2030. A series of concept notes*, OECD.

UNESCO (2015), *Rethinking Education: Toward a global common goods*, Paris: UNESCO

<대학교육의 위기와 국어교육의 역할(남가영)>에 대한 토론문

주세형(서강대학교)

- 자유롭고 심도 있는 토론이 가능하려면 발표자를 뛰어넘는 식견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토론자는 발표문의 극히 일부, 그것도 토론자의 연구물이 언급된 부분만 이해가 가능한, 이전 시대에는 좋은 의미로 '한 우물만 판 전문가'일 수 있었으나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 초학제적 학문의 시대'에 부적합한, 그런 인물이다. 다만 토론자의 자괴감을 함께 나누고자, 무책임할 정도로 감당이 되지 않는 질문(또는 문제 제기, 우리가 함께 토론해야 하는 난제)들을 늘어놓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1. 대학교육의 위기는 누구나 인정하지만, 누군가가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학문 분야(discipline)으로 국어교육학을 지명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의 동의를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제목과 내용으로 추론하건대, 남가영 교수님은 국어교육학이 대학교육의 위기를 타개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듯하다. 고견을 명확히 듣고 싶다.
2. 우리나라에서 '대학의 본래적 기능'을 추구해 온 적이 있던가? 또한, 대학의 본래적 기능을 논의하여야 하는 대표적 학문 분야는 여전히 '인문학'인가? 달리 말해, 인문학이 오늘과 같은 이러한 토론의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과연 사회가 인정해 줄 만한 담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3. '과학적, 형식적 언어학 연구가 잃은 언어학 본래의 목적(김성도, 2003)에 대한 문제 제기'는, 최근 국어교육학의 연구 경향에도 뼈아픈 일침을 가하고 있다. 새로운 '내용'이 무엇인가를 묻는 시대가 아니라, '접근할 방법이 무엇이며 타당한가'를 묻는 이 시대에, 초학제적 메타 담론으로서의 언어학, 연구 방법으로서의 언어학, '인문언어학'이 그러한 시대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단지 '인문학 및 그 인근 학문'의 통합을 넘어, 모든 분야에서의 '처리하기 어려운 비정형데이터'를 다루도록 하는 메타 이론으로서 거듭날 가능성은? 이를 위해 인문학은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하는가?
4. 아무리 훌륭한 통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개 개인의 것이라면 좀처럼 공표하기가 어려운 세상이다. 개인의 훌륭한 통찰을 허용하지 않는 기조로 인해, 인문학 분과 학문으로 분류되는 학자들이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무엇인가? '주관의 객관화'를 어느 수준까지 입증해 내어야 타당한 것인지?

- 역사적으로 보면, 변화의 시대에는 늘 '이전 시대의 전문가'가 가장 위험했고, 현 시대는 특히 그러한 듯하다. 현재, 우리 시대의 리더들은 '민간-자본 주도형'으로 육성되고 있는 듯하다. 실력자들은 대학을 선택하지 않고 기업의 연구소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시된다. '민간-자본 주도형 리더'와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어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던 대학 내에서만 꿈꾸는 '이전 시대의 전문가'들이, 갑자기 낡은 지식인이 되어 버렸고, 토론자 역시 이를 하루하루 절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에서 과연, '교육'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시된다. 그럼에도 좀처럼 묘수가 떠오르지는 않기에, 그저 본질적 질문을 제기할 도리밖에 없었음에 용서를 구한다.

교양글쓰기 수업 내 어문규범 교육의 위상

김남미(홍익대학교)

1. 서론

이 논문의 목적은 교양글쓰기 수업 내에서 어문규범 교육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있다. 제1언어 글쓰기 교육에서 어문규범 교육의 목표 및 원리를 추출하고 이를 확장하여 글의 생산 및 수용에 기여하는 문법의 위상을 밝히려는 것이다. 글쓰기 교육 내 규범 교육(prescriptive grammar)[1]이 텍스트의 생산 및 수용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 논문의 연구 과제가 된다.

2. 글쓰기를 위한 문법(규범) 교육

2.1. 글쓰기 교육 목표

• 교육목표: 글쓰기 과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문법적 활동의 상위 인지적 전략화 과정을 학습자들이 명시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2]

• 반영된 문법관

상호 관련된 선택가능항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문법(Halliday, 2003:8).

문법이 언어활동의 전 과정에서 의미와 경험을 구성하는 생산적 도구(주세형, 2005:261).

글쓴이의 의미 형성 과정에 글쓴이의 문법 선택이 관여함(제민경, 2015:106).

• 공시성에 대한 이해: 문법적으로 표현된 언어 항목의 실현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가능

개인적 차원에서의 적용: 언어적으로 실현된 자기 사고에 대한의 이해 가능, 확장 가능

개방성(Openness)을 통한 또 다른 선택 및 통합 가능성에 주목

• 텍스트 최상위구조(주제문(thesis statement)[3], 구조(structure of text), 핵심어(구))의 선택과 통합에 관여하는 문법

- 글쓴이가 자신이 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4]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과정으로서의 수용

---

1) 기술문법과 규범문법 간의 차이(Descriptive versus prescriptive grammar)와 그 교육학적 함의에 대한 최근 논의로는 Hinkel(2018)을 참조할 수 있다. 정희창(2014:233)에서는 기술 문법과 규범문법(학교 문법)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기술 문법과 학교 문법의 관계를 논의하고 문법 내용을 정비하는 일이 균형 있는 문법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조성식(1990:334)에서 보인 '기술문법학(공시문법학):역사문법학', '기술문법학:규범문법학'의 두 가지 차원에서의 대립은 '기술문법'의 '공시적 특성'을 자기 문법의 이해의 측면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음을 함의한다.

2) Carter & McCarthy's(2006:7)는 교육학적으로, (Halliday, 2003)의 개념으로 이론화된 문법이 글쓰기와 글을 쓰는 학습자의 상위인지적 이해를 개발하고, 글의 생산에서의 언어 선택에 대한 명시적 지식을 개발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였다.

3) 여기서 주제문은 흔히 담화 주제(discourse topic)라고 불리는 전체 글의 핵심정보를 포함한 문장을 지시하는 용어이다. 기존논의에서 대학학습자 글의 '주제의 깊이'를 설명하는 데 활용된 '주제'는 이윤빈(2013:60)에서처럼 문장 차원의 주제로 문장 내 핵심 내용을 지닌 부분을 지시하는 일반적이다.

4) 문법을 구조적 지식이라 할 때, 글 전체 틀의 구조에서 횡적 종적 관계에 주목하는 것이 글쓰기를 위한 문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민현식(2009:32)에서는 국어 능력의 기초 능력이 문법 능력에서 규범 능력도 표기 규범의 구조적 지식이나 기능적 지식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기능적 지식이나 구조적 지식만이 아닌 '주제 지식(topical knowledge)'도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글에 담긴 세계관(사상, 이념, 가치관, 주장 등)의 내용과 연관 짓고 있다.

과 생산에 주목하는 문법
- 이 논문에서 주목하는 바는 주제 지식의 거시 구조가 텍스트 안에서 '단락' 등의 언어 구성 요소로 어떻게 투사되는가이다. 지금까지의 논문에서 문법적 언어 형식에 주목하여 왔다면, 거시구조를 구성하는 '주제문, 핵심어구 구조 간의 관계에 주목하려는 것이다.
- 문장이나, 절의 구조가 아니라 텍스트의 구조[5)]
- 텍스트를 텍스트답게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 텍스트의 최상위 구조를 문법적으로 접근
- 텍스트 읽기를 통한 사고의 확장 및 질적 개선에 관여하는 문법관계, 주제중심성에 주목
=> 사고의 질적 개선, 자기 사고의 개방성을 발견하여 이를 유의미한 구조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문법적 사고

2.2. 교육 원리

• 글쓰기 전반에서 수업 내 논의 대상에 계열관계와 통합관계에 대한 접근[6)]
=> 어문규범의 주요 항목들에 적용[7)]
=> 글쓰기의 거시구조에 적용
• 자기글의 최초 독자로서의 글쓴이의 자기 인식, 자기 평가, 자기 확장 사고의 도구로서의 문법적 틀
- 학습자가 글쓰기 과정이나, 글의 수용과정에서 문법적 전략 능력으로서의 상위인지 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8)]
- 이런 문법적 틀이 메타인지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글쓰기에 관여하는 텍스트가 갖는 맥락의 존적 특성을 추상화하여 탈맥락적 문법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

---

5) 민현식(2009:4)에서는 Bachman(1990), Bachman & Palmer(1997)의 언어 지식과 전략 능력을 예로 들어 언어 능력을 ① 조직 지식(organization competence)과 ② 화용 지식(prgmatic knowledge)로 구분하고 조직 지식을 '언어를 바른 어법으로 문장이나 담화를 조직, 생성하는 능력'으로 화용 지식을 '언어 사용자가 문장, 담화의 의미를 해석하고 의도나 언어 사용 환경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지식'으로 구분하였다. 해당 부분을 인용하면

조직 지식에 해당하는 문법 지식은 '㉠ 문장이 조직되는 원리의 지식, 어휘 통사, 발음, 문자(표기) 지식'을, 담화 지식은 '㉡ 문장이 담화로 조직되는 원리의 지식으로 응결성, 수사법이나 대화 조직의 지식을 의미한다(민현식, 2009:4, 원문자 및 밑줄은 인용자가 첨가함).

여기서 ㉠은 글의 질적 수준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만으로는 이미 결과화된 주제를 질적으로 개선하는 문법적 사고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6) Fearn & Farnan(2007:16)은 문법과 글쓰기가 하나의 교육 맥락을 공유할 때 글쓰기 능력 함양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7) 어문규범에 접근하는 원리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위계 파악), ② 원리를 중심으로(항목들 간의 종적, 횡적 관계 보기), ③ 자기 이해를 중심으로(스스로의 언어 능력 확인)

8) 여기서 문법적 전략 능력(strategic competence)은 상위인지 전략(metacognitive strategies)은 글쓰기에서 수행하는 자기 사고를 읽고 보다 사고의 위계를 읽는 과정을 의미한다. 여기서 사고의 위계를 읽는 과정이 통합관계, 선택관계를 통한 사고의 확장과정이 된다. 상위인지전략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자기조절전략 개발(SRSD: Self Regulated Strategy Development) 모델에서 구체화되어 왔다. SRSD 모델이란 자기조절 절차와 쓰기 전략 교수를 융합한 교수법의 하나로 학습자가 글쓰기에 필요한 전략과 자기조절 절차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이 모델에서 자기조절과 쓰기 전략으로 명시된 항목이 목표 설정(goal setting), 자기 점검(self-assessment), 자기 교수(self-instructions), 자기 강화(self-reinforcement) 등이다(Graham & Perin, 2007 등).

- 인지적 기술(cognitive description: CD) => 인지적 확장(cognitive extension: CE) => 상위인지적 사고(metacognitive thinking: MT)[9]
- 이 논문에서 주목하는 바는 '글쓰기'를 보다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하고 계획하는 등의 활동에 관여하는 원리를 문법적 사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자는 것임.[10]

3. 글쓰기를 위한 문법적 사고

3.1 글쓰기 문법으로서의 사고

- 거시적 틀을 초점으로 한 위계적 사고 - 상위 범주화, 항목 간 종적, 횡적 관계 매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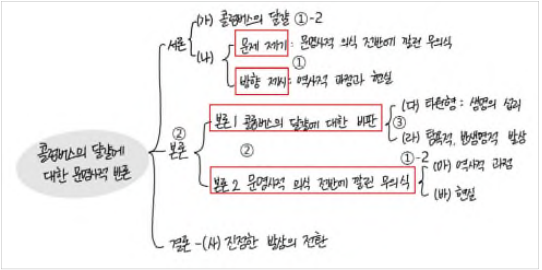
<= 계열관계(선택관계)와 통합관계(연결관계)[11]

계열관계 - 언어 요소 사이의 교체 가능성을 전제로 한 수직적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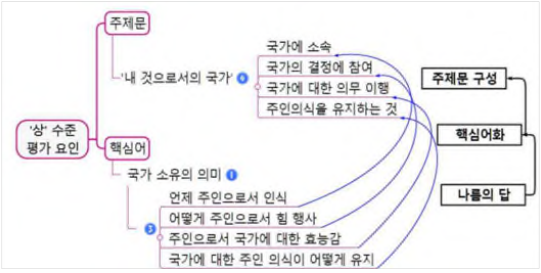
통합관계 - 언어 요소 사이의 연결성을 전제로 한 수평적 관계

- 이전 결과물을 대상으로 한 자기 원리의 추출 - 통합 관계를 통한 자기 질서의 이해
- 사고의 질적 개선을 위한 개방적 사고 - 선택 관계를 통한 확장

3.2 사고의 질적 개선을 위한 문법의 활용



[그림30] 텍스트 수용(김남미, 2022:234)



[그림31] 텍스트 생산(김남미, 2020:24)

- [그림1] :수용의 측면에서 거시구조에 적용된 문법적 사고
- [그림2]: 생산의 측면에서의 거시구조에 적용된 문법적 사고
- 거시구조 개선 과정

① 자기 인식: 핵심어 선정, 핵심어의 위계 파악

② 텍스트 안의 핵심어 관계 설정 및 구조틀 만들기

③ 주제문의 확장 및 질적 개선 - 지속적 수정

---

9) 이 세 단계는 Pramling(1988)이 보인 것으로 Fisher(1998:4)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10) Myhill(2018:12)은 글쓰기 자원으로서의 문법 교육 방법으로 목표 문법과 그것이 글쓰기에서 작동 방식을 탐구하는 방식, 문법 자체에 대한 설명이 아닌 대상 문법의 구조를 예를 통해 접근하는 방식, 문법적 선택과 텍스트 실현 간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상위 인지적 이해를 높이는 방식, 완성도 높은 텍스트를 통한 문법 글쓰기 관계에 대해 상위 인지적으로 의미화하는 방식을 소개한 바 있다.

11) 주지하다시피 계열관계(paradigmatic relations)와 통합 관계(syntagmatic relations)는 언어 단위의 분석이나 분포 및 기능을 기술할 때 활용되는 개념이다. 소쉬르/최승언(역)(1996/1990:146-150)에 따르면 통합관계는 언어의 선적 특성에 바탕을 둔 관계로 발화 연쇄상의 언어 요소들의 배열 관계이고, 계열관계는 기억 속에서 연상되는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참고문헌>

김남미(2020), 대학 작문교육에서의 장르 문법 방향 탐색. 작문연구44, 7-36, 한국작문학회.

김남미(2022), 요약적 사고의 시각화 과정으로서의 구조도 활용 교수 방안, 교양교육연구16, 227-240, 교양교육학회.

민현식(2009), 국어 능력 실태와 문법 교육의 문제점, 국어교육연구44, 1-56, 국어교육학회.

이윤빈(2013), 담화 종합을 통한 텍스트 구성 양상 연구 - 쓰기 과제 표상과 텍스트 구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 ,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희창(2014), 국어 문법론에서의 기술 문법과 학교 문법, 國語學69, 233-254, 국어학회.

제민경(2015), 장르 문법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조성식(1990), 영어학사전, 신아사.

주세형(2005), 통합적 문법 교육 내용 설계-‘의미를 구성하는 문법 지식’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27, 203-226, 이중언어학회.

Carter, R., & McCarthy, M.(2006), *Cambridge grammar of English: a comprehensive guide; spoken and written English grammar and usage*, Ernst Klett Sprachen.

Fearn, L. & Farnan, N.(2007), *When is a verb using functional grammar to teach writing, Journal of Basic Writing*, 26.1, pp. 1-26

Fisher, R.(1998), Thinking about thinking: Developing metacognition in children,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41(1), 1-15.

Hinkel, E.(2018), Descriptive versus prescriptive grammar, *The TESOL Encyclopedia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1, 1-6.

Myhill, D.(2018), Grammar as a meaning-making resource for improving writing. Contribution to a special issue Working on Grammar at School in L1-Education: Empirical Research across Linguistic Regions, *L1-Educational Studies in Language and Literature*, 18, pp. 1-21.

Pramling I.(1988), Developing Children's Thinking About Their Own Learning,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58, 266-278

Saussure, F. de(1916), *Course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Lausanne:Payot/최승언(역)(1990), 일반언어학 강의, 민음사

“교양글쓰기 수업 내 어문규범 교육의 위상”에 대한 토론문

최소영(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남미 선생님의 발표문을 읽고 공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문을 읽으면서 대학교 교양글쓰기 수업에서의 문법의 기능과 교육적 의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위해, 발표문을 먼저 읽은 독자 입장에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지는 점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제가 과문하기도 하고 이번 학술대회부터 발표문이 간략해짐에 따라 미처 행간을 읽지 못하고 질문드리는 지점이 있을 수도 있음을 미리 양해 구하고자 합니다.

1. ‘어문규범’, ‘규범 문법’, ‘문법’의 개념 및 관계 질의

이 발표의 목적은 “교양글쓰기 수업 내에서 어문규범 교육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발표문 1쪽)에 있으며, 연구 문제는 “글쓰기 교육 내 규범 교육(prescriptive grammar)이 텍스트의 생산 및 수용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발표문 1쪽)으로 기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 제목과 목적에서의 ‘어문규범’이란 혹시 ‘규범 문법(prescriptive grammar)’과 동일한 의미인지요? 통상 교육 논의에서 어문규범은 ‘한글 맞춤법’ 등으로 대표되는 4대 어문 규정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만(주세형.신호철, 2011; 정희창, 2016; 민현식, 2017;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한국어 어문 규범’[1] 등), 본 발표에서 어문규범과 규범 문법을 동의로 보셨다면 그러한 데에는 어떠한 의도와 이유가 있으셨을 것으로 짐작되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문법’의 개념 및 ‘문법’과 ‘어문규범’ 혹은 ‘규범 문법’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 ‘반영된 문법관’으로 언급하신 체계기능언어학적 문법관과 의미 구성 중심의 문법관에 따르면 ‘문법’은 적절한 언어 사용의 선택항으로 기능하며, 이는 언어 사용자의 의도 및 맥락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문법’이 화자 혹은 필자의 표현 의도를 고려하여 선택항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바, 옳고 그름의 판단 및 처방적 조치를 위한 어문 규정 또는 규범 문법과는 지향점이 다소 다른 듯합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논문에서 문법적 언어 형식에 주목하여 왔다면, 거시구조를 구성하는 ‘주제문, 핵심어구 구조 간의 관계’에 주목하려는 것이다.”(발표문 2쪽)라고 언급해 주신 내용도 어문 규정 혹은 규범 문법과 연관하여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상정하신 ‘문법’의 개념과 기타 문법의 관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면 발표의 핵심적 내용을 명료하게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

1) [출처] https://kornorms.korean.go.kr//main/main.do

2. '어문규범에 접근하는 원리' 및 '상위 인지적 전략화 과정' 관련 질의

'2.2. 교육 원리'의 "어문 규범의 주요 항목들에 적용"(발표문 2쪽)에 대한 각주 7)에서 "어문 규범에 접근하는 원리"는 "①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위계 파악), ② 원리를 중심으로(항목들 간의 종적, 횡적 관계 보기), ③ 자기 이해를 중심으로(스스로의 언어 능력 확인)"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각각이 모두 상위 인지적 전략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문법적 활동의 상위 인지적 전략화 과정"(발표문 1쪽)과 매우 유사한 속성을 가질 것으로 짐작됩니다. 어문 규범에 접근하는 원리 및 상위 인지적 전략에 관해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신다면 이 발표에서의 '상위 인지'와 '전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듯합니다. 덧붙여, 상위 인지적 전략화 과정이 만약 [그림 1], [그림 2](발표문 3쪽)와 같은 것이라면, 이것을 '규범 문법'을 활용한 전략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있습니다.

3. '최상위구조', '거시구조'와 '계열관계 및 통합관계' 관련 질의

이 발표문에서 '주제 지식의 거시 구조'와 '최상위구조'는 텍스트의 구조에 대한 것이나, 그것이 '글쓰기의 거시구조'로 치환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텍스트의 거시구조는 분석 및 생성 대상인 텍스트의 구조로서 미시구조와 대를 이루는 개념으로 통용되는데, 이 발표문에서의 '글쓰기의 거시구조'는 '어문규범의 주요 항목들에 적용'하는 것에 이어서 제시된 점(발표문 2쪽)을 참고할 때 글쓰기 활동에 대한 것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텍스트의 최상위 구조를 문법적으로 접근"(발표문 2쪽)하는 방식으로 '계열관계와 통합관계'(발표문 3쪽)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본 발표의 취지를 잘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년간의 교양글쓰기 수업과 글쓰기 관련 저술 활동을 지속해 오신 발표자 선생님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선생님의 축적된 연구 내용을 미처 잘 이해하지 못하고 드린 질문이 있더라도 부디 혜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문헌>

민현식(2017), (한)국어교육의 미래와 국제화의 과제, 국어국문학 180, 5-44, 국어국문학회.
정희창(2016), 어문 규범의 대중화와 국어사전, 어문학 131, 55-73, 한국어문학회.
주세형, 신호철(2011), 국어 어문 규범 교육의 목표 및 내용의 재구성-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급의 위계성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28, 85-11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유학생의 대학 생활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이수미(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1. 문제의식

2020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113,003명이다. 이는 2014년 53,636명이었던 것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며 2019년에도 100,215명이었던 것을 보면 COVID19에도 유학생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학생 수의 증가에는 2015년 교육부에서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을 발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 정부는 국내 환경 중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우수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 인력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2023년까지 유학생 수 20만명 유치를 목표로 구체적인 시행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즉 유학생 저변 확대, 유학생 출신국 다변화, 한국 유학 매력도 제고 등을 전략으로 내세우고 유학생 맞춤형 특화 교육과정 개편·학과 개설 추진, 어학연수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한국 대학에서 학위 과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학 내 유학생 담당부서와 한국어학당 간 유기적 협력 등의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이러한 한국어 유학생 수가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전 세계에서 늘어나고 있는 한국어 학습자 수와도 관련된다. 2007년 3개국 13곳, 수강생 740명으로 시작한 세종학당은 2020년 76개국 213곳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해마다 30만명이 넘는 외국인이 국내 유학, 한국 기업 취업을 위해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어 학습자의 양적 증가는 분명히 고무적 현상이다. **그러나 한국어교육의 질적 성장이 이러한 양적 증가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2019년 8월 29일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8/678632/) 기사에 따르면 대학 캠퍼스가 무분별하게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학업을 중도 포기한 채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유학생이 늘고 있고, 서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업에 차질이 생기는 등 대학가 안팎으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물론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경험하는 학생도 많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한국 대학을 다니는 유학생들이 대학 생활에서 무엇을 경험하는지를 기술하고자 한다. **결국 이 연구는 유학생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유학생을 이해한다는 것, 그들이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겪는 경험을 안다는 것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 이 연구에서 찾고 싶은 의의라 하겠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유학생들이 유학 생활 동안 체험하는 보편적인 내용을 기술하여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을 기술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현상학적 연구는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체험적 의미를 기술한다. 즉 연구 참여자들이 현상을 경험하면서 공통적으로 갖게 된 것을 기술하는 데 초점을 둔다(조흥식 외 2010: 91). 본고에서는 현재 6명의 연구 참여자들과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눈덩이

표집방법을 활용하여 더 많은 연구 참여자들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과의 면담에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것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진술들’을 찾아 의미군으로 묶어 주제로 구현하고자 한다.

2.1. 연구 참여자

질적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말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와의 어느 정도는 라포가 형성되어야 가능하다. 연구 참여자는 그들의 경험을 비교적 수월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연구자 역시 그들의 경험을 이해해야 그들의 경험에 미쳐 온 맥락과 상황을 글로 쓸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가 2017년 또는 2018년에 S대학교에 입학한 유학생들에게 연구자가 대학 수학 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어 읽기, 쓰기’를 가르친 학생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현재 대학교 4학년이거나 대학원에 진학하여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면담은 온라인(줌)으로 진행했으며 이 중 한 명은 전화 통화와 카톡으로 1차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 정보와 면담 일자는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정보 및 면담 일자

구분	연령	성별	국적	전공	일자(면담 시간)
명우	25세	여	중국	학부: 영상학과 졸업 대학원: 한국어교육 석사 2기 재학 중	2022.05.05.(1시간 5분)
치엔	24세	여	중국	학부: 국어국문학 졸업 대학원: 한국어교육 석사 2기 재학 중	2022.05.05.(1시간 10분)
조욱	25세	여	중국	학부: 영어영문학과 졸업 대학원: 한국어교육 석사 2기 재학 중	2022.05.07.(1시간 5분)
교월	24세	남	중국	학부: 국어국문학 4학년 재학 중	2022.05.07.(1시간)
모미	24세	여	일본	학부: 철학과 4학년 재학 중	2022.05.11.(1시간 40분)
이회	24세	여	중국	학부: 국어국문학과 4학년 재학 중	2022.05.11.(55분)

2.2. 자료 수집 및 분석

면담을 위해 사전 질문은 ‘대학 생활에서 경험한 것 중에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은 무엇인지, 대학 생활에서 변화(긍정과 부정을 포함)를 느낀 시점이나 계기가 있는지’ 등이라고 연구 참여자들에게 알려 주었다. 면담은 녹화된다는 점에 대해 공지하고 동의를 구했다. 면담한 내용을 여러 차례 다시 보면서 유의미한 주제를 항목화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을 마친 후에는 면담 일지를 작성하여 면담하면서 ‘그때 느낀점’을 기록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3. 1차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들이 들려준 이야기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설레임으로 시작-한류, 케이팝의 영향 ·한국어, 한국문화가 재미있음 ·독립심이 강해짐 ·장학금 제도가 많아 좋음 ·유학생끼리 한국어 들었던 수업이 제일 행복했음 ·한국이 제2의 고향처럼 생각됨 ·미래에 대해 긍정적임-유학생활을 했으므로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함 …	·나의 선택(유학)에 대한 회의 ·한국 친구가 없음(1명도 없다고 생각함) ·한국어를 잘 못해서 겪는 불안(부동산 사기) ·전공 교수님은 유학생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생각함(한국어 교사와는 다름) ·정치적 문제 등이 신경 쓰임 ·동아리 활동을 해 본 적이 없음 ·엠티가 무서움-한국 술문화를 듣기만 했음 ·과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음 …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한국, 한국어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에 오게 됐다고 했다.

제가 고3때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좀 공부에도 몰입이 힘들었는데, 친구가 아이돌 엑소 노래 들어 봐라 신난다고 추천해 줬어요. 그때 처음 한국어 알고 너무 좋아서 빠지게 됐어요. 영어랑 달리, 일본어랑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한국에 다가가는 느낌으로 제대로 한국어 배우고 싶다 생각이 들고 유학이 꿈이었어요. -모미 이야기 중에서

제가 아이돌 좋아해서 처음에 BTS 좋아했는데 지금 너무 유명해져서 지금은 다른 그룹 좋아해요. 예능도 엄청 많이 중국에서 봤는데 그래서 부모님이 처음에 반대했는데, 한국 유학, 제가 주장이 강해서.. 그래서 영상학과도 들어가게 됐어요. -명우 이야기 중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에 산 지 6~7년이 되는 시점인 지금도 한국어와 한국문화가 여전히 재미있고 좋다고 했으며 대학 생활 동안 혼자서 무엇이든지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독립심이 강해지고' 유학 생활을 잘하면 더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한국이 제 2의 고향 같이 느껴져서 이제는 생활에 대한 불안감, 언어에 대한 불안감은 줄었지만 과제는 여전히 힘들고 동아리 활동은 한 적이 없으며, 한국 친구가 한 명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배들에게는 한국 친구를 사귀는 것, 동아리 활동을 하라고 권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한 수업에 들어가면 먼저 중국 친구를 찾아요. 기숙사에서도 한국 친구랑 같이 살고 있어서 외로운 건 없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학교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 축제에 참가하라고 하고 싶고, 제가 동아리 하고 싶은데 제가 맞는 동아리 찾지 못해서 못했는데 동아리 참여하는 것 좋다고 생각해요. -조욱 이야기 중에서

저는 한국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조별 발표 한국인과 한 번 했는데 우리(중국인 2명)는 조용히 있고 한국 사람이 다 하고, 그래서 피해가 될까봐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부담돼요. 대학 생활 동안 같은 반 한국인이라 말해 본 적도 거의 없어요. -교월 이야기 중에서

<참고문헌>

이수미(2016),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경험에 대한 생애사 연구: 교실 안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3,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709-735쪽.
이수미(2016),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과정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우리말교육현장연구 2, 우리말교육현장학회, 309-339쪽.

“유학생의 대학 생활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에 대한 토론문

강남욱(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이수미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한국어교육학계의 주요 현안과 관련된 교재 개발, 기능별 교육, 문법과 어휘 교육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꾸준히 학습자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에도 천착해 오셨습니다. 그간 선생님께서 발표한 연구를 다수 접하고 읽었기에 한국어교육을 둘러싼 양적으로 기술되는 체계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구성되는 한국어 학습자의 내적인 경험을 깊이 있는 해석으로 규명하면서, 방법론에서 균형 있는 연구자로서 활동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또한 유학생의 대학 생활의 경험을 내밀한 질적 면담을 통해 짚어봄으로써 이 유학생들에게 있어 ‘한국어’와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익힌 한국어로서 ‘대학 생활을 한다는 삶의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하셨습니다. 토론자인 저 개인의 경험이나 체험으로도 대학에 유학 온 많은 유학생들을 만나 보았고, 이들을 지도하는 다양한 전공의 여러 교수들을 만나기도 하여 많은 부분에서 궁금함도 있어 흥미롭게 읽어 보았습니다.

이 연구가 아직 어떤 결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기에 과정만을 놓고 몇 가지 토론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면서 연구에 조금이나마 아이디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쭈어 볼 것이 무척 많지만, 세 가지를 추려 보았습니다.

1.
이 연구를 통해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는 ‘타자, 비주류, 외국인이 겪는 한국 유학 생활’ 그 자체에 있는지, 혹은 ‘유학생의 경험을 통해 보는 한국의 대학 교육’에 있는지, ‘한국 대학 유학에서 한국어의 위상과 대학 한국어교육을 위한 시사점 탐색’인지 명확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이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로서 여러 학습자를 비구조적인 방식으로 면담하고, 이 면담의 내용을 코딩하면서 적절한 범주와 주제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연구의 모두(冒頭)에서 선생님께서는, ‘이 연구는 유학생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유학생을 이해한다는 것, 그들이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겪는 경험을 안다는 것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교육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 이 연구에서 찾고 싶은 의의라 하겠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지금까지 수집된 면담 분석으로 볼 때, 앞으로 이 연구의 주된 주제는 어느 방향으로 가리라 여겨지는지요? 혹은 어떤 방향을 위해 면담을 보충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다른 것보다 이 점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2.
두 번째로는 면담자의 구성이 갖고 있는 특성이 혹시 있었는지 여쭈어 보고 싶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아시안계 학생(중국, 일본) 위주로, 20대 중반의 여성 유학생을 위주로, 또 인문학 전공 위주로 면담 대상자를 구성하셨습니다. 이 점은 면담에서 도출되는 여러 교집합적 경험

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것을 보입니다. 특히 단순한 예상이기는 하나 발표문에서 정리한 유학생이 겪은 부정적 경험의 대부분은 이 집단이 갖는 특성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안계 학생이 모국에서 경험해 온 교육의 문화, 또 동아시아 3국이 갖는 역사 문제를 비롯한 미묘한 정치외교적 현안 문제는 예컨대 같은 아시아라도 인도나 몽골 학생 등이 경험하는 것과 다를 것으로 보이고, 또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출신으로 한국에 유학을 온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것과 결이 다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면담 중에 자국에서 경험한 교육문화, 교육의 관행,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자국의 대학 문화와 그 대학 안에서 자신들이 본 자국에 온 유학생의 생활 등의 주제를 넣어 자유롭게 진술하도록 하는 것도 몇 가지 시사점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차적인 생각이지만 한편으로 '아시안 여성 유학생'이라는 관점을 더 쭉 밀어붙여서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상당히 다른 지평의 문제들도 도출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3.

이번 학술 주제와 결부하여 생각해 보면, '한국 대학 교육의 위기' 안에 유학생이 거론될 수 있는 지점도 분명히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시대적 흐름이 크게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학 사회와 주류 대학 구성원(교수 집단, 한국인 학생 등)이 갖고 있는 비포용성, 배타성, 고정관념과 편견에 여전히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고, 또 한편으로 대학을 살리려는 부득이한 자구책으로 수학역량이 부족하거나 한국어 동기가 부족한 유학생들을 대거 선발하는 현재 한국의 대학 정책에도 우려의 시선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를 사회적, 정책적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 중에 한국 땅을 밟은 유학생의 삶을 깊이 있게 조망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묘사하고 폭로하고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가도 듭니다. 우리 사회 역시 미국과 유럽, 호주 등에 수많은 유학생을 보내고 있고 한국인 유학생으로서 그 공간에서 겪은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접하곤 하는데, 우리 대학에서 일어나는 상황들과 상당히 다르다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 느낌 그저 인상이라 아직 추상적어서 무엇이 다른지 한번 관찰하고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확한 지점을 짚어 토론의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구체적이지 않은 두루뭉술한 말씀만 드리는 것은 아닌가 싶어 조심스럽고 민망한 마음입니다. 선생님께서 의도하신 방향이 아닌 부분에서 공연한 말씀을 드렸다면 그것은 연구를 충분히 읽어내지 못한 저의 부족함 때문이니 양해를 구합니다. 한국에 있는 유학생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 대학 교육, 어문교육, 한국어교육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통찰을 주시리라 기대하며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제 2 부

대학 교육의 위기와 국어국문학의 변화 방향

국어학 연구 성과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소고

주지연

1. 논의의 목적, 필요성, 방법

▌**목적**: 국어학 연구의 성과가 대학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나아가 국어학 연구 성과에 관심을 가지고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1)]이 최신 국어학 연구 성과에 지속적으로 접근 가능한 접근 경로를 정비하는 데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 짚어본다.

▌**필요성**: 연구 성과가 누적되고 학술적 논의가 고도화됨에 따라, 대학의 한정된 전공 수업 시간 내에 방대한 학술적 연구 성과를 반영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졸업자를 포함한 관련 분야 종사자들도 동시대 학술 연구 성과에 적절히 접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자료화면1]이다, 연구자들이 학술적 연구 성과가 교육 현장 및 일반에 원활하게 공유되고 활용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범위와 방법에 대하여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논의의 전개 방법** : 대학생을 포함한 학술 정보 수요자가 학술 정보에 접근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다음의 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차례로 모색한다.

(1) ㄱ.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논의가 고도화하면서 개별 학술논문의 용어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ㄴ. 연구사적 맥락에서 학술논문들의 가치와 타당성, 적절한 활용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ㄷ. 학술논문에 대한 유료진입장벽 등의 요인으로 학술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점

2. 국어학 연구 성과의 공유와 확산 방안 모색

2.1. 학술 대중화 담화 활성화와 알기 쉬운 요약

학술논문들이 점점 복잡하고 용어와 개념의 전문성이 고도화 됨으로 인해 그 가독성이 감소하면서 일부 분야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알기쉬운요약(Plain Language Summary, Lay summary)'[2)]을 작성하는 노력이 대두되고 있다.

---

1) 국어 교사, 한국어 교사, 언론,출판계 종사자, 언어 정책 수립 관련자 등을 포함. 국어학 연구자들이 연구 성과의 공유와 환원을 위하여 기여할 최적의 범위가 어디인지는 당장 밝히기 어려우나 최소의 지원 범위는 대학에서 국어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국어학 연구 성과의 맥락을 이해하고 졸업 이후 종사하는 분야에서 필요할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우리의 논의는 일단 이 최소의 범위를 기준으로 진행할 것이다. 따라서 학술 지식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을 새롭게 환기하는 노력을 포함한 추가적인 기여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기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국내 최초 시도**: 2021년 <<보건사회연구>> [자료화면2]
신영전(2021)에서는 이러한 시도의 의의를 "전문가의 지식 독점을 완화하고, 오해나 잘못된 해석을 최소화하며, 많은 시간, 노력, 경비를 들여 이루어 낸 연구 결과를 사회에 널리 알리는 효과"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기존의 학술논문 유통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학술논문 양식의 일부로 알기 쉬운 요약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해외 인접 분야의 시도**: "OASIS" 플랫폼[3] [자료화면3]
위의 단계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개별 연구들의 알기 쉬운 요약을 접근에 제한이 없는 새로운 플랫폼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시도다. 언어 과학 분야의 주요 저널의 편집자들과 협의하여 개발한 지침에 명시된 형식으로 요약한 텍스트를 수집하여 오픈 플랫폼에 게시하였다.

▌ 국어학 분야의 경우에도, 각 학회 차원에서 논문 투고시 "알기 쉬운 요약"을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아울러 이미 누적된 선행 논의들에 대한 알기 쉬운 요약을 수집하여, 궁극적으로는 이를 열린 통합 플랫폼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학술 정보 확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대학 전공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2. 문헌고찰류의 체계적 정비

▌ **문헌고찰의 역할 확장**: 기존의 연구자 공동체 내의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문헌고찰(Review)은 각종 1차 연구들을 서로 다른 수준과 방법을 통하여 모으고 분석하여 일정한 영역의 연구 지형에 빠르게 접근 가능하게 해준다, 우리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최신의 학술 정보를 확산시켜 활용하고 공유된 과학적 지식을 업데이트 하기 위한 도구로써 체계적문헌고찰(systematic review) 및 이에 기반하여 생산되는 포괄적문헌고찰(umbrella review)의 역할 확장 양상[4]을 참조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 **문헌 고찰류 체계 정비 필요**: 그러나 현재 일부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문헌고찰은 주로 연구자 공동체 내에서 읽히고 활용될 뿐, 해당 분야 학술 정보의 광범위한 공유와 확산을 전제한 체계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문헌고찰이 국어학 분야에서도 학술 정보의 공유 및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어학 분야에 최적화된 문헌고찰류 체계를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 질적 연구를 포함한 여러 영역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

---

2) Stricker, J., Chasiotis, A., Kerwer, M., & Günther, A. (2020)에서는 심리학 분야의 학술논문 초록을 대상으로 이른 바 '쉬운 언어 요약(PLS: Plain Language Summary)를 비교하여 PLS의 가독성이 논문의 초록에 비해 훨씬 높음을 보였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분야에서 이해하기 쉬운 논문 요약 작성의 효용과 작성 방법에 대한 논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3) https://oasis-database.org/
4) 김수영 외(2020, 1-2)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이 그와 관련된 최신 연구 근거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에서 시작하였다. 그러나 문헌의 양이 계속 증가하고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자가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방대한 일차연구들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계적 문헌 고찰 방법론이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보건 의료 분야이다.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론은 특히 코크란 연합의 활동으로 구체화 되었다. [자료화면4]

시키기 위해 개발된 문헌 고찰 유형이 다양하게 제시, 평가되고 있다.[5] 이러한 논의를 참조하여 국어학 문헌고찰류를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문헌고찰류 레이블링을 통한 다양한 층위의 문헌 고찰 생산을 들 수 있다.[6]

문헌고찰류 레이블링을 통한 체계 정비: 문헌고찰류가 극단적으로는 연구사를 주관적으로 기술한 에세이로 취급받거나, 파편화된 자료로만 존재하고 축적된 학술 자료로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후 생산되는 문헌고찰류를 체계화하여 정제하는 방향의 노력이 필요하다[자료화면5]. 이를 토대로 다양한 방식의 지식합성 방법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비되어 궁극적으로는 포괄적 문헌고찰(umbrella review)과 같이 학술 정보 접근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헌 고찰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의 문헌 고찰류를 생산하는 단계를 지향할 수 있다. 이는 1차 연구들의 근거를 단계적으로 종합해 나가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학술 정보 확산 경로라는 점에서, 기존에 학술 정보 확산을 목적으로 산발적으로 생산된 자료들과 차별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이미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 성과 공유와 확산을 실현하고 있는 영역들에서도 최근 세부 유형의 문헌 고찰 방법론을 정비하고 레이블링을 정교화하는 작업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2.3. 학술 정보 개방과 학술 플랫폼의 활성화

이미 진행중인 학술 정보를 개방을 위한 실천적 노력으로 학술논문 공유와 학술 데이터 공유 등이 있다.[7] 이에 더하여 최근 다양한 형식의 대안적 학술 플랫폼에 대한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일종의 포스트 오픈액세스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대안적 플랫폼의 기대 역할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것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특히 관심을 가지는 것은 대학 교육과 학술 정보 확산에 기여하는 학술 플랫폼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학술논문에 대한 알기쉬운요약 및 문헌 고찰류를 공유하는 오픈플랫폼이나 학술적 쟁점을 중심으로 한 학술 위키 등의 형식도 고려할 수 있다.

---

5) 특히 Grant and Booth(2009)에서는 자주 출현하는 아래의 14개의 문헌 고찰 방법론을 분석하여 큰 주목을 받았다. 다만 이는 같은 층위의 배타적 분류 체계로 확정하기 위해 제시된 것은 아니며, Grant and Booth(2009)에서도 광범위한 문헌 고찰 유형에 대한 체계적 식별을 통하여 사례연구, 질적 연구, 이론 연구 등 다양한 연구 결과를 합성하고 요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일관성 있고 상호배타적인 문헌 고찰 유형류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시된 14유형: 비평적 문헌고찰(Critical review), 대응도식 문헌 고찰(Mapping review), 서술적 문헌 고찰(Literature review, Narrative review), 메타분석(Meta analysis), 혼합방식문헌고찰(Mixed studies review/mixed methods review), 일반문헌고찰(Overview), 정성체계적문헌고찰(Qualitatative systematic review/quallatative evience synthesis), 긴급문헌고찰(Rapid review), 주제범위문헌고찰(Scoping review), 최신경향문헌고찰(State-of-the-art review),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 체계적 조사 문헌 고찰(Systematic search and review), 준체계적문헌고찰(Systematized review), 포괄적 문헌고찰Umbrella review).

6) 지식 합성 방법론의 가이드라인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양적 연구 영역과는 달리 인문학, 사회과학 등의 연구 영역에서는 특히 질적 연구 영역의 지식 합성 방법에 대한 합의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여러 시작점 중 하나로 문헌고찰류 레이블링의 정비를 조심스럽게 제안해본다.

7) 오픈엑세스와 관련하여서는 https://www. budapestopenaccessinitiative.org/, https://knowledgecommoning.org/ 참조.

3. 결론

학술 지식의 질적, 양적 성장과 전문화로 인하여 현재 대학 교육의 강의나 교재만으로 연구 성과의 공유와 확산이 충분히 진행되기 어렵고, 졸업자나 관련분야 종사자들에게 업데이트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개인이나 소집단이 교육, 학술 대중화 등의 목적으로 학술적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해주는 교재나 저서을 내는 개별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더욱 지속가능하고 광범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학술 자료 정비와 관련된 학계의 체계적 노력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수영, 박동아. 서현주, 신승수, 이수정, 이민, 장보형, 차영주, 최인순, 박균익 (2020), 의료기술평가방법론:체계적 문헌고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박서현(2020), 한국 학계에서 지식 커먼즈의 대안적 생산에 대하여: 인문사회계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59(1), 187-211.

박숙자(2019), 지식공유연대와 OA운동, 국내학술지오픈액세스전환정책토론회 발표문 (지식공유연대홈페이지 수록)

신영전(2021), 연구는 누구의 것인가?:'알기 쉬운 요약'을 시작하며. 보건사회연구, 41(1), 5-7.

이현주(2021), 공공언어의 전문성, 전문용어의 공공성. 한국사전학, (37), 7-51.

Booth, A., Sutton, A., Clowes, M., & Martyn-St James, M. (2021). *Systematic approaches to a successful literature review.* Sage.

Borg, S. (2009). English language teachers' conceptions of research. *Applied linguistics,* 30(3), 358-388.

Cates, C. J., Stovold, E., & Welsh, E. J. (2014). How to make sense of a Cochrane systematic review. *Breathe,* 10(2), 134-144.

Cooper, H. M. (1998). *Synthesizing research: A guide for literature reviews* (Vol. 2). Sage.

Grant, M. J., & Booth, A. (2009). A typology of reviews: an analysis of 14 review types and associated methodologies. *Health information & libraries journal,* 26(2), 91-108.

Marsden, E., Trofimovich, P., & Ellis, N. (2019), Extending the reach of research: Introducing open accessible summaries at language learning. *Language Learning,* 69(1), 11-17.

Plavén-Sigray, P., Matheson, G. J., Schiffler, B. C., & Thompson, W. H. (2017), The readability of scientific texts is decreasing over time. Elife, 6, e27725.

Efron, S. E., & Ravid, R. (2018). *Writing the literature review: A practical guide,* Guilford Publications.

Stricker, J., Chasiotis, A., Kerwer, M., & Günther, A. (2020), Scientific abstracts and plain language summaries in psychology: A comparison based on readability indices. *PLoS One,* 15(4), e0231160.

고전문학 교육의 현황과 변화 방향

이정원(서강대)

1. 서론

○위기 담론의 변천

국어국문학의 위기에 대한 담론은 변천해 왔다.(김종철 2000, 17). 1990년대에 국어국문학 연구의 가능성에 집중되었다면, 2000년대엔 인문학의 위기가 대두했다. 그 배경과 원인은 '시장 전체주의'(도정일 2000)로 명명되었고, 대응은 문학 교육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자거나(김우창 2000),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자는 쪽이었다.(신광철 2014).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학계에서 이를 집단적으로 고민하였으나, 2010년대 이후에는 아예 대학 무용론으로까지 발전하였다(조헌국 2017). 대학 무용론은 여러 양상으로 나타난다. 대학 졸업장이 취업과 계층 상승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진학률의 하락, 각종 학위 남발로 인한 대학의 아카데미즘에 대한 권위 하락, 고급 지식을 유통하는 대안 경로들의 출현(유투브, 블로그, 대중 강연), 학문적 진지함 없이 대중과 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지식 유통업자들(지식 인플루언서들)의 출현 등등.

○이미 시작된 대학의 변화

그러나 대학의 대응도 이미 시작되었다. 이는 몇 가지 현상에서 감지된다. 2022년 현재 국어국문학 교수 채용에서 디지털 문식력을 지닌 연구자 선호(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중앙대), 학문의 최종 담당 조직으로서 학과가 아니라 인문대학 명의의 교수 채용(서울대), 교육과정의 전공 역량에 디지털 문식력 포함(연세대), 교육과정에서 실용/응용 과목들의 배치, 단일전공에서 융합/연계 전공 권장, 온라인 교육의 위상이 보완재(K-mooc)에서 독자재(미네르바 스쿨)로 변화, 디지털 서사와 디지털 인문학 관련 논문들의 양산.

변화를 정리하면 ①조직: 학과제의 유연화 ②교육: 디지털 역량/융합교육 수용 ③연구: 디지털 인문학/서사학의 수용. 이런 현실에서 학과제를 전제로 고전문학 교육을 단독으로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이거나 효율적이지 않다. 학과 통폐합이나 취업률 저하 등은 위기를 드러내는 현상이고 본질은 국어국문학을 포함하여 대학의 인재 생산성의 하락.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여 역량 개념을 도입하고(박민정 2008; 최혜진 2019) 디지털 문명에 적합한 교육을 하려고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이용욱 2002; 한기형 2004; 이용욱 2013, 정선희 2014; 오세정 2017; 김바로·강우규 2019; 조현우 2020).

변화에 대한 이해와 태도는 학계에서 균질하지 않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기보다는 이미 시작된 변화의 방향과 이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학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2. 교육모델의 변화

2.1. 지식 전수 모델의 한계

○문학지식 교육과 문학 교육

대학에서 교육 모델은 교육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그에 따른 실천을 포괄하여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기존의 교육이 문학과 관련한 지식들, 예컨대 주요 작품, 작가, 양식, 그리고 문학사와 이론 등에 관해 학계에서 생산된 성과를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 즉 지식 전수 모델. 근거 ①교육과정이 학문 분과 체제(김종철 2000, 25;

한기형 2004, 22-24) ②강의 위주. 그러나 연구 결과를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데에 그치는 것을 과연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심경호 2000, 324; 김상욱 2000, 97; 최혜진 2019, 104)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과 세계에 훌륭한 인간을 기르는 것인데, 지식의 전수 모델은 학부 교육을 독자적 교육과정보다는 대학원의 전단계로 간주하여, 실제 생활에 필요한 고도의 인간적 능력을 학문적 지식의 습득 과정에서 부수되는 효과로 간주할 뿐이다.(한기형 2004, 22; 박민정 2008, 174) 지식 전수 모델은 대학의 효용성을 떨어트린다는 점에서 국어국문학뿐만 아니라 대학 자체의 위기 근원. '시장 전체주의'라는 비판은 사회 전체의 자본주의적 재편과 그 위험성을 지시하지만 동시에 인문학 교육의 한계를 함축하기도 한다. 인문학 교육이 고답적 성찰 역량만 강조하고 창의적 생산 역량을 등한시한 것.

이를 극복하려면 문학지식 교육보다 문학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문학지식 교육이 학습자에게 문학에 관한 지식을 전수하는 교육이라면 문학 교육은 학습자를 문학적 주체로 성장시키는 교육.(심경호 2000, 326; 조현우 2010, 64; 정선희 2014, 147; 최혜진 2019, 115) 문학 교육 모델에서는 문학적 주체를 구성하는 역량을 지정하고 이를 교육과정에서 계발하는 모델. 문학을 향유하는 능력이 자신과 세계를 풍요롭게 할 근원으로서 의미 있다면, 이를 체계적으로 계발함으로써 인문학적 역량과 사회의 수요를 연계해야 한다.

○지식 전수 교육의 한계

지식 전수 교육은 지식의 전수 과정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이 계발되기도 한다. 또한 어떻게 강의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에게 더 나은 인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우연적이고 개별적인 현상이다. 지식의 전수가 역량의 계발로 이어지는 교육학의 연금술을 믿을 수 없다. 교육 과정은 교수자/학습자의 자질이나 특성과 무관하에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대학에 능동적인 실천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기대하는 현실에서 지식 전수 모델의 특성은 어떻게 한계로 작용할까?

①지식-학생의 관계: 교육 내용으로서의 지식은 그 타당성과 가치를 검증받았다는 점에서 학생에게 권위를 지닌다. 학생의 의지나 실제 삶과 상관 없이, 이 교육 활동에는 지식에 대한 학생의 순종을 전제한다. 개별 수업에서 학생이 질문하고 교수가 답하겠지만, 이는 지식에 대한 해설이지, 근본적인 의심과 재평가가 될 수 없다. 수업은 지식을 매개로 현실에 대해 학습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관계 맺기를 연습하는 성격이 약하다. ②지식-사회의 관계: 지식의 생산자와 전달자의 권위에 의존함으로써 지식의 권위가 가장된다. 지식의 가치는 지식의 진실성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식의 진실성은 필요조건일 뿐, 그것이 가치와 효용을 보장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가르칠 지식의 선별에서 공급자 위주의 판단이 제도화되어, 사회에 대한 지식의 가치 판단은 유예되거나 가장된다. ③지식-교육의 관계: 교육이 지식 전수의 성격을 띠면, 지식에 대한 이해로써 학습자의 자기 발전은 대체된다. 지식을 갖추는 것, 어떤 분야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얼마나 많이, 체계적으로 아느냐가 아니라, 이를 매개로 특정한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느냐이다. 그러나 지식 전수형 수업은 지식에 대한 이해를 과정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음으로써 교육의 성공을 가장한다.

2.2. 역량 개발 모델 검토: 미네르바 스쿨

○역량 개념의 도입과 반발

교육에서 역량 개념은 학교가 생산하는 학력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 역량 개념은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계해주는 인적자본 지표'를 구축하는 유용성을 지닌다.(박민정 2008, 174) 대학의 교육과정에 역량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반발. ①대학을 직업교육 기관

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비판. 취업이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결과임은 분명. 하지만 부정적인 결과가 구조화되어 있다면 목적과 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문학적 가치를 자본주의 현실에 구현할 방법론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 과정의 한계를 드러낸다. ②수요자 중심 교육은 교육의 본질에 위배된다는 비판. 교육은 본질적으로 학습자의 무지를 전제하기에 학습자의 요구에 기반한 교육은 허구이다. 그러나 수요자 중심 교육을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학습자의 요구는 실상 '자본이나 정치 권력의 요구'(김상욱 2000, 98)이거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조장되는 비교육적인 '가짜 요구'일 수 있다(김종철 2000, 16). 교육에서 수요의 대상은 인간의 성장이지, 학습자가 기대하는 특정한 시공간에서의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수요자 중심 교육은 돈 낸 만큼 친절하고 상세한 행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불 만능주의'가 아니라 수요자로 인격화된 사회의 인재 요구와 기대가 관철되어야 한다는 '교육의 공공성'에 기반해야 한다.

○미네르바 스쿨

기존의 대학 교육에 대한 불신에서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적용한 대학을 낳았다.(이하 미네르바 대학 소개는 이경호 2020 발췌) '미네르바 스쿨'은 2012년에 미국의 벤처 사업가 벤 넬슨이 설립. 2014년부터 입학생을 받아 교육. 특징 ①물리적 교실 없이 모든 학생이 4년 내내 20명 이하의 온라인 수업 ②7개 나라를 돌며 기숙사 생활(샌프란시스코, 서울, 하이데라바드, 베를린, 부에노스아이레스, 런던, 타이베이) ③글로벌 기업에서 인턴십. ④모든 수업을 영어/토론식으로 진행. 학부 전공: 예술 및 인문학, 컴퓨터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경영학.

-교육 목표: 실천적 지식의 습득을 통해 미래 사회 요구에 맞는 역량 있는 인재 양성. 지도자, 혁신가, 넓은 사고가, 글로벌 시민.

-교육 과정: 학습 내용으로서 '마음의 습관과 근본 개념'을 익혀 핵심 역량으로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효과적인 의사소통력, 효과적 상호 작용력'을 키운다. 1학년(공통): 핵심 역량 계발 수업. 2학년(코어 코스): 지도교수의 도움을 받아 전공 선택. 3학년(집중 코스): 전공 심화 과정. 4학년(융합): 실습과 평가.

-교육 방법: 온라인 수업. 자체 제작한 학습 플랫폼으로 능동적 학습, 학습과정에서의 체계적 피드백, 상황 맞춤형 학습. 교수의 발언은 15% 이하. 토론식 수업에서 학생의 참여도가 자동으로 표시되어 교수가 관리. 인턴십을 통해 국제적 감각과 맥락적 역량을 키운다.

-미네르바 스쿨에 대한 기존 평가: 미국의 경제잡지 포브스, "세상에서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교육기관"(2019.4.8.).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판 미네르바 대학, '태재대학교' 2023년 개교 예정(한샘 창업주인 조창걸 명예회장이 사재 3000억원 출연. 온라인 수업. 각국 기업과 비영리단체들과 협업하여 문제해결능력 키우는 것을 목표로. 영어 수업, 모집단위: 인문사회융합, 자연융합, 디지털사이언스, 인공지능, 비즈니스 혁신).

-과연 미네르바는 지금 대학의 대안으로서 훌륭한가?

①교육 이념: "Higher Education with Purpose"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 양성. 하지만 현실을 보는 시각 자체가 자본주의적, 미국 위주(영어, 글로벌기업). 개인의 정체성을 자본주의 사회/기업의 일부로 고착화시켜 이해. 교육의 목적을 사회의 근원적인 공공성보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개인의 발전이라는 사적 성취로 대체. ②인간관/세계관: 개인에게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책임감을 요구하지 않음. 탈민족적이고 자본주의적으로 균질화된 세계를 가상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개인을 목적으로 삼음. 개인은 실존이 아니라 기능임. 개인의 가치를 기능주의, 성과주의에 기반하여 이해. ③핵심 역량: 문제해결능력은 교육과 현실사회의 관련을 밀접하게 하는 요소. 하지만 미네르바 스쿨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요구하

지 발견할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개인은 문제해결의 주체가 아니라 도구임. 문제 삼는 능력을 상실한 인간은 그 자체로 위험하다. ④연구 없는 교육: 학부 대학은 기존에도 있었으나, 다른 기관에서의 연구에 대한 신뢰를 전제함. 미네르바나 태재 대학은 연구 없는 대학/교수를 전제함(중앙일보 2022.05.03.). 연구 없는 교육은 문명에 대한 존중과 성찰 없이 사회 기득권 집단의 이익 창출을 교육에 대한 수요로 오도하여 이에 봉사하게 됨. 목적은 묻지 않은 채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목표만 중시한다는 점에서 학교라기보다는 학원에 가깝다. 이는 다양한 학문의 존재와 가치를 간과하여 문명의 발전에서 불균형을 심화함.

3. 교육 내용의 확장

3.1. 고전문학과 문학적 주체

○문화콘텐츠 교육의 한계

문화콘텐츠학을 대학 교육에서 받아들인 것은 인문학의 실용적 가치를 구현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함. 최초, 2003년 한신대 디지털문화콘텐츠학과(신광철 2014, 30). 이후 괄목의 성장을 하다가 2010년대 이후 정체(한동현 2013, 309). 그 까닭은 ①문화콘텐츠학에 필요한 통합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②문화콘텐츠학의 지향점이 불명확하여 인재상도 불명확하며 ③문화콘텐츠를 상업적으로만 보는 경향 때문. 결국 문화콘텐츠학은 인문학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 아니라 인문학을 신자유주의 시장에 밀어 넣는 계기가 되었다.(한동현 2013, 309-310, 317)

문화콘텐츠학의 사례에서 우리가 고민할 것은 인문학의 실용성에 대한 이해이다. 여전히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여 고전의 현대화와 대중화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 여기에 문화콘텐츠학이 기여하리라는 기대가 있겠지만 이는 난망한 미래이다. 구체적인 현재를 친근한 방식으로 다루는 새로운 텍스트와 고전은 같은 방식으로 경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화콘텐츠학은 고전문학을 문화산업의 원자재로 다룬다. 고전문학의 가치를 문화콘텐츠에서의 재현이나 활용으로 보는 것은 고전의 가치를 삶에 대한 교훈으로 다루는 아류 도덕론만큼이나 피상적이다. 인문학의 실용적 가치는 콘텐츠의 재료라는 1차 산업적 요소뿐만 아니라 인간과 세계에 대한 형식화에 있다. 고전문학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 감정에 대한 접근, 갈등을 형성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 등이 중요하다. 피카소의 가치는 쇼핑백에 인쇄할 수 있는 그림이 아니라 평면의 입체화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형식화를 내면화함으로써 현재를 미학적으로 풍요롭게 할 수 있다. 문학의 가치를 내면화한 인재를 통해 세계의 창조에 대한 인문학의 관여가 성취될 것이다. 문화콘텐츠학이 문학 본연의 가치 탐구를 대체할 수 없다.

○고전문학 교육을 통한 문학적 주체의 양성

고전문학을 포함하여 기존 문학 교육에 대한 평가에서 지식 전수 교육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은 공통됨. 문학 교육에 역량 개발 모델의 도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래된 미래임. 문학 교육은 '문학을 체질화하고 그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능력의 교육'이며, '문학 능력의 함양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사회에서의 문화 계승 및 창달을 지향하기 때문.(김대행 외 2020, 37) 문화 생산력이 있는 인재 양성은 원래 문학 교육의 목적이었음. 문학 능력을 새로운 문화 창조에 발휘할 수 있는 인재, 즉 문학적 주체를 양성하는 데에 맞춰져야 한다.

그러나 문화 생산력을 발휘할 영역, 방법론으로서의 지식과 연습 과정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의 변화를 전제해야 한다. ①역량 개념에 기반: 역량은 '단순히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과제 수행을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 전략 등을 재조정하고 능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박민정 2008, 182). 문학적 주체를 양성하

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화 창조와 관련한 과제와 이에 필요한 역량을 정비하고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②문학 교육의 범주 확대: 현대는 디지털 문명의 시대이니, 새로운 문화 창조를 위해서는 문학 교육의 범주가 확대되어야 한다. 매체: 어문 - 디지털 텍스트, 대상: 지식 - 수행 과제, 능력: 감상 - 활용/창작.

3.2. 디지털 서사학과 산업으로서의 이야기

○어문 집착의 폐쇄성

문학의 범주가 기존에는 언어와 문자를 매체로 삼는 텍스트에 국한. 이를 디지털 텍스트로 확대해야 한다. 이는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문 텍스트에 대한 현대 연구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요구되는 현실이다. 그러나 디지털 문화가 새로운 문화 양식이니 국어국문학도 이를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최유찬 2001, 59, 최병우 2013, 374) 그것은 어문 텍스트가 아니니 국문학 영역에 들이지 못하는 폐쇄적 관성이 병존. 만약 우리가 문학의 영역을 어문 텍스트로 고집하면 문학은 어문의 고고학으로 남을 것. 왜냐면 우리 시대의 소통은 이미 어문의 기호 텍스트가 아니라 다매체의 하이퍼텍스트로 존재. 어문 텍스트의 향유가 단매체에서 작가의 완성-독자의 수용 구조라면, 하이퍼텍스트는 다매체에서 미완성-참여의 구조. 따라서 어문 텍스트 위주의 연구/교육은 현실의 수요에 부합하지 못함. 학문이 현실 이해와 미래 모색의 도구적 위상을 지닌다고 할 때, 디지털 문화를 외면하는 것은 학문의 본질에 어긋나고 익숙한 것에만 집착하는 학문적 나태함. 이는 어문 텍스트 교육을 포기하자는 말이 아니라 하이퍼텍스트 교육으로 확장해야 함을 의미.

○디지털 서사를 수용하는 현실

문학에서 디지털 문화는 '서사' 개념을 매개로 이미 연구 대상.

-현대문학: 포스트 고전서사학. 서사에 관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이론을 정립하려던 고전서사학은 이른 바 '소설의 죽음' 과 '작가의 죽음'을 거쳐 위기를 맞고, 학제적 연구이자 문화 연구로서 포스트 고전서사학이 등장(송민정 2016, 390). 여기서 서사는 스토리가 있는 문학만이 아니라 그림, 법, 미디어, 디지털 문화까지 확장(권택영 2008, 2). 즉 현대문학은 현대 문명의 변화를 '서사' 개념의 유연화를 통해 수용함으로써 연구 영역을 확장하고 학문의 현재성을 유지. 예) 게임-경험의 서사.

-고전문학: 디지털 시대에 고전 서사 읽기의 확장성. 디지털 시대에 고전 서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읽힌다. ①종이책으로 읽기 ②전자책으로 읽기 ③장르/매체 변용된 텍스트로 읽기 ④디지털 콘텐츠에서 원형 서사로 읽기(서유경 2008, 92-94) 여기서 ③과 ④는 이미 언어 매체에 고정되지 않은 범주이지만 원래의 고전 서사와의 관련, 현재의 향유 주체의 재생산이라는 점에서 디지털 이본. 디지털 이본론은 필연적으로 디지털 서사론으로 확장. 왜냐하면 매체나 양식을 달리한 이본에 대한 연구는 매체와 양식 자체에 대한 일반 이론의 수립을 동반할 때에 적절한 수준의 성과가 나오기 때문. 예) 영화 <장화 홍련> 연구, 웹툰 <그녀의 심청> 연구들.

○디지털 서사를 수용하는 논리

문학 연구가 문학 텍스트에서 탈피하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최병우 2013, 374). 디지털 서사는 문자와 다른 코드들을 통합하고 있으니, 문학 연구의 핵심은 문자가 아니라 서사이어야 한다(이용욱 2002, 390-391). 그러나 디지털 콘텐츠가 현대 문화의 일부이자 지배적 양상이니 인문학의 대상일 수는 있어도, 어떻게 언어 예술에 관한 학문으로서의 문학이 비언어 상업 텍스트까지 포괄할 수 있을까? 문학은 어문 현상 자체에 대한 학문이 아니라 그것의 특수한 형태로서 미적 구조화에 대한 학문. 미적 구조화의 대표적인 형식은 이야기, 곧 서사. 장르에 따라 매체로서의 어문과 구조로서의 이야기의 비중과 관련 양상은 다르고, 국어국문학의 담당

책무성도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모든 학문은 개념적 대상의 구체적 실현태가 겪는 역사적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현재성을 유지. 이야기를 전하는 매체와 이야기를 소통하는 양상은 역사적. 매체: 말 - 글 - 디지털, 양상: 유희 - 예술 - 산업. 매체와 양상이 이야기다움(서사성)의 여러 자질, 속성을 재규정한다. 디지털로 구현되는 이야기, 산업으로서 존재하는 이야기를 문학이 받아들이는 것은 구상, 추상, 개념미술로의 확장을 미술학이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웹소설, 웹툰, 디지털 게임, 메타버스 등에서 어문의 위상, 서사성의 양상이 다르지만, 전래의 문학을 있게 하였던 근거로서의 미적 구조화가 개별 텍스트의 형성과 향유에서도 근거로 작동한다. 그러므로 문학은 현재성을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 서사를 받아들여야 한다. 메타버스에서 언어성이 낮고 이야기성이 높음은 학제적 접근의 필요가 많다는 뜻이지, 문학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러한 개별 학문의 확장을 통해 현대 문명에 대한 인문학의 개입이 구체화되는 것이다.

-내적 필연성: 문학의 영역을 범주화하던 논리로부터 영역의 변화가 필연적인가? 연구: 어문의 미적 구조화가 디지털로 실현되니 영역의 확대는 필연적이다. 교육: 문학적 주체의 실현이 현대 문화의 지배적 양상에서 관철되어야 한다.

-외적 효용성: 문학이 사회에 수행하던 기능이 영역의 변화에도 유효한가? 연구: 디지털 문화에 대한 이해와 미래 모색을 할 수 있다. 교육: 문학적 능력에 기반하여 디지털 문화를 수용하고 생산할 수 있다.

3.3. 디지털 인문학과 디지털 문식력

○디지털 인문학의 출현 배경

디지털 인문학은 중세 라틴어 텍스트의 색인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만든 것에서 시작했다(김현 외 2016, 18). 이후 다양한 인문학적 정보와 문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가공되고 이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룸으로써 기존에 개인의 경험과 직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연구가 가능해졌다. 디지털 인문학은 기존 인문학의 방법론적 확장으로 출발했지만, 점차 디지털 인문학만이 감당할 수 있는 연구 영역이 도래할 것이다(김현 외 2016, 47). 가령 인간의 생활 흔적에 대한 디지털 정보가 쌓이면 한 인간을 프로파일링하고 그 삶이 어떤 알고리즘에 기반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게 된다(조현우 2020, 254). 빅데이터에 근거한 연구는 정제된 어문 텍스트에 대한 탁월한 접근과는 다른 질의 통찰력을 선보일 것이다. 결국 디지털 인문학은 디지털 문명의 도래로부터 인문학이 맞이하게 되는 필연적인 학문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인문학을 수용하는 논리

디지털 인문학을 수용함으로써, 즉 새로운 방법론을 도입하고 연구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국어국문학은 분과 학문의 유한성과 이별하고 인문학의 진화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인터넷이나 핵 가족제도, 공장제 상품 생산, 고도의 사회 분업화 등은 개인의 기호나 찬반과 상관없이 현대의 지배적인 문화이다. 과거의 연구 자료가 디지털 자료로 아카이브화 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의 연구 자료는 모두 디지털 형태로 존재한다. 이는 학문 차원에서 디지털 연구 프로그램과 방법(데이터마이닝, 텍스트마이닝, 코퍼스 분석, 지리정보시스템, 시각화 서술, 의미망 등 노경희 2019, 355)을 활용하지 않으면 미래의 국어국문학은 인문학의 갈라파고스가 될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어국문학의 연구자들이 모두 디지털 인문학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국어국문학의 연구 영역과 교육과정 안에 디지털 인문학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어국문학의 연구가 새로운 학문의 패러다임 안에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디지털 문화에 대한 국어국문학의 연구 성과도 피상적이지 않게 된다. 아울러 국어국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디지털

문식력을 키워서 디지털 문화에서 문학적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4. 교육 이념과 고전문학 교육의 변화

4.1. 국어국문학과의 교육 이념

○민족주의, 인문주의 그리고 현재

교육이념은 교육 기관의 교육 목적과 활동을 있게 하는 사상을 가리킨다. 국어국문학의 태동은 민족주의에 기대어 있다. 조윤제는『국문학사』의 출판을 '독립운동의 한 결과'로 자부했다(황종연 2000, 43). 이는 국어국문학이 국사학과 더불어 식민 정책으로부터 민족문화의 자립을 지키는 보루였음을 드러낸다. 해방 이후 국어국문학은 민족문화의 자의식을 바탕으로 국제화 사회에서 자기 발전의 토대로 간주되었고(김종철 2000, 27) 이러한 자의식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그러므로 국어국문학의 연구와 교육은 민족적 주체의 형성을 지향한다.(김상욱 2000, 99).

국어국문학이 지역학이면서 동시에 인문학의 분과 학문으로 인정되면서 점차 인문주의 또는 인본주의의 이념도 등장했다. 민족주의가 국어국문학에 고증학의 성격을 부여했다면, 인문주의는 언어예술의 해석과 이론화를 통하여 인간성의 고귀한 실현을 목적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민족주의와 인본주의는 '민족문화를 보편적 인간성의 민족적 실현으로 간주'함으로써(황종연 2000, 39) 국어국문학 안에서 공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두 가지 면에서 한계.

①학문/교육의 존립 근거를 (상상된) 공동체적 가치에 둠으로써 개인을 도구화한다. 정작 국어국문학의 연구와 교육이 개인의 자아 실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접점을 마련하지 못한다. 오직 민족주의와 인문주의의 성과로서의 지식을 개인에게 전수하는 것으로 교육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자족한다. 이로써 '문송합니다'의 교육적 토대가 마련된다.

②민족주의와 인문주의의 실현을 선언할 뿐, 방법론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교육과 연구를 박제화한다. 작가론/반영론/문학사 중심의 연구, 지식 전수 중심의 교육은 사회의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변화 속에서 민족주의와 인문주의의 이상을 희화화한다. '국뽕'의 배타적 우월감이 민족주의로 포장되고(민족 문화를 케이뭐뭐뭐로 지칭하고 이해하는 데엔 오리엔탈리즘의 내면화가 작동한다), 자기 계발이 인문학을 대체한다(김미경, 이지성 등의 자기 계발 콘텐츠). 민족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문주의의 지향을 현실 문화에 구현할 수 있는 이론 탐구와 역량 교육을 도외시 했기 때문.

○서울대, 하버드대, 미네르바대의 학과 소개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소개>

https://hosting03.snu.ac.kr/~korean/bbs/content.php?ct_id=1&cate_id=1010:

국어국문학과는 우리 말과 우리 문학을 연구하여 민족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이다. 이를 위해 국어의 구조와 역사를 밝혀 내는 한편, 지난 시대와 이 시대의 문학을 그 시대정신과 사회 배경 속에서 이해하고 그 가치를 탐구한다. 민족의 삶이 국어와 함께 이루어지고, 그 삶의 자취와 정신과 향기가 우리 문학 작품 속에 담겨 있으므로 국어국문학은 한국 인문학의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사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국어국문학의 3대 영역 즉,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에 입문하기 위한 학문적 기초를 닦게 되는데, 이것은 다른 분야로의 진출을 꾀하는 학생들에게도 발전과 확대의 절실한 바탕이 될 것이다.

<하버드대 English 전공 소개>
https://www.harvard.edu/programs/english/
인간은 선사 시대의 동굴 벽화부터 소설, 시나리오, 힙합 운율의 정제된 경험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사용하여 대처하고 번성해 왔습니다. 영문학을 공부함으로써 학생들은 과거의 언어를 분석하고 감상하는 방법과 미래의 서사에 기여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전공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수사를 해석하는 전문 역량을 개발하고 의미 있게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미네르바 대학 Arts and Humanities 소개>
https://www.minerva.edu/undergraduate-program/academics/majors-courses/
예술과 인문학 전공은 인간의 창조적 사고와 표현의 역사를 이해하고, 이것을 사건, 아이디어, 정책 및 인간 관계를 이해하고 맥락화하는 데에 적용합니다. 그것들은 다른 아이디어, 시대 및 문화에 대한 존중를 키우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의 개발을 촉진합니다. 예술 및 인문학 전공은 학생에게 사회적 양심, 그리고 다양한 매체 및 형식에서 설득력 있게 자기 생각을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더 나은 사상가, 지도자, 혁신가 및 정보에 입각한 글로벌 시민이 되도록 돕습니다.
<미네르바 대학 Arts and Humanities에서 Arts and Literature 소개>
예술 및 문학 작품을 해석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 도구를 습득합니다. 예술과 문학이 주변의 더 큰 사회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또한 어떻게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힘의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예술과 문학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의사 소통하고 변화를 가져오도록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 탐구합니다.

4.2. 새로운 수요와 교육 이념의 변화

국어국문학을 비롯한 인문학이 미래에도 살아남을지는 불투명하다(조헌국 2017, 63). 그러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공학 우위의 세계관을 존중하더라도 국어국문학의 사회적 수요는 존재한다. 다만 이것이 국어국문학에 대한 수요이자 국어국문학의 책무라는 인식이 부족할 뿐이다.
-산업적 수요: 최초의 메타버스 세컨드 라이프의 실패 원인은 참가자에게 너무 많은 자유를 준 것(서성은 2008, 19-20). 인간은 행위를 연결하는 서사가 없으면 의미도 재미도 느끼지 못한다. 세계와 자신을 연결하는 이야기가 없으면 자리를 잡지 못한다. 국어국문학은 시간의 시험을 견딘 정제된 이야기부터 가장 현재적인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무슨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인지 연구한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게임이나 메타버스도 궁극엔 이야기 산업이고 여기엔 훌륭한 그래픽카드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식별하고 감상하며 구성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사회적 수요: 과학기술의 발달,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은 새로운 인간의 출현을 동반한다. 사이보그, 트랜스휴먼, 인공지능, 생기론적 포스트휴먼 등은 각각 기계화된 인간, 유전자 조작된 인간, 확장된 인식 구조로 영속하는 인간, 정신과 몸이 정보로 번역된 인간 등을 선보인다(정지훈 2018).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일상을 선별하고 저장하며 공유함으로써(라이프 로깅) 인간은 새로운 자아, 즉 디지털 미디어의 콘텐츠로써 존재하는 가상의 자아인 디지털 페르소나를 갖게 된다. 인간성에 대한 탐구는 산업적 수요와 별개로 문명의 향방을 가늠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인간성의 구별은 신과의 대립 구도, 동물과의 대립 구도를 거쳐 이제 기계와의 대립 구도 속에 놓여 있다. 구체적인 감각과 쾌의 주체로서의 인간, 즉 미학적 주체로서의 인간은 포스트휴먼 시대에 요구되는 인간 이해이다(김하얀 2017, 178~183). 호모 내랜스는 미학적 주체의 한 위상으로 이해된다. 우리는 이야기를 즐기고(호모 내랜스), 이야기로써 자아를 형성한

다(서사적 자아). 국어국문학은 인간성에 대한 학제적 연구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개인적 수요: 많은 굴곡이 있겠지만, 노동의 종말(축소)과 잉여 시간의 증가는 점차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예술의 향유는 직업적 역량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평생 교육의 주요한 활동이 될 것이다. 우리는 미학적 인간이며(엘렌 디사나야케, 2009), 예술을 즐기는 것은 지금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더 재미난 이야기, 더 훌륭한 이야기를 위해 돈을 지불한다. 미감은 타고나지만 훈련도 필요하다. 교육받은 자들은 더 고급의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다.
-교육 이념의 변화: '민족문화를 보편적 인간성의 민족적 실현으로 간주'하고 더 훌륭한 민족문화를 창조함으로써 개인의 자존을 실현하는 일은 국어국문학이 담당해야 할 일 중 하나이다. 민족의 존속과 민족문화의 발달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현실이고 문명의 다양성 측면에서 필요한 미래이다. 구체적인 민족문화로부터 분리된 개인은 그 정체성이 공허하다. 새로운 수요 앞에서 국어국문학은 기존 교육이념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이상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역량 중심 모델의 도입은 그 방법의 실천이다. 문학적 주체의 양성은 국어국문학에서 역량 중심 모델의 지향으로 이해된다. 문학적 주체의 양성은 전통적인 언어예술작품의 전문가 그리고 디지털 문명에서 확장된 문학 개념(산업으로서의 이야기)에 근거한 전문가를 아울러야 한다. 그래야 국어국문학이 지금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도 개인과 인류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대행 외,『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0.
김동환, 「한국소설의 내적 형식과 문학교육」, 『문학교육학』 6, 한국문학교육학회, 2000, 141~157쪽.
김상욱, 「문학교육 이념으로서의 주체 형성과 민족적 주체」,『문학교육학』6, 한국문학교육학회, 2000, 95~121쪽.
김우창, 「다원시대의 문학 읽기와 교육,『문학교육학』6, 한국문학교육학회, 2000, 13~33쪽.
김종철, 「민족 정서와 문학교육」,『문학교육학』6, 한국문학교육학회, 2000, 123~137쪽.
김종철, 「전공교육으로서의 국어국문학」,『국어국문학』127, 국어국문학회, 2000, 15~30쪽.
심경호, 「한국 고전문학교육의 현황과 과제」, 『문학교육학』 6, 한국문학교육학회, 2000, 317~338쪽.
황종연, 「탕아(蕩兒)를 위한 국문학: 교양교육으로서의 국어국문학」,『국어국문학』127, 국어국문학회, 2000, 31~48쪽.
권영민, 「디지털 시대 인문학의 방향」,『국어국문학』129, 국어국문학회, 2001, 5~13쪽.
최유찬, 「디지털문화로서의 국어국문학 연구」,『국어국문학』129, 국어국문학회, 2001, 57~75쪽.
이용욱, 「디지털 서사체의 미학적 구조(1)-웹아트의 '디지털 내러티브'를 중심으로-」,『한국문학이론과비평』17,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2, 389~414쪽.
한기형, 「국어국문학과의 미래지향적 변화방향-제도적 자기혁신의 문제를 중심으로-」,『고전문학연구』25, 한국고전문학회, 2004, 13~35쪽.
권택영, 「'포스트-고전서사학'의 전망과 현재 - 타자로서의 시간과 공간」,『한국문학이론과비평』40,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8, 31~44쪽.
서성은, 「메타버스 개발동향 및 발전방향 연구」,『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12, 한국컴퓨터

게임학회, 2008, 15~23쪽.
서유경, 「고전문학교육의 실행 현황과 향후 과제」, 『국어교육연구』 43, 국어교육학회, 2008, 59~82쪽.
서유경, 「디지털 시대의 고전 서사 읽기」, 『고전문학과 교육』 16,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8, 91~116쪽.
이용욱, 「〈디지털서사학〉의 현황과 전망」, 『비평문학』 30, 한국비평문학회, 2008, 303~320쪽.
장일구, 「서사의 디지털 자질과 서사 공간」, 『한국언어문학』 67, 한국언어문학회, 2008, 487~514쪽.
엘렌 디사나야케, 김한영 옮김, 『미학적 인간 호모 에스테티쿠스』, 예담, 2009.
윤종선, 「문화콘텐츠로서 고전문학의 연구 현황과 전망, 『어문학』 103, 한국어문학회, 2009, 67~196쪽.
조현우, 「고전소설의 현재적 가치 모색과 교양교육」, 『한국고전연구』 2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55~82쪽.
송민정, 「문학 연구의 인지적 전환(1): 텍스트에서 콘텍스트로 -고전서사학과 인지적 서사학의 비교를 중심으로」, 『독일언어문학』 61, 한국독일언어문학회, 2013, 387~413쪽.
이용욱, 「국어국문학(과)의 위기와 스토리텔링」, 『국어문학』 54, 국어문학회, 2013, 287~305쪽.
최병우, 「스토리텔링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문학논총』 64, 한국문학회, 2013, 355~379쪽.
최병우, 「스토리텔링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문학농총』 64, 한국문학회, 2013, 355~379쪽.
한동현, 「문화콘텐츠학의 새로운 포지셔닝: 디지털 인문학」, 『한국문예비평연구』 40,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3, 299~325쪽.
신광철, 「대학에서의 문화콘텐츠 인력 양성의 현재와 미래」, 『인문콘텐츠』 32, 인문콘텐츠학회, 2014, 29~57쪽.
정선희, 「고전소설 연구와 교육의 소통- 대학 고전소설 교육의 개선을 위하여」, 『고소설연구』 38, 한국고소설학회, 2014, 129~155쪽.
한혜원, 「창의형 미디어 스토리텔링 교육 방안」, 『인문콘텐츠』 32, 인문콘텐츠학회, 2014, 59~75쪽.
태지호, 「문화콘텐츠 연구 방법론의 토대에 대한 모색 -'문화'와 '콘텐츠'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인문콘텐츠』 41, 인문콘텐츠학회, 2016, 75~96쪽.
김하얀·유은순·서영주, 「포스트휴먼 시대의 미학적 주체 = '인간학적 미학'을 통한 주체 정립」, 『인간연구』 34,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17, 157~188쪽.
오세정, 「구비문학의 관점에서 본 문화콘텐츠 교육 방향 -구비설화와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7,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7, 5~29쪽.
조헌국,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학교육의 변화와 교양교육의 과제」, 『교양교육연구』 11-2,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53~89쪽.
류수열, 「문학교육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호명하는 방식에 대하여」, 『국어문학』 69, 국어문학회, 2018, 363~394쪽.
정지훈, 「미학적 주체로서의 포스트휴먼 ?」, 『영상문화』 33, 한국영상문화학회, 2018, 83~126쪽.

김바로·강우규, 「빅데이터와 고전문학 연구방법론」, 『어문론집』 78, 중앙어문학회, 2019, 7~39쪽.
노경희, 「동아시아 고전 연구의 자료와 연구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이해: 원본과 디지털 자료의 교섭」, 『진단학보』 132, 진단학회, 2019, 339~362쪽.
최혜진, 「역량기반 고전문학교육의 방법과 과제」, 『어문론총』 80, 한국문학언어학회, 2019, 101~24쪽.
이경호, 「제4차 산업혁명시대 학교교육 혁신방안 탐색 : 미국 '미네르바 스쿨' 혁신사례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6-1,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20, 179~199쪽.
이소영, 「호모 에스테티쿠스: 발생론적 관점에서 본 미학적 지향성과 대안문화의 방향」, 『현대사회와 문화』 10-1,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2020, 165~189쪽.
이요바, 「대학의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개발 방향 탐색: 미네르바 스쿨 사례를 바탕으로」, 『글로벌교육연구』 12-4, 글로벌교육연구학회, 2020, 157~186쪽.
조현우, 「고소설 연구의 '현재'로 보는 '미래' - 실용적 인문학으로서의 고소설 연구를 위하여」, 『고전문학연구』 58, 한국고전문학회, 2020, 231~262쪽.

위기 속의 전환:
포스트휴먼 (인)문학과 SF의 사변적 상상력

노대원(제주대 국어교육과)

1. 서론: 대학의 위기와 포스트휴먼 전환

넷플릭스 드라마 <더 체어>(2021): 김지윤 교수가 이른바 명문 펨브로크대학 영어영문학과 학과장에 부임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다. 미국 학계에서 소수자일 수밖에 없는 비백인 여성 교수의 눈으로 미국 인문대가 처한 위기와 캠퍼스 문화의 변화된 풍경, 한국계 미국인 가정의 풍속을 흥미롭게 재현한다. “정동 이론, 생태 비평, 디지털 인문학, 신유물론, 책의 역사, 젠더 연구와 비판적 인종 이론의 발전.”

우리 시대는 대학과 인문학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급격한 변화와 위기의 시대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 전환은 그 핵심적인 사례다. 이러한 시대적 조건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을 포스트휴먼 조건(posthuman condition)이라 이르고, 그에 대응하는 인문학 담론의 실천을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으로, 학제적 연구를 포스트휴먼 연구(posthuman studies)라고 부른다.

포스트휴먼(posthuman)은 탈-인간, 인간 이후의 존재(새로운 인간)다. 인간 이후의 존재로서 포스트휴먼은 기술과학의 발전으로 전혀 달라진 능력과 조건을 지닌 미래의 인간 종이다. 인공지능, 로봇과 같은 비인간 존재나 사이보그, 합성된 생명체와 같은 새로운 존재 유형의 범주들은 나아가 인간 범주 자체에 대해 회의하게 하고 그 경계를 흐린다. 인간에 대한 근대적 관념과 철학, 즉 서양 인문학에서의 자유주의 휴머니즘은 근본적 비판에 직면하며, 배제되었던 비인간 타자에 대한 복권을 요청한다. 포스트휴먼 조건[1]은 NBIC(나노, 생명, 정보 기술, 인지과학)과 같은 신흥 기술과학, 무인 드론 무기, 전지구적인 자본주의와 기술 매개화된 사회, 기후 위기와 환경 오염, 양극화, 국제 전쟁, 분쟁과 난민과 같은 다소 음울한 사이버펑크 또는 디스토피아 SF의 설정이나 소재와 흡사하다.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 이론가들은 대학의 위기와 포스트휴먼 조건/곤경 속에서 인문학 역시 변화를 겪으며 ‘포스트휴먼 인문학/포스트인문학’(posthumanities)으로 변화해 나간다고 본다. 포스트휴먼의 학제적 학문 연구와 포스트휴먼 인문학을 추구하는 대학이 ‘(비판적) 포스트휴먼 대학’이다.[2] 특히, 브라이도티는 새로운 인문학과 융합적인 학제적 연구(studies)의 다양한 출현을 위기와 분열의 징후가 아니라 활력과 혁신을 나타내는 것이며, 시대의 조건에 부합한다며 매우 긍정적으로 전망한다.

생태 인문학, 환경 인문학(청색 인문학, 녹색 인문학), 지속가능한 인문학, 유기적 인문학. 그리고 신경-진화적 인문학, 전지구적 인문학, 의료 인문학, 시민 인문학, 탄력적 인문학, 공

---

1) 캐롤린 라우의 글에서도 포스트휴먼 조건을 만연한 아웃소싱, 해외 노동 착취, 천연자원 추출로 인한 보이지 않는 생태학적 황폐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실향민과 디아스포라 인구로 특징짓는다. Carolyn Lau, “Posthuman Literature and Criticism”, Rosi Braidotti · Maria Hlavajova (eds.), *Posthuman Glossary*, Bloomsbury, 2018, p.347.

2) 슈테판 헤어브레히터, 김연순 · 김응준 역, 『포스트휴머니즘』,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제5장 「‘포스트휴먼 과학’의 새로운 간학문성」. 로지 브라이도티, 이경란 역, 『포스트휴먼』, 아카넷, 2015, 4장 「포스트휴먼 인문학: 이론 너머 생명」.

동체 인문학, 비인간 인문학, 디지털 인문학 등등. 이 가운데 브라이도티는 환경 인문학과 디지털 인문학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비판적 포스트인문학'(the Critical PostHumanities)이 정치적으로는 대학의 신자유주의적 변화에 저항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도나 해러웨이나 브뤼노 라투르는 분과 학문을 넘어 포스트휴먼 간학제적 연구를 실제로 수행한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이들은 모두 과학기술학(STS) 연구를 통해 인간 중심의 과학 연구를 지양하고 사이보그와 동물, 사물 행위자에게 학문적 관심을 부여하며, 인간 주체 중심의 사유에서 벗어난다.

대표적인 융합적 지식인, 사상가들이 다양한 학문과 지식을 초학제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왜일까? 포스트휴먼 조건이 그러한 학문적 실천을 강제하기 때문일 것이다. 포스트휴먼 시대의 다양한 위기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과 지식이 요청된다. 세계는 전지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기술과 과학이 구분되지 않는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기원에 대한 이해와 그 대응 과정 역시 의학, 수의학, 생물학, 정치경제학, 사회과학, 인문학, 디지털 기술 등 연결된 네트워크적 사고가 필요했다.[3)]

국어국문학에서의 함의

인간의 이성과 사유 능력에 대한 강조와 특권적 지위, 즉 인간예외주의와 종차별주의에 대한 반성이 탈-인간중심주의적 포스트휴머니즘의 기조다. 인간의 언어에 대한 특권적 지위 역시 성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언어와 문화가 중심인, 결국 인간중심주의를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국어국문학 연구와 교육 역시 포스트휴먼 전환에 의해 근본적인 사유의 계기가 주어진 것이다. 쉽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 서구적 민족주의와는 결이 다를지라도 학문 자체의 민족주의적 특성을 어떻게 성찰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국어국문학이 문사철(文史哲)의 전통적 인문주의 학문이라는 점에서, 자연과학과 기술공학과 같은 학문 분야나 새로운 사회적 · 물질적 조건과 어떻게 접속하고 협력하고 변화해나갈 것인지 사유해야 한다. 한마디로 포스트휴머니즘은 국어국문학의 전제와 연구 방향에 거대한 변화, 긍정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포스트휴머니즘이 서구 휴머니즘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라는 점에서 국어국문학의 전망는 긍정적일 수 있다. '여섯 번째 대멸종'의 생태 위기 시대에 비서구적/비이원론적/비인간중심적인 동양의 생태 사상과 사유 체계는 막다른 골목에 처한 근대 학문의 위기에 돌파구가 될 수 있다. 21세기 포스트휴먼 조건을 분석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은 중대한 과제가 될 것이다.

2. 포스트휴머니즘과 SF 서사의 사변적 상상력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 이론가들은 SF에서 사유의 영감을 얻거나 이론을 위한 방법론을 구한다. 브라이도티는 포스트휴먼 비판이론에서 탈-인간중심적 선회를 위한 '낯설게 하기'(defamiliarization)의 방법론과 정치학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이것은 대안의 창조를 위해 익숙한 사유 방식과 재현 습관에서 벗어나는 탈동일시(dis-identification)이자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이다.[4)] '낯설게 하기'(estrangement)는 다르코 수빈에 의해, SF의 정의

3) 노대원 · 황임경, 「포스트휴먼, 바이러스, 취약성」, 『국어국문학』 제193호, 국어국문학회, 2020.

를 위한 중요 개념의 하나다. 포스트휴먼 사회에서는 SF의 낯설게 하기처럼 인간중심적인 근대적 관점을 벗어나 기술적 존재, 사물, 동물, 식물, 외계인처럼 낯선 타자의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사유와 실천이 요청된다.

해러웨이는 SF 스토리텔링의 대안적 상상력을 중시했다. "페미니즘 SF를 채우는 사이보그들은 남성이나 여성, 인간, 인공물, 인종 구성원, 개체적 실체entity, 몸의 지위를 매우 문제적인 것으로 만든다."[5] 이러한 문제인식은 오늘날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의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해러웨이는 SF를 "과학소설science fiction, 사변적 우화speculative fabulation, 실뜨기string figures, 사변적 페미니즘speculative feminism, 과학적 사실science fact, 지금까지so far"[6]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SF는 특정한 문학 장르나 텍스트를 지칭하지 않는다. SF는 인류세(Anthropocene)와 자본세(Capitolocene), 그리고 해러웨이의 용어로는 쑬루세(Chthulucene) 시대, 즉 "취약하고 상처 입은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든 패턴을 제안하고 실행"[7]하는 '함께-되기'(becoming-with)와 '공생'(sympoiesis)을 위한 실천적 스토리텔링이며 생존의 기술이다.

미래는 누구의 것인가? : 포스트휴먼 과학소설성

보스트롬 식의 인간 향상 추구나 커즈와일 식의 특이점주의[8], 그리고 최근 형성 중인 장기주의(longtermism)는 일부 지식인과 기술자의 사변적, 철학적 담론에서 그치지 않으며, 오늘날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경영자들과 서구 자유세계의 정책가들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랜스휴머니즘, 특이점주의의 담론적 실천과 빅테크 기업가들의 글로벌 비즈니스의 젖줄인 사변적 상상력은 물론 SF 서사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레타 툰베리가 이끄는 기후변화 학생운동 단체(Fridays For Future)는 <1%>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9]을 공개하여 화성이 팬데믹, 범죄, 전쟁, 환경 오염도 없는 곳이지만, 화성으로 이주할 수 있는 인류는 1%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한다.

트랜스휴머니즘이나 장기주의(longtermism)는 SF 상상력을 대안적 세계 만들기가 아니라 현실, 현재와 거리가 먼 미래를 위한 것으로 간주한다. 현실의 문제는 더 큰 미래의 문제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유예되거나 배제된다. 그들의 철학과 정치적 이념이 실제로는 기술-자본과 극소수 부유 계층을 위한 논리로 사용될 수 있기에 위험할 수 있다. 이들의 '과학소설성'(science-fictionality)[10], 즉 SF의 프리즘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변형하려는 시도는 흥미롭지만, 그것이 현실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억만장자 테크노크라트의 공상이며, 기술 자본주의의 음험한 책략이다.

---

4) 로지 브라이도티, 『포스트휴먼』, 117, 122쪽 등.
5) 도나 해러웨이, 「사이보그 선언」, 『해러웨이 선언문』, 79쪽.
6) 도나 해러웨이, 최유미 역, 『트러블과 함께하기』, 마농지, 2021, 10쪽.
7) 같은 책, 21쪽.
8) 노대원,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 때 — SF의 인공지능과 특이점 서사」, 『이화어문논집』 제54집, 이화어문학회, 2021 참고.
9) https://www.youtube.com/watch?v=jTPUKzy9164
10) 이슈트반 치체리-로나이는 과학소설성 개념을 통해 SF를 장르 형식보다는 인식의 한 방식, 즉 "체험을 마치 SF 작품의 한 측면인 것처럼 구성하고 시험하는 반응 방식"으로 볼 것을 제안한다. Istvan Csicsery-Ronay Jr., *The Seven Beauties of Science Fiction*, Wesleyan University Press, 2011, p.2.

교원양성기관 국문학 교육의 성찰과 새로운 구도 모색

류수열(한양대 국어교육과)

1. 약사(略史)를 통해 본 국어 교사 양성 기관 국문학 교육의 행방

1945년 10월 경성사범학교와 경성여자사범학교의 통합으로 출범한 경성사범대학에 설치된 국어교사 양성 조직의 명칭은 '국문과'였다. 이후 1946년 8월 국립서울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국립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도 '국문과'라는 명칭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국어교육과'로 개칭된 것은 1963년에 이르러서였다. 이러한 사정은 다른 국립대학에서도 창설과 개칭의 시기에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경로는 비슷하다.

중등학교 (국)문학 교육[1]을 책임질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 국어교육과 및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의 교육과정이 태생적으로 국어국문학과의 교육과정을 모체로 삼았던 것은 필연적이었다. 1946년에 시행된 교수 요목기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읽기, 말하기, 짓기, 쓰기, 문법, 국문학사로 교수 내용을 구획하고 있지만,[2] 교원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에서는 문법과 문학이 대종을 이루었던 것이다. 연습이나 실습이 아니라 이론이 뒷받침하는 학술적 담론의 무게를 가져야 하는 대학의 강좌에서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 분야가 도무지 그 자리에 앉을 온전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시절의 상황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한동안 지속된다. 변곡점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는 1980년대 중반부터였다. 서울대학교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이 시기에는 사범대학 내 교육과정이 교육 일반의 이론과 교육 활동의 원리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 일반' 영역, 각 교과별 교육을 위한 지식과 원리를 내용으로 하는 '교과 교육' 영역, 각 교과의 지식과 능력에 관한 '교과 내용' 영역으로 삼분되는 변화를 보이면서(서울대학교 편, 1985: 1), 교과 교육 영역이 뚜렷하게 자리를 잡음으로써 교원양성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연하게 보여주기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국어학 전공과 국문학 전공 교수진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교육과정 자체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교원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이 명실상부하게 중등학교 교육과정과 구조적 상동성을 확보하기 시작했던 것은 1990년을 전후한 때였다. 읽기와 쓰기 등의 언어 기능(skill)을 전공한 해외 유학파 출신의 교수진이 이론의 무게를 갖추고 교원 양성기관에 자리를 잡았던 시기이다. 이와 보조를 맞추면서 국어학과 국문학 강좌에서도 교과 교육 영역에 온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파생형 강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문학교육 분야로 한정하면, 기존의 갈래 중심 강좌명에 '교육론' 혹은 '교수.학습론' 등이 붙은 강좌가 이에 해당된다.[3]

이러한 교육과정상의 변화로부터 교육적·학문적 세례를 받은 세대들이 교원 양성 기관에

---

1) 중등학교 국어과 교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문학 교육은 실상 국문학 교육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하에서 문학교육이라는 말은 고등 교육에서든 중등 교육에서든 모두 국문학 교육을 가리키는 뜻으로 쓴다.

2) 이 시기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분리되지 않았던 때였다. 교육과정의 세부적인 사항은 정준섭(1995; 42-43)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이런 점에서 1970년대 후반에 '문학교육론'이라는 제목을 단 단행본 저서가 간행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면서도 경이로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당시 경상대 국어교육과에 재직 중이던 김인환 교수의 선구적 탐색이 낳은 산물이다. 목차는 문장 교육론, 시 교육론, 소설 교육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인환(1979), 『문학교육론』, 평민서당 참고. 2006년 한국학술정보에서 재간행되었다.

안착하기 시작한 이후 2010년대부터는 해당 분야의 개론서도 속속 등장하면서(윤여탁 외 3인, 2010 ; 정재찬 외 5인, 2017 ; 김근호 외 13인 : 2019, 박수연 외 3인 편, 2015 ; 김풍기 외 5인, 2013 등) 해당 강좌의 내실을 기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에 더하여 국어과 교육론, 국어과 교수-학습론, 국어과 교육과정론, 국어과 교재론, 국어과 평가론 등의 강좌에 보조를 맞추는 개론서의 등장 또한 국어교육사에서 간과할 수 없는 성과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약사로부터 우리는 국어교육과 및 국어교육학이 그 모체라 할 수 있는 국어국문학(과)로부터 점점 독립성을 강화해 가는 추세를 읽어낼 수 있다. 개설되는 전체 전공 강좌의 수가 통계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짐작되는바 국어교육과에 개설되는 교과 내용 강좌 중 국문학 분야 강좌는 국어국문학과에서 개설되는 국문학 분야 강좌에 비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신 그 자리를 국어교육 전공 고유의 교과 교육 강좌가 포진하고 있는 것이다.

2. 교원 양성 기관 국문학 교육의 현황

전국 38개 국어교육(학)과의 교육과정을 조사한 결과 국어국문학과의 교육과정과 일치한다고 간주되는 강좌명과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문학개론(국문학개설, 한국문학의 이해), 국문학사는 대부분의 국어교육과에 개설되어 있다. 이는 이들 강좌가 교육부에서 지정한 기본 이수 과목에 해당되기 때문일 것이다.

(2) 시대와 장르를 기준으로 한 4분법 갈래인 고전시가, 고전소설, 현대시, 현대소설 분야 강좌(작품론, 선독 혹은 강독)는 아주 제한적으로 개설되어 있다. ‘갈래+교육론(지도(론))’ 형식으로 개설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다. 한 학과 내부에서도 특정 갈래에 ‘교육론’이 붙어 있는 강좌와 갈래명만 제시된 강좌가 공존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아마 교수진의 전공 특성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3) 이들 기본 갈래 외에 구비문학과 한문학, 극(희곡 및 영상문학), 수필, 문학 이론, 비평 관련 강좌는 ‘교육론’을 붙인 경우와 ‘교육론’을 붙이지 않은 채 개설한 경우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다. 이 또한 교수진의 전공 특성을 고려한 결과일 것으로 보인다.

(4) 모든 강좌명에 ‘교육론’이나 ‘지도’를 붙인 경우도 있다(서울대, 제주대). 이들 학과 전공 교육과정에서는 국문학개론이나 국문학사에 해당되는 강좌에도 ‘교육론’이 명시되어 있다.

(5) 특화된 주제를 내세운 강좌가 개설된 사례도 보인다. 생태 환경 문학(이화여대), 남북한 문학(목원대, 우석대), 지역문학(부산대), 세계문학(부산대), 문학주체(부산대), 민속문학(순천대), 문학 배경론(강원대)은 주제론적 접근을 도모하는 강좌로 보인다. 매체 및 콘텐츠(공주대, 대구가톨릭대, 한남대) 관련 강좌는 문학의 확산과 진화를 반영한 강좌로 짐작되며, 창작(가톨릭관동대, 목원대), 감상(론)(가톨릭관동대, 강원대, 전북대, 전주대), 청소년문학(가톨릭관동대) 등은 중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일치도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의 소산으로 추정된다. 그 밖에 작가론(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목원대) 관련 강좌의 존재도 확인되는바 이는 정전급 작가의 위상을 고려하여 특화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3. 교원 양성 기관 국문학 교육의 쟁점과 전망

이상에서 진술한 전국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의 교육과정에서 보이는 특징은 교원 양성 기관의 국문학 교육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쟁점을 도출하고 전망을 모색하기로 한다.

3.1. 쟁점

(1) ‘교육론’이 붙은 경우와 붙지 않은 경우 각각의 강좌 정체성은 무엇이며,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각각의 정체성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는 어떠한지는 서류상의 ‘교과목 개요’나 강의 계획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인(descriptive) 과제이지만, 이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그것이 교사의 어떤 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는가 하는 규범적인(prescriptive) 과제일 것이다.

(2) ‘교육론’이 붙어 있지 않은 강좌인 경우, 기존 인문학으로서의 국문학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과 국어 교사 양성의 일환으로 구성되는 문학 교육과정 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문학 교육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국문학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선택된다. 교과서에 실리는 정전의 선택에서부터 그 정전의 핵심적인 가치에 접근하도록 하는 학습 활동의 내용 요소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적으로 국문학 연구의 성과에 기댄다. 그렇다고 해서 인문학으로서의 국문학 관련 강좌와 차별화를 도모할 필요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순수 학문으로서의 국문학과 문학교육을 위한 예비적 학습으로서의 국문학 탐구는 다를 수밖에 없겠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하는 점이 우리의 중차대한 관심사가 된다.

3.2. 과제와 전망

교사 양성 기관인 국어교육과의 교육과정은 국어 교사 양성이라는 뚜렷한 목적의식 아래 구성된다. 즉 국어 교사는 있지만 문학 교사는 없다. 이는 문학 교육이 국어 교육이라는 커다란 영토 안에 위치해 있는 영역 중의 하나로서 다른 영역과 연동된 채 설계되고 실행되는 유기적 구성 요소라는 점을 함축한다.

그리고 문학 교육을 담당하는 국어 교사의 핵심 역량은 문법 교육 실행 역량(남가영, 2021)을 참조해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❶가르칠 내용으로서 문학 지식 및 문학 작품, 이와 관련된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❷문학교육 실행과 관련한 교수내용지식(PCK)을 폭넓게 이해하고 이에 기반해 교수·학습 및 평가 실행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❸학습한 지식과 전략에 기반하여 실제 문학 수업 및 평가를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다.

이로부터 도출되는 교사 양성 기관 문학 교육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문학 교육을 담당할 예비 국어교사를 대상으로 한 문학 교육은 언어 교육의 일환으로 설계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 양성 기관의 문학 교육은 예술로서의 문학, 문학사적 실체로서의 문학보다 언어 자료로서의 문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는 인문학 기반의 국문학적 연구 성과를 전략적으로 선취(選取)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국어국문학과 교육과정과 일치하는 국문학 개론이나 국문학사 강좌는 물론 갈래별 강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최근에 간행된 작품론 관련 저서에서 ‘~작품 교육론’ 대신 ‘문학교육을 위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사례(염은열 외, 2019 ; 윤여탁 외, 2021)도 이러한 지향을 함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문학 교육을 담당하는 국어교사는 문학 지식과 문학 작품의 유통자일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구도에 따라 이를 전략적으로 재구성하고 배치하는 문학 경영자이자 문학 공학자 역할을 맡는다(류수열, 2021). 따라서 교사 양성 기관의 문학 교육은 문학 지식 및 문학 작품의

전략적 운용 능력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3) 문학 교육을 담당하는 국어교사는 문학과 문하교육을 지속적으로 탐구해야 하는 존재이다. 그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교사 양성 기관의 문학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문학에 대한 열정이나 문학의 힘에 대한 신념, 문학 교육과 관련된 자기 계발 활동의 동기 등 정의적 요소(남민우, 2008)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동반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근호 외 13인(2019),『처음 시작하는 현대소설 교육론』, 창비교육

김풍기 외 5인(2013),『고전소설교육론』, 역락(2015년에『고전산문교육론』으로 개정)

김인환(1979),『문학교육론』, 평민서당

남가영(2021),「국어 교사 양성을 위한 사범대학 교육과정 CQI 분석 및 함의-예비 교사의 문법교육 실행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선청어문』49,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남민우(2008),「문학교사의 전문성과 문학수업에 대한 평가 기준 연구」,『새국어교육』78, 한국국어교육학회, 145-178

류수열(2021),「문학교육의 성격에 대한 일고-공학적 설계와 생태학적 실현 사이-」,『문학교육학』70, 한국문학교육학회

박수연 외 3인 편(2015),『새로 쓰는 현대시 교육론』, 창비교육

서울대학교 편(1985),『서울대학교 교과목 개요-사범대학-』(편찬위원회(1996),『서울대학교 사범대학 50년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55면에서 재인용)

염은열 외 2인(2019),『문학교육을 위한 고전시가 작품론』, 사회평론아카데미

윤여탁 외 3인(2010),『현대시 교육론』, 사회평론

윤여탁 외 16인(2021),『문학교육을 위한 현대시 작품론』, 사회평론아카데미

정재찬 외 5인(2017),『현대시 교육론』, 역락

정준섭(1995),『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한철우 외(2008),『표시과목「국어」의 교사 자격 기준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어교육학회

국어국문학회 윤리 규정

본회 회원은 학술 연구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그리고 자신의 연구가 진리 탐구라는 학문의 목적에 부응하고 인류의 행복과 사회의 진보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을 보람으로 삼는다.

회원은 사회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깊이 인식해 성실, 명예 및 존엄을 안아 행동해 자기의 지식과 기능 및 인격을 연마함과 동시에 인류와 자연과의 공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며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건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건설에 참여하는 지도자로서의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의 수행을 위하여 회원으로서의 행동 규범을 규정하여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신뢰받는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1조(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연구자로서의 규범을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2조(위원회의 설치) 본회 회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 내에 학술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위원: 15인 이내
3. 간사: 1인

4조(위원의 선출)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회원 중, 대표이사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5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회원의 학술연구윤리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6조(윤리 위반 사례) 위원회의 심사에 부의할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으로서의 품위와 관련된 사항
   (1) 일반 국민에게 요구되는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2)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연구비의 부정 집행 등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회원의 품위와 관련된 판정은 일반 국민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하되, 여론의 개입 등 부당한 전제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는다.

2) 연구 결과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
(1)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2) 자신의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은폐한 경우
(3) 기타 연구의 개시와 과정, 결과에 있어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4)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과 효율성, 객관성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한다.

7조(심사 절차) 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회, 또는 대표이사의 심사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의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건의 심사 절차를 결정하되,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를 결정하며, 해당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5) 본인의 소명은 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6)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7) 심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8조(심사 결과의 보고)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의 위촉 내용
2)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5)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9조(징계)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제명
2)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3)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4)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10조(후속 조치) 이사회는 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2)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이사회는 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11조(행정사항)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2) 윤리규정의 수정은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3)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4)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66회 국어국문학회 전국학술대회

대학 교육의 위기와 국어국문학의 변화 방향

발행처 : 국어국문학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신림동)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1동 326호 국어국문학회
전화 02-880-6031
이메일 korlanlit@hanmail.net
홈페이지 www.korlanlit.or.kr
단체등록번호 제44호
등록일 1961.8.31.
발행인 : 김성규

연회비 : 40,000원
계 좌 : 우리은행 1005-704-194166